

일본의 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현 상황과 과제 —

일본의 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현 상황과 과제

2005년 5월 발행

발행인/다도코로 히로유키 발행소/재단법인 국제문화포럼 The Japan Forum

Dai-ichi Seimei Bldg. 26F, 2-7-1 Nishi-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163-0726

tel. 81+3-5322-5211 fax. 81+3-5322-5215 <http://www.tjf.or.jp/>

©2005 The Japan Forum

본 보고서는 주일본국 대한민국대사관 교육관실, 한국교육재단 및 사단법인 도쿄클럽
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

일본의 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현 상황과 과제 —

재단법인 국제문화포럼

2005년 5월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에 관한 명칭 '한국어' '조선어' '한글' 등의 총칭으로서 '한국어'를 사용한다. 단, 강좌명이나 회의명, 서적 등은 고유 명사로 다루어 그대로 번역했다.

들어가는 말

국제문화포럼(TJF)은 일본국내외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과 문화이해, 국제 이해교육에 관한 관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청소년들이 이웃나라의 언어학습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와 중국어학습을 촉진하는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JF는 한국어교육사업의 첫걸음으로서, 한국어교육의 기초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1997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999년에는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 걸쳐서는 대학 등(4년제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일본국내에 있는 외국 대학의 분교 등)의 한국어교육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 보고서의 기초가 된 한국어교육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보고서가 지향하는 바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한국어교육 상황을 비교하여, 일본 학교 전체에 있어서의 한국어교육을 개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과정의 양상이 복잡, 다양하여 균일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학 등의 경우, 4년제대학과 단기대학, 한국어 전문과정과 일반교육과정, 학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선택과 필수과목, 일부 전문코스과 대다수 학교에서의 2단위(학점), 또는 4단위 수업의 차이, 학교와 지역에 따른 특색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기초가 된 대학 등의 조사에서는 선행조사 등을 참고로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주로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1997년도 조사 이후에 수집된 고등학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같은 항목에 관해서는 대학 등과 고등학교를 비교했으며 선행조사 데이터와도 대조, 분석했습니다. 각 교육과정의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최근 수년간의 한국어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연계 접점

TJF가 실시한 고등학교 조사를 통해 한국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교사(비상근강사 포함) 중에 한국어교원면허를 가지고 있는 인원이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의 한국어전임교사는 오사카부(大阪府)에 몇 명이 있을 뿐, 많은 지역에서는 영어, 사회과 등 타교과 교원면허를 취득한 교사가 겸임하여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임을 둘 정도로 한국어수업이 많은 학교도 드문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임교원에 비해 비상근 강사가 수 배나 많다는 것이 대학 등에서도 공통된 현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상근강사의 신분상의 불안정함은 곧, 한국어교육 기반의 취약함과 표리관계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TJF는 현직 고등학교교사의 한국어교원면허 취득을 위한 특별강좌를 개설하기 위해 대학측과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2001년 여름부터 덴리(天理)대학과 간다외어(神田外語)대학에서 한국어 고등학교교원면허 취득을 위한 하기(夏期)집중강좌가 실시되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한국어교육을 잇는 획기적인 첫걸음이었다 할 것입니다. 함께 60명이 수강하여 2003년도까지 35명이 고등학교 한국어교원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전국 네트워크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전국 네트워크란, TJF의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실시했던 교사연수회에 참가한 고등학교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입니다.

두 대학에서 강좌가 시작된 다음해, 대학 등에 있어서의 한국어교육 조사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고등학교 조사로부터 교원연수를 사업화한 것과는 반대로, 한국어의 고등학교교원면허 취득을 위한 대학강좌를 사업화하는 중에, 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현 상황을 파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고-대(高-大)연계’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2002년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외국어과목에 ‘한국어’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상호연계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시험과 고등학교 교육의 관계정립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만, 센터시험에 한국어가 외국어의 한 과목으로서 자리 매김한 것은 ‘고-대연계’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할 것입니다.

한국의 관련기관과의 연계

한국의 국제적인 경제활동의 활발화와 주변지역 사람들과의 교류확대로,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서 한국어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한국국내외에서 날로 높아져, 일본의 한국어교육을 뒷바침하고 있습니다. 2000년을 전후로 한국의 관련기관이나 학회관계자가 일본의 대학 뿐 아니라 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일양측 모두에게 있어서 관련사업을 실시하기 용이한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2002년부터는 서울대학교에서 일본 고등학교 한국어교사를 대상으로 연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TJF가 관여하는 한편, 대학 등의 교원을 포함한 교사연수를 일본국내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연수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추진하는 한국의 대학관계자였습니다.

2004년 8월 초, 한국어교원을 위한 연수회가 교토(京都)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연수프로그램과 함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8월 하순에는 주일본한국문화원의 지원을 얻어 도쿄에서도 연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각 1주간의 연수에 참가한 대학, 고등학교, 어학학교 등의 교원을 합하면 무려 80명이 넘었습니다. 대학 등의 조사를 통하여 TJF와 대학 교원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이 사업을 실현시키는 데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학교교육 속의 한국어

위에서 언급한 조사와 교원연수사업을 통하여, 대학의 일반교육과정과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한국어교육의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과정 모두 2단위나 4단위 이수가 가장 많았고, 입문이나 초급단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교수법이나 언어학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교원이 많았으므로 교원연수에 대한 잠재수요는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대학 등과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한국어교육은 학습자의 연령차이도 있으며, 교육적인 의미도 다릅니다. 단순한 비교는 피해야 하겠지만, 일본 학교교육 속에서 행해지는 한국어교육이라는 공통된 입장에서 양자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시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의 관점을 재파악함으로써, 대학 등과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한국어교육 상황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JF는 앞으로도 교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면서 교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공동교재 개발 등을 통한 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한국어교육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커다란 잠재적 가능성을 품고 있는 일본 학교에 있어서의 한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자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의 발행을 포함한 조사사업에 있어, 주일대한민국대사관 교육관실, 한국교육재단 및 사단법인 도쿄클럽(東京俱樂部)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어교육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본 보고서가 관계자에게 널리 활용되고,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2005년 5월

목 차

들어가는 말.....	3
-------------	---

1.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과 과제

1. 재단사업으로서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1-1. 확대되는 한국어교육.....	13
1-2. TJF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13
1-3. 사업으로서의 홍보활동.....	15
1-4. 앞으로의 TJF사업.....	15
2. 2002-03년도 조사 개요	
2-1. 대학 등에 관한 선행조사.....	16
2-2. 대학 등의 조사 개요.....	16
2-3. 대학 등의 조사협력자.....	17
2-4. 고등학교에 관한 선행조사.....	18
2-5. 정보 공개와 관련기관과의 협력.....	18
3.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	
3-1. 한국어교육의 상황변화.....	19
3-2.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외국어교육.....	20
3-3. 한국어교육 실시학교 증가와 과목명칭.....	20
3-4. 한국어교원의 현 상황.....	21
3-5. 이수형태와 이수자수.....	21
3-6. 수업내용과 운영형태.....	22
4. 한국어교육의 과제	
4-1. 교원고용문제와 신분보장.....	23
4-2.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실시.....	23
4-3. 교과서와 교재개발의 필요성.....	24
4-4.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연계가 필요.....	24
4-5. 다양한 이수방법을 검토.....	25
4-6. 한국어교육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25

II.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분석(자세한 조사결과)

- 1. 외국어교육 속의 한국어
 - 1-1. 대학 등에서의 외국어교육의 개황..... 29
 - 1-2.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교육 실시상황..... 30
 - 1-3.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 이수상황..... 31
 - 1-4.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비교.....31
- 2. 90년대 이후의 상황변화
 - 2-1. 4년제대학의 상황.....33
 - 2-2. 단기대학의 상황..... 34
 - 2-3. 대학 등에서의 신규개설상황..... 35
 - 2-4. 대학 등과 고등학교에서의 개설교 증가..... 35
 - 2-5. 고등학교에서의 최근 동향..... 36
- 3. 한국어과목 명칭
 - 3-1. 4년제대학의 현 상황..... 37
 - 3-2. 4년제대학: 1995-2003년도..... 38
 - 3-3.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1995-2003년도..... 40
 - 3-4. 고등학교: 1997-2001년도..... 40
- 4. 한국어교원의 현 상황
 - 4-1. 모어 등으로 살펴본 대학 등의 교원구성..... 42
 - 4-2. 직위로 본 대학 등의 교원구성..... 43
 - 4-3. 대학의 교직과정과 한국어교원면허.....45
 - 4-4. 한국어교원면허에 관한 문제..... 46
- 5. 이수형태와 이수자수
 - 5-1. 대학 등의 이수형태.....47
 - 5-2. 대학 등의 이수자수.....49
 - 5-3. 고등학교의 이수형태와 이수자수..... 51
- 6. 대학 등의 수업내용과 운영형태
 - 6-1. 대학 등의 학습레벨.....53
 - 6-2. 대학 등의 단위수와 강의시간수..... 54
 - 6-3. 대학 등의 강의내용.....55
 - 6-4. 대학 등에서의 한국어의 위치..... 56
 - 6-5. 4년제대학의 운영형태..... 57
 - 6-6.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의 운영형태.....58
- 7. 사용 교재
 - 7-1. 4년제대학의 교재.....59
 - 7-2.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의 교재..... 61
 - 7-3. 고등학교의 교재.....62

8. 현 상황과 과제(대학 등의 앙케이트 결과)	
8-1. 한국어교육의 장래.....	64
8-2. 목표로 하는 이수자수.....	65
8-3. 대학 등에서의 외국어학습.....	65
8-4. 대학교원의 현 상황과 문제점.....	66
8-5. 능력검정시험.....	67
8-6. 대학입시센터시험.....	69
8-7.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관계.....	70
8-8.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교원.....	71
8-9. 한국어교육 관련단체.....	72
9. 현 상황과 과제(대학 등 관계자들의 기술내용)	
9-1. 학습자 증가와 한국어교육의 위치.....	73
9-2. 다방면에서 한국어교육을 파악.....	74
9-3. 교원양성과 현직교원의 재교육.....	77
9-4. 학습교재 개발.....	78
9-5. 대학 등과 고등학교교육의 연계.....	79

III. 한국어 개설상황(학교 리스트)과 조사표

1. 고등학교 개설상황: 1997-2003년도.....	J103
2.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개설상황: 2002-03년도.....	J101
3. 4년제대학 개설상황: 2002-03년도.....	J93
4. 2002-03년도 대학 등 조사표.....	J83

표 · 자료 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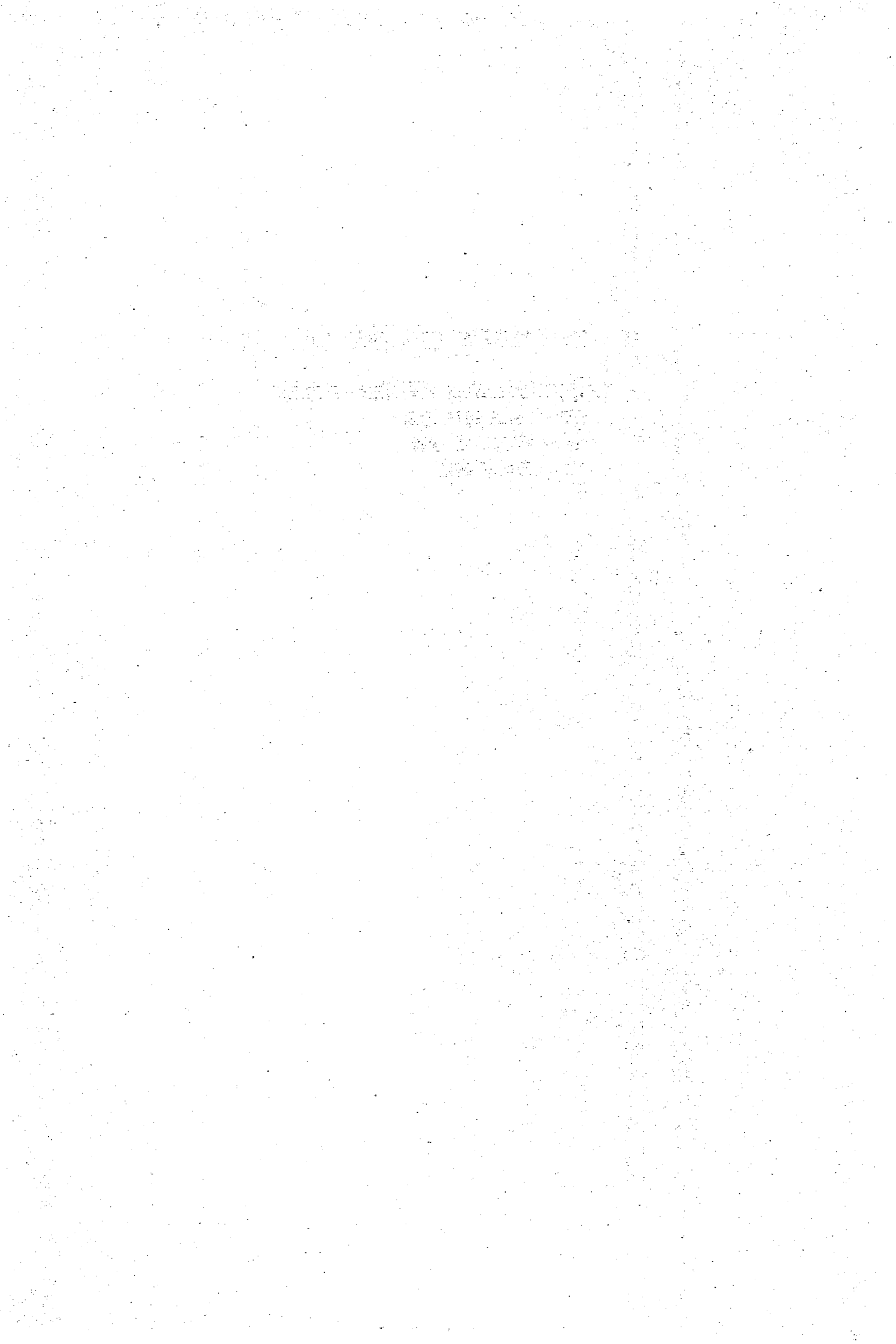
- I 1. 재단사업으로서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표1] TJF가 관여한 한국어교육 관련사업..... 14
 - [표2] TJF기관지에 게재한 한국어교육 관련기사..... 15
- I 2. 2002-03년도 조사 개요
 - [표3] 대학 등에 앙케이트 조사표 송부, 회답상황..... 17
- II 1. 외국어교육 속의 한국어
 - [표4] 4년제대학에서의 외국어교육 실시상황: 2000-02년도..... 29
 - [표5]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교육 실시상황: 1999-2003년도..... 30
 - [표6]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 이수상황: 1999-2003년도..... 31
 - [표7] 4년제대학과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교육 실시상황: 2001년도..... 32
- II 2. 90년대 이후의 상황변화
 - [표8] 대학 등에서의 개설상황: 1988-2003년도..... 33
 - [표9] 4년제대학에서의 개설학교수의 변화: 1995-2003년도..... 33
 - [표10] 4년제대학에서의 개설학교의 비율변화: 1995-2003년도..... 34
 - [표11] 단기대학에서의 개설학교수의 변화: 1995-2003년도..... 34
 - [표12] 단기대학에서의 개설학교의 비율변화: 1995-2003년도..... 34
 - [표13] 대학 등에서의 개설상황: 2004-05년도..... 35
 - [표14] 고등학교에서의 개설상황: 2004-05년도..... 36
- II 3. 한국어과목 명칭
 - [표15] 4년제대학의 언어(과목)명: 2002-03년도..... 37
 - [표16] 4년제대학의 언어(과목)명: 1995년도..... 38
 - [표17] 4년제대학의 언어(과목)명: 1950-2005년도..... 39
 - [표18]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언어(과목)명: 2002-03년도..... 40
 - [표19] 단기대학의 언어(과목)명: 1995년도..... 40
 - [표20] 고등학교의 언어(과목)명: 2001년도..... 41
 - [표21] 고등학교의 언어(과목)명: 1997-98년도..... 41
- II 4. 한국어교원의 현 상황
 - [표22] 일본어가 모어인 교원..... 42
 - [표23] 한국어가 모어인 교원..... 42
 - [표24] 모어로 본 교원구성..... 42
 - [표25] 언어학전공자..... 43
 - [표26] 직위로 본 교원구성..... 44
 - [표27] 전임교원..... 45
 - [표28] 비상근, 겸임강사..... 45
 - [표29] 기간제 강사..... 45
 - [표30] 한국어교직과정이 있는 대학..... 45
 - [표31] 고등학교교사의 한국어교원면허 보유: 1997년도..... 46

115. 이수형태와 이수자수	
[표32] 이수기간과 형태: 4년제대학.....	47
[표33] 이수기간과 형태: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47
[표34] 4년제대학의 과목수와 이수자수.....	48
[표35] 대학 등의 이수자수 분포.....	49
[표36]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과목수와 이수자수.....	50
[표37] 고등학교의 이수형태: 1997-98년도.....	51
[표38] 고등학교의 이수자수: 2001-03년도.....	52
116. 대학 등의 수업내용과 운영형태	
[표39] 학습레벨: 대학 등 전체.....	53
[표40] 학습레벨: 4년제대학.....	53
[표41] 학습레벨: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53
[표42] 과목당 단위수: 4년제대학.....	54
[표43] 주당 강의시간수: 4년제대학.....	54
[표44] 과목당 단위수: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54
[표45] 주당 강의시간수: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54
[표46] 강의내용: 대학 등 전체.....	55
[표47] 강의내용: 4년제대학.....	55
[표48] 강의내용: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55
[표49] 한국어교육의 위치: 4년제대학.....	56
[표50] 한국어교육의 위치: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56
[표51] 운영형태: 4년제대학 1-2학년.....	57
[표52] 운영형태: 4년제대학 3-4학년.....	57
[표53] 운영형태: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58
117. 사용 교재	
[표54] 4년제대학의 사용 교재: 2002-03년도.....	59
[표55]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의 사용 교재: 2002-03년도.....	61
[표56] 고등학교의 사용 교재: 2001년도.....	62
118. 현 상황과 과제(대학 등의 앙케이트 결과)	
[표57] 최근 수년간 대학생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	64
[표58] 사회인을 포함한 일반학습자의 관심.....	64
[표59] 대학 등에서의 한국어 이수자수 목표.....	65
[표60]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이수자수 목표.....	65
[표61] 대학 등의 한국어교육 학습도달목표.....	66
[표62] 대학교육에서는 다음 외국어를 어느정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66
[표63] 대학 등에서의 한국어교원의 현 상황과 문제점.....	67
[표64] 대학 등에서의 한국어교원 연수의 바람직한 방향.....	67
[표65] 한글능력검정시험 응시상황.....	68
[표66]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상황.....	68
[표67] 한글능력검정시험: 인정 급수와 단위수.....	68
[표68] 한국어능력시험: 인정 급수와 단위수.....	69
[표69] 대학입시센터시험 한국어의 전망.....	69
[표70] 대학입시센터시험 외국어과목의 개황: 2003년.....	69

[표71] 대학 등과 고등학교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	70
[표72] 대학 등과 고등학교교육에서의 제도적인 협력.....	70
[표73] 고등학교교육에서의 한국어학습.....	71
[표74] 대학 등과 고등학교교원간의 관계.....	71
[표75] 앞으로의 대학 등과 고등학교교원간의 협력관계.....	72
[표76] 한국어교육 관련단체.....	72
II 9. 현 상황과 과제(대학 등 관계자들의 기술내용)	
[표77] 한국어학습자의 증가와 대학교육.....	73
[표78] 한국어교육의 의미와 위치, 필요성.....	74
[표79] 한국의 일본어교육과의 관계.....	75
[표80] 이웃나라 언어로서의 한국어.....	75
[표8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76
[표82] 영어교육과의 관계.....	76
[표83] 교원의 자질향상.....	77
[표84] 전문교육연구자 양성과 교수법 확립.....	77
[표85] 사회적 수요확대와 고용문제.....	78
[표86] 학습내용.....	78
[표87] 교재와 교구의 필요성.....	79
[표88]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의 한국어교육.....	79
[표89] 본 조사에 대한 의견 등.....	80
III 1. 고등학교 개설상황: 1997-2003년도.....	J103
III 2.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개설상황: 2002-03년도.....	J101
III 3. 4년제대학 개설상황: 2002-03년도.....	J93
III 4. 2002-03년도 대학 등의 조사표	
조사 기입방법 및 보존방법 등에 관해서.....	J83
학교정보.....	J84
기관 개요.....	J85
수업내용.....	J86
현 상황과 과제(A, B, C, D).....	J87
주요 교재리스트(수업내용 항목의 선택지 일람).....	J91

Ⅰ.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과 과제

1. 재단사업으로서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2. 2002-03년도 조사 개요
3.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
4. 한국어교육의 과제



1. 재단사업으로서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일개 민간재단이 한국어교육 관련 사업을 개척하면서 실시한 조사와 정보수집을 토대로,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본 재단이 한국어교육 사업에 관여하는 의미를 검증하고, 새로운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가 실시된 것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이다.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의 한국어교육 확대가 뒷바침이 되어, 한국어교육을 전국적으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던 때이다. 국제문화포럼(TJF)이 실시한 제1회(1997-98년)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조사도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려 노력했다.

재단이 실시하는 조사사업은 대학관계자의 조사연구와 비교하면 실천적인 요소가 크다. 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조사를 통해 한국어가 교육과정 안에서 정당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 조사내용을 공식화함으로써, 이전까지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어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오랫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국어교육을 뒷바침해 왔던 사람들이 연계를 강화하게 되었고 그것이 TJF가 한국어교육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

1-1. 확대되는 한국어교육

2003년 1월,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제1회 대학 등에서의 한국어교육 조사와, 1997년 6월, 우송에 의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고등학교의 조사시기를 비교해보면 한국어교육을 둘러싼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일본에서 한국영화가 인기를 끌고 한국드라마가 한국붐을 가져왔다. 한일 양국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로 호전됨은 물론이고, 일본에서 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 ‘한류’의 영향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2002년 1월부터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외국어과목에 ‘한국어’가 도입되었다. 이를 계기로 많은 대학 등에서 한국어 이수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매스미디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교육을 둘러싼 상황변화를 단순한 붐으로써 이해하고 있지만, 조사결과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검증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한국어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많은 대학 등의 관계자도 한국어교육이 지속적인 확대경향을 보인다고 말한다.

1-2. TJF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TJF의 조사보고서 “일본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한국어교육”(1999)은 “지금 고등학교의 중국어 교육을 다시 묻는다”(1996)에 이어, 일본의 고등학교에 있어서 ‘아시아언어’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는 기초자료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 후 TJF는 한국어교육에 관련하여 다음 사업들의 운영에 관계해 왔다.

- (1) 고등학교 한국어교사 연수회를 기획, 실시 [1998-2000년, 주일한국문화원과 공동개최]
- (2) 고등학교 한국어교육 네트워크(JAKEHS) 설립, 지원 [1999년부터]
- (3) 고등학교교사 등, 한국어교원면허 취득을 위한 덴리대학과 간다외어대학의 강좌개설을 위한 협력, 지원 [2000-03년]
- (4) 한국어를 배우는 고등학생들의 서울연수여행 실시를 위한 협력, 지원(한국국제교육진흥원 주최, 주일한국대사관 후원, JAKEHS 협력)[2001-03년]

- (5) 한국어 고등학교교사 등의 연수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협력, 지원(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기획·운영, JAKEHS 협력)[2002년부터]
- (6) 대학 등과 고등학교 한국어교원 연수프로그램(교토연수) 실시를 위한 협력, 지원 (한국국제교류재단·TJF공동개최)
- (7) 한국어교원 연수프로그램(도쿄연수)실시를 위한 협력, 지원(주일한국문화원·TJF공동개최)

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조사가 위 사업들의 출발점이 되었다. (1)의 교사연수회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는 같은 조사의 중간집계가 토대가 되었다. 조사보고서(1999)에 제1회 연수회의 토의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명확히 드러난 고등학교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에 입각하여 (2)의 JAKEHS가 결성되었다.

(3)의 덴리대학과 간다외어대학에 한국어교원 면허 취득을 위한 집중강좌 개설을 요청했고, (5)의 서울대학에서 열린 일본 고등학교교사를 위한 연수사업을 실시하면서, 대학 등과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의 관계와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2002-03년도에 실시한 대학 등의 조사사업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6)(7)의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본 보고서의 대학 등과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을 근거로 실시하였다. 상세한 사항은 표1과 같다.

[표1] TJF가 관여한 한국어교육 관련사업

년	월	사업내용
1997	6	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 조사에 착수 (TJF)
1998	6	고등학교 조사 중간보고서 발행 (TJF)
	8	제 1 회 고등학교 한국어교사연수회 (한국문화원) 개최 [3 일간, 도쿄]
1999	6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조사보고서 발행 (TJF)
	8	제 2 회 고등학교 한국어교사연수회 (한국문화원, TJF) 개최 [3 일간, 도쿄] JAKEHS 설립
2000	3	한국어교원면허 프로젝트 발족
	8	제 3 회고등학교 한국어교사연수회 (한국문화원, TJF) 개최 [3 일간, 도쿄]
	9-10	덴리대학과 간다외어대학에 한국어교원면허 취득을 위한 강좌 개설을 요망
2001	7-8	덴리대학과 간다외어대학의 강좌 개강 [2 주간, 나라/도쿄]
	11	제 1 회 JAKEHS 전국연수회 개최 [3 일간, 오사카]
2002	1	대학입시센터시험 외국어과목에 ‘한국어’ 도입 (대학입시센터)
	4	“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I 스키야넨 한글” 시용판 발행 (JAKEHS, TJF)
	7-8	덴리대학과 간다외어대학에서 강좌 개강 [2 주간, 나라/도쿄]
	8	제 1 회 한국어교사 연수프로그램 (한국국제교류재단) [2 주간, 서울]
	11	제 2 회 JAKEHS 전국연수회 개최 [3 일간, 가코시마]
2003	1	대학 등에서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조사에 착수 (TJF)
	2	제 1 회 ‘말해보자 한국어’ 콘테스트 (한국문화원 외) 개최 [1 일, 도쿄/오사카]
	4	“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I 스키야넨 한글” 개정시용판 발행 (JAKEHS)
	6	대학 등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조사 중간보고서 발행 (TJF)
	8	간다외어대학 강좌 개강 [2 주간, 도쿄]
		제 2 회 한국어교사 연수프로그램 (한국국제교류재단, TJF) [2 주간, 서울]
	10	제 3 회 JAKEHS 전국연수회 개최 [2 일간, 마쓰모토]
2004	1	제 1 회 고등학교 한국어교육세미나 (한국문화원, 돗토리현, TJF 외) 개최 [1 일, 돗토리]
	2	JAKEHS 돗토리연수회 (돗토리현·돗토리현 교육위원회, TJF 외) 개최 [1 일, 돗토리]
		제 2 회 ‘말해보자 한국어’ 콘테스트 (한국문화원, TJF 외) 개최 [1 일, 도쿄/오사카]
		“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조선어 I 스키야넨 한글” 보급판 (JAKEHS, 일한문화교류기금) 발행
	6	대학 등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조사 중간보고서 발행 (TJF)
	8	제1회 대학 등 한국어교사 연수프로그램(한국국제교류재단, TJF) [6일간, 교토]
		제 3 회 고등학교 한국어교사 연수프로그램 (한국국제교류재단, TJF) [2 주간, 서울]
		제 1 회 한국어교사 연수프로그램(한국문화원, TJF 외) 개최 [5 일간, 도쿄]
	10	제 2 회 고등학교 한국어교육 세미나(한국문화원, TJF 외) 개최 [1 일, 쓰시마]
		JAKEHS 쓰시마연수회(TJF 외) 개최 [1 일, 쓰시마]

주 : () 는 주최 또는 공동개최, 후원단체명, [] 는 회기와 개최지를 표시한다.

1-3. 사업으로서의 홍보활동

TJF는 1999년 이후에도 JAKEHS 회원의 정보와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 등을 기초로, 한국어 교육 실시학교 리스트(현재 실시중인 학교 및 과거 실시교, 교과외 활동 등을 포함)를 수시로 갱신하고 있다. 정기적인 조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상황에 관하여 TJF의 관련사업을 통해서 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정보를 수집 중이다. 문부과학성 등의 자료와 조합하면 거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다. 본 보고서 제Ⅲ부에 실은 고등학교에 관한 리스트는 수집된 정보들을 정리한 것이다. 과거 7년간의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동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별, 수업형태별로 정리했다.

표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어교육과 관련사업을 TJF 기관지 “국제문화포럼 통신”에 특집으로 엮어 보고한 바 있다. 2003년 10월호에는 고등학교 한국어수업의 개설상황을 실었다. 특집 기사는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으며,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개별 학교리스트를 포함한 한국어 교육 실시현황을 공개하여 관계자들 간에 공유함으로써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자 함이다. 본 보고의 요지는 TJF기관지 2005년 1월호에 특집 게재했다.

[표2] TJF기관지에 게재된 한국어교육 관련기사 (<http://www.tjf.or.jp/korean/kikanshi.htm>)

발행년	월	타이틀	호수(특집 혹은 기사명)
1998년	9월	이웃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운다[a]	No.40 특집
	12월	고등학교 한국어교사 연수회로부터	No.41 시리즈 아시아언어
2000년	1월	이웃나라 언어가 만드는 유대관계	No.45 특집
	10월	이웃나라 언어에 사로잡힌 교사와 학생들	No.48 특집
2001년	10월	한국에서의 일본어교육과 일본의 한국어교육과의 접점	No.52 TJF의 사업
2002년	1월	3년째를 맞이해 다각화하는 네트워크 활동	No.53 TJF의 사업
	4월	고등학교시절에 한국어를 배운다	No.54 특집
2003년	1월	렌리대학 조선어과 교원면허 취득 강좌	No.57 TJF의 사업
	7월	대학 등에서의 한국어교육[b]	No.59 TJF의 사업
	10월	고등학교 수업에 보다 더 한국어를	No.60 특집
2004년	4월	제1회 고등학교 한국어교육세미나와 JAKEHS연수회	No.62 TJF의 사업
2005년	1월	한국어교육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No.65 특집
		제2회 고등학교 한국어교육세미나와 JAKEHS연수회	No.65 TJF의 사업

주: a.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조사 개요를 중국어교육과 비교하여 소개했다.

b. 대학 등에서의 한국어교육 조사 중간보고 개요(일부)를 소개했다.

1-4. 앞으로의 TJF 사업

위와 같은 사업들을 통해, TJF는 일본 학교교육에 있어서 한국어교육의 정보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일 연구자가 일본에서의 고등학교와 대학 등 한국어교육에 관해 조사할 경우, TJF가 작성한 자료를 참고로 하거나 인용하는 예가 늘고있다. 관련 학회와 연구회에서 발표하는 기회도 많아졌다.

TJF는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의 한국어교육 관련기관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교원과 협력하여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일개 민간재단의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어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알찬 사업 계획과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전체상을 논의하는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때라 할 것이다.

일본의 학교교육에 있어서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은 종래의 몇몇 연구자와 교원의 노력만으로 대처하던 시대는 지났다. 한계에 이르렀다. 한국어교육의 보급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의미를 재평가하고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교육제도 속에 한국어교육을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할 때인 것이다.

2. 2002-03년도 조사 개요

TJF는 1990년대 이후 착실히 확대되어 가는 일본의 대학 등과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한국어 교육이 더욱 충실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교육행정기관과 대학 등, 고등학교의 교육에 종사하는 관계자, 매스미디어 또는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게 널리 현 상황을 알리고,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필요성과 장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2-1. 대학 등에 관한 선행조사

1970년대 후반 이후, 대학교육 관계자에 의해 대학 등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조사가 몇 차례 실시되었다. 모두 상세한 인터뷰를 근거로 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있어서 4년제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 상황을 잘 전하고 있다. 이 시기의 조사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전반의 한국어교육 확대로 이어지는 기초작업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대학 등의 한국어교육을 개관하는 자료로서는 당시의 문부성이 작성한 자료와 한국교육재단의 1995년도 조사(“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어교육 실태 조사보고” 김동준 1996)등이 있지만 둘 다 공표되지는 않았다. 강좌 내용에 관해서는 ‘대학에서의 조선어 강좌의 현 상황’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계간지 “삼천리(三千里)” No.12 1977], “일본 대학에서의 조선어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시마 도시오(島利雄)·김정숙, 쓰쿠바(筑波)대학 학내 프로젝트 연구보고서 1979], ‘대학에 있어서의 조선어교육의 현 상황’ [오무라 마스오, 계간지 “삼천리” No.38 1984] 등, 1970년대 와 80년대의 귀중한 자료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4년제대학에 있어서, 한국 대학 등과의 제휴상황, 고등학교 등에서의 국제교류 상황 등, 문부과학성이 작성한 자료도 참고했다.

2-2. 대학 등의 조사 개요

본 조사는 2002년도에 한국어교육을 실시했다고 생각되는 대학 등(2000년도에 개설하였거나, 2001년도 이후 개설된 가능성이 있는 대학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앙케이트 방식으로 한국어교육 실시상황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표는 [1]기관 개요(한국어의 언어명칭, 운영형태, 교원구성, 한국 등의 대학과 제휴상황 등), [2]수업내용(학습레벨, 강의내용, 교재, 이수형태, 개설학부, 단위수, 이수자수 등), [3]현 상황과 과제(대학교육 및 대학과 고등학교의 관계에 관한 앙케이트)로 구성되었다.

2002년도, 기초자료 수집과 병행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실시 가능성을 검토하여 Excel VBA를 이용한 조사표를 개발했다. 그러나 시행단계에 있어 PC환경의 불안정과 회수한 조사표의 집계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 작업이 중단되었다. 그 후, EduAngel(한국)의 협력을 얻어서 페이지 디자인과 관리자 툴을 개발하여, 2002년 말에는 거의 완성했다.

2003년 1월 말에 시행을 거쳐, 사전에 담당교원 등의 메일주소를 확인한 대학 등에, 조사용 ID번호와 패스워드를 송신했다(172교). 그 후 답신상황을 지켜보면서 3월에는 웹페이지를 편집하여 인쇄한 조사표를 우송했다(626교, ID송부처 포함). 메일 또는 팩스로 조사표를 발송한 대학 등과 그 회신상황을 다음 페이지에 제시하였다.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3년 4월 말일까지 조사표를 송부한 대학 등에서 43.3%, 271교로부터 회신이 있었다. 그 중, 한국어를 개설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53교를 제외한 218교를, 2002년도 한국어 개설학교 중 답신이 있었던 학교수로 간주했다.

이 단계에서, 조사표 [1]과 [2]의 설문별 회답률을 집계해서 2002년도 한국어교육의 개황을 정리해 2003년 6월,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중간보고에서는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관련 자료도 삽입하여 대학 등과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에 답신을 보낸 기관과 미디어를 포함한 관련단체에 중간보고서를 우송했다. 미회신 기관에는 중간보고서 개요와 웹조사표를 인쇄한 것을 우송해서 답신을 재촉했다.

2003년도 후반에는 미회신 대학 등에 전화 또는 팩스로 회신을 의뢰했으며, 2002년도에 한국어를 개설한 대학 등으로부터 최대한 회신을 얻고자 노력했다. 이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수집된 2003년도 이후의 상황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대학 등의 리스트(pp. J93-J102)에 기재 하였다. 본 보고서 제Ⅲ부에 실은 대학 등에서의 개설상황이 2002-03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에 연유한다.

[표3] 대학 등에 양케이트 조사표 송부, 회답상황

발송 또는 집계시기	발송수 누계(A)	회답, 확인된 학교수				불명 *미회답	회답률 B/A
		인터넷	팩스	전화	계(B)		
2003년 1월 하순[a]	172	66	0	0	66		38.4%
2003년 3월 후반	552	121	40	54	215		38.9%
2003년 4월 말[b]	626	160	41	70	271	355*	43.3%
2004년 1월 말[c]	638	191[d]	54	362	607	12	95.1%

주: 본 조사에서는 조사표를 웹페이지 상에서 작성해 인터넷을 이용한 회답을 기본으로 하였다.

회답이 확인된 학교수에는 2004년도 이후 개설예정 학교도 포함되었다. 캠퍼스별로 한국어개설상황이 다른 대학 등은 복수기관으로 취급했다.

a. 문부과학성 등 관련단체의 데이터를 기초로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2000년도 이후 신설된 학교도 포함한다.

b. 중간보고 (2003년6월 발표) 집계

c. 2000년도 이전에는 단기대학(전문대학)이었으나, 2002-03년도에 4년제대학으로 바뀐 학교가 있는 관계로 4년제대학과 단기대학 등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기관에 2회 이상 송부했다.

d. 공개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것도 포함한다.

2-3. 대학 등의 조사협력자

본 조사항목과 웹페이지 작성, 송부처 선정 등은 TJF의 책임하에 행하여졌으나, 조사 준비에서 각 실시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관계자들의 협력을 얻었다. 아래는 본 조사 실행을 위해 구성한 메일링 리스트에 등록된 분들이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한다.

가도와키 세이이치(門脇誠一, 홋카이도대학대학원 문학연구과 교수), 구마타니 아키야스(熊谷明泰, 간사이대학 외국어교육 연구기구 교수), 구마키 쓰토무(熊木勉, 후쿠오카대학 인문학부 조교수), 나리사와 마사루(成澤勝, 도호쿠대학 동북아시아연구센터 교수), 남상영(南相瓊, 가나자와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도쿄외국어대학대학원 교수), 다무라 히로시(田村宏, 후쿠오카대학 인문학부 교수), 시오타 교코(塩田今日子, 니쇼가쿠샤대학 문학부 교수), 오고시 나오키(生越直樹, 도쿄대학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와세다대학 어학교육연구소 교수), 우메다 히로유키(梅田博之, 레이타쿠대학 학장), 우에다 고지(植田晃次, 오사카대학 언어문화부 조교수), 유타니 유키토시(油谷幸利, 도시샤대학 언어문화교육연구센터 교수), 이이다 히데토시(飯田秀敏, 나고야대학 언어문화부 교수), 지정희(池貞姬, 에히메대학 법문학부 조교수), 최정순(崔正洵, 배재대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교수), 하마노우에 미유키(浜之上幸, 간다외어대학 교수), 하마다 고사쿠(濱田耕策, 규슈대학 인문과학연구원 교수), 하세가와 유키코(長谷川由起子, 규슈산업대학 국제문화학부 강사)

[경칭생략, 그 당시 직함을 사용, 가나다 순]

대학 등의 관계자가 참가하는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학회와 연구회가 각각의 특징을 살려 활동하고 있다. 고등학교교사들과 같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대학 등에서도 형성되어야만 한다고는 생각치 않지만, 일본의 한국어교육 전체에 관련한 사업을 재단 등에서 행하려 할 때, 전국적인 교원간의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편이 실시하기가 쉬워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가 네트워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될 것을 바라 마지않는다.

2-4. 고등학교에 관한 선행조사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선행자료로써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과 과제’ [야마시타 마코토(山下誠), 1996]가 있다. 개인의 조사이긴 하나, 한국어 실시교 84교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여, 학습자의 반응을 포함한 상세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어교육 실태조사보고” [한국교육재단 1996]는 권말에 74개의 실시교 리스트를 실고 는 있으나 공개되지 않았다.

문부과학성이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등)에서의 국제교류 등의 상황’ 은 한국어를 포함한 외국어교육의 기초자료를 실고 있어, 외국어교육에 관한 자료로써도 가치가 높다. 단, 개별 개설교의 리스트는 공표하지 않는다. 자료의 성격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각 지방단위의 상황만이라도 알수 있다면 보다 자료로써의 가치가 높을 것이다. 지역마다 특색있는 교류가 행해지고 외국어교육도 지역적인 특색을 보이기 때문이다.

1997-98년도 TJF조사는 이들 선행조사를 참고로 했다. 중국어교육과 비교하고 있으므로 한국어교육의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상세자료를 공개한 의의는 크다할 것이다. TJF의 홈페이지 (<http://www.tjf.or.jp/korean/houkoku.htm>) 에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1997-98년도 조사” 를 일본어판과 한글판으로 게재하고 있다.

2-5. 정보 공개와 관련기관과의 협력

대학 등과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실시상황의 상세는 본 보고서에 게재한 대학 등의 리스트 (pp. J93-J102)와 고등학교 리스트(pp. J103-J110)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국어교육 개설상황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조사가 필요하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TJF가 정보수집과 조사사업을 계속한다고 해도, 대학 등과 고등학교교사, 그 외 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관련 행정기관을 비롯한 관련 연구회와 학회, 그리고 교원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기대한다.

대학 등과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개설상황을 복수의 홈페이지 상에 공개하여 정기적으로 갱신 가능한 제도를 확립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개설교 리스트 등을 TJF의 기관지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널리 공개할 예정이다. 기관지 2005년 1월호에 ‘한국어교육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라는 특집을 실은 바 있다.

지속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설문항목을 한정,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있어서도 관련 행정기관과 학교관계자와의 연계가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과 같이, 한국어교원을 중심으로 한 관련단체의 협력이 거듭 중요시된다.

표76(p. 72)의 조선학회, 조선어연구회, 조선어교육연구회, 고등학교 한국어교육 네트워크 등, 역사적·언어학적인 연구와 한국어교육에 관한 학회, 연구회 뿐만이 아니라, 한국어검정시험 실시단체와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근린 국가의 관련기관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와 교환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관계형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힘쓰는 것이 TJF라는 민간단체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3.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

본 보고서는 한국어교육에 관해서 대학 등은 1995 년도 데이터를, 고등학교는 1997-98 년도 데이터와 2002-03 년도 또, 2001 년도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황변화를 파악하려 노력했다. 또한, 대학 등과 고등학교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두 교육과정에 있어서 한국어교육의 상이점과 공통점을 찾아, 각각의 현상을 확인하려 했다.

일본 학교교육제도의 재편성에 따라 외국어교육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어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행제도의 범위 안에서 개개 교원의 노력에 의해 늘어나는 학습자 수요와 요구에 대처하기 급급한 현 시점에서는 한국어를 종합적으로 검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대학 등과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는 것을 기뻐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어교육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 생각한다. 대학과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한국어교육을 검토하는 것은 곧, 외국어교육의 방향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현직 교원을 중심으로 관계자들간의 논의가 제도적인 문제점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심층 검토되어야 할 때이다. 이하, 3-1 부터 3-6 에 조사결과의 요점을 정리했다. 항목별 상세한 사항은 제Ⅱ부(pp. 29-80)를 참고하기 바란다.

3-1. 한국어교육의 상황변화

학습자 증가

일본에서는 한국어학습자의 증가를 ‘한류’ ‘한국 붐’ 이라 불리는 사회현상의 하나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대학 등에서 한국어교육 실시상황이 착실히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많은 관계자들이 근래 수년간의 확대 경향을 인정한다.

고등학교교사들도 고등학생의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다고 말한다. 대학 등과 고등학교에서 학습자의 양상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학습자의 양적 확대와 질적 다양성에 교육제도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과열된 ‘붐’ 이 한국어학습자 증가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일시적인 ‘붐’ 만으로 학습자가 증가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국어교육 관계자의 오랜 세월에 걸친 부단한 노력이 ‘붐’ 을 앞선 젊은이들의 한국어학습을 뒷바침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2000 년을 전후로 한국영화, 한일 월드컵축구대회, 한국드라마로 인기가 이어졌다 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2002 년과 2003 년에 한국어학습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보는 교육관계자가 많다는 점이다.

이웃나라와 그 언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1990 년대 후반 이후, 젊은층의 아시아 선호성향과 일반적인 아시아관의 변화로 일본의 이웃나라에 대한 생각도 크게 변했다. 영어와 함께 아시아권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이 별 저항없이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었다 할 것이다.

2 차대전 이후, 영어교육을 바탕으로 형성된 미국문화 중심의 가치관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언어를 배움으로써 미·서구문화의 가치관과 더불어 아시아적인 문화, 사고방식을 안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어를 일본의 외국어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 또, 고등학교의 외국어과목으로서, 2003 년도부터 실시한 종합적인 학습시간을 통해서 이웃나라와 그 언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한국어교육을 둘러싼 제반문제의 원점으로 돌아가 한국이란 이웃나라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와 직결되는 근본문제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심리적인 거리가 좁아진 반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북한과의 관계는

멀어졌다. 고등학교의 한국어교사 중에는 사회과 담당교사가 많다. 서일본지역에는 재일동포 교사도 많아, 남·북한을 통털어 이웃나라라는 개념하에 언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다. 다른 언어와는 달리, 언어의 명칭 하나 만을 보더라도 ‘한국어’ ‘조선어’ ‘한글’ 등 여러 명칭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복잡한 배경들을 안고 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야한다는 생각이 있다. 언뜻 일리가 있는 듯하나 설득력이 없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장 깊은 관계의 이웃나라이기에 언어를 배워야한다, 문법이 비슷해서 배우기가 쉽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다. 문제는 한국어를 배우는 의미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충분히 논의되었는가, 공유되어 있는가라는 점이다.

3-2.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외국어교육

4 년제대학의 외국어교육 실시상황은 표 4(p. 29)와 같다. 2002 년도에는 영어 실시율 (실시 학교수/전체학교수)이 98.7%로 1 위였고 독일어가 84.1%, 중국어 82.8%, 프랑스어가 79.2%인 데 비해 한국어는 46.9%로 독일어·중국어·프랑스어와는 30 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2000 년도 증가율 비교로는 독일어, 프랑스어가 미묘한 감소를 보인데 반해 한국어 실시 율은 6.4 포인트, 중국어는 3.6 포인트 증가를 보였다. 한편, 대학 실시율에서 2002 년도 국립 대학의 수치를 보면 중국어와 프랑스어가 약 9 할을 차지하고 독일어와 한국어 실시율은 사립 학교보다 10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6 년도부터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등)에서의 국제교류 등의 상황’ 에 관한 조사를 통해 고등학교의 해외 수학여행 실시상황과 영어 이외의 외국어과목 개설상황을 알 수 있다. 같은 자료를 참고로 작성한 고등학교의 영어 이외의 외국어교육 실시상황 (2003 년도) 은 표 5 와 같다. 4 년제대학의 실시상황과는 달리 영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영어 실시 율은 100%라 봐도 무관하다.

표 5(p. 30)가 ‘영어 이외의 외국어교육’ 으로서 취급되고 있다는 것만을 봐도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교육 현황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가 제 1 외국어, 그 밖의 외국어가 제 2 외국어로 자리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 외국어는 ‘그 외의 외국어’로서만 취급되고 있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교육 2003 년도 실시율(실시학교수/전체학교수)을 보면 모두 1 할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중국어가 8.74%, 프랑스어 4.32%, 한국어 4.03%, 스페인어 1.86%, 독일어가 1.84% 순이다. 하지만 1999 년도와 비교하면 중국어 1.93, 프랑스어 0.55, 한국어 1.63, 스페인어가 0.45 포인트 늘어났으며 특히, 중국어와 한국어의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4 년제대학과 고등학교에서 중국어와 한국어 실시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교육 속의 중국어와 한국어는 위치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 또한 말해주고 있다. 한편, 표 6 (p. 31)은 학습자수로 본 실시상황이다. 가장 많은 중국어가 고등학생 전체 (2003 년도 총인원 3,809,827 명) 의 0.5%에 그치고 한국어는 중국어의 3 분의 1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영어와 ‘그 외의 외국어’ 와의 차이, 즉 영어와는 격이 다른 대우의 차이라 할 것이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배우는 의의를 생각할 때 제도적인 고려가 있어야만 한다.

3-3. 한국어교육 실시학교 증가와 과목명칭

표 10(p. 34)와 같이 1995 년도부터 2002-03 년도에 걸쳐 한국어 실시학교수가 4 년제대학은 25.3%에서 47.7%로 22.4 포인트 증가했다. 국립대학도 30 포인트 증가해 60%에 가깝다. 단기 대학 개설률은 2002-03 년도에도 13.1%에 그친다.[표 12(p. 34) 참고] 고등학교 개설률은 1995 년에 1.33%, 1999 년에는 2.40%, 2003 년은 4.03%이다. (일본 문부과학성 ‘고등학교 등에서의 국제 교류 등의 상황’ 에 기재된 한국어 개설 고등학교/전체 고등학교수)

1995 년도 4 년제대학의 한국어명칭은 표 16(p. 38)와 같이 ‘조선어’ 가 39.9%로 가장 많았고

국립대학에서는 80.0%, 공립대학에서는 50.0%가 사용했다. 1995 년도와 2002-03 년도를 비교 하면 ‘조선어’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학은 늘어났으나 실시학교의 비율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02-03 년도 단기대학 등의 한국어 명칭은 ‘한국어’가 45.3%로 가장 많았고[표 18(p. 40) 참고], 1995 년도에도 ‘한국어’ 가 35.7%로 가장 높았다. [표 19(p. 40) 참고]

2001 년도 고등학교에서는 ‘한글’ 이 35.1%로 가장 많았고 [표 20(p. 41) 참고], ‘한글’ 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학교의 86%가 공립학교, ‘한국어’ 사용은 68%가 사립학교였으며, ‘조선어’ 는 72%가 공립학교, ‘한국조선어’ 는 86%가 공립학교로 사립과 공립학교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1997-98 년도 고등학교 전체를 보면 ‘한글’ 사용이 42.1%로 제일 많았으나 [표 21(p. 41) 참고], ‘조선어’ 를 사용하는 학교의 79%가 공립이고 ‘한국조선어’ 의 76%가 공립학교인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공립학교에서는 ‘한글’ 이 50%, ‘조선어’ 가 23%에 비해 사립학교에서는 ‘한국어’ 가 50%, ‘한글’ 사용이 26%였다.

3-4. 한국어교원의 현 상황

표 24(p. 42)와 같이 회답이 온 대학 395 교의 한국어교원은 총 758 명이다 (410 교 787 명으로 추정). 모어별로 보면,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교원이 266 명,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교원이 485 명, 그 외 7 명이였다.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교원수는 일본어모어화자의 약 2 배였다. 모어별 교원구성을 보면, 한국어모어화자 1 명뿐인 학교가 34.7%, 일본어모어자가 1 명뿐인 학교가 17.5%, 한국어모어화자 2 명이 8.9%, 일본어 모어화자와 한국어모어화자 1 명씩이 4.8%이였다.

표 27-29(p. 45)를 통해 직위별 교원구성을 보면 전임교원이 170 명, 비상근, 겸임강사가 619 명, 기간제강사가 10 명으로 총 799 명이다(전체 830 명으로 추정). 비상근, 겸임강사의 근무 학교수를 평균 2 교로 보면 교원 실제수는 490 명이 된다. 1 학교당 구성을 보면[표 26(p. 44) 참고], 비상근 1 명만의 학교가 47.8%, 비상근 2 명이 11.1%, 전임 1 명이 10.6%, 전임 1 명과 비상근 강사 1 명이 5.1%, 전임 1 명과 비상근강사 2 명이 4.3%이였다.

고등학교의 직위별 교사 구성은 1997 년도에는 한국어교사의 59.4%가 강사였고 정식교사는 33.7%에 그친다. 한국어 전임교사가 있는 학교는 전문코스를 가진 학교만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타교과 교사 또는 비상근강사에 의해 한국어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한국어교육의 규모를 생각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3-5. 이수형태와 이수자수

대학 등

4년제대학에서는 전기·후기·통년과 함께 선택이 가장 많았고 선택필수가 그 뒤를 이었다. 단기대학에서는 선택의 비율이 4년제대학보다 높아, 회답내용을 통해서는 필수가 보이지 않았다. 일반 학생의 대다수는 선택 또는 선택필수로 이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2, 표33(p. 47) 참고]

4년제대학의 이수자수의 총계를 추정하면, 약 85,000명이 된다. 한국어이수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5년 조사에서는 16,988명(143교)이였다. 학교수 2.3배 증가에 대해, 이수자수는 약 5배가 증가했다. [표34(p. 48) 참고]

4년제대학에서 과목당 평균 이수자수가 100명을 넘는 대학이 17교(13%)였다. 평균 이수자수 50명 이상의 대학이 31%였다. 큰 교실에서 행해지는 수업풍경이 떠오른다. 단기대학의 이수자수는 약 2,400명이였다. 단기대학의 한국어학습자는 4년제대학 만큼은 늘지 않았다.

고등학교

일본 문부과학성의 자료에 의하면 이수자수(총인원)는 2001년도의 4,587명에서 2003년도에는 6,476명으로 41% 증가했다. 단, 표38(p. 52)의 이수자수 총합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선택 또는 선택 필수가 많은 것은 대학 등과 마찬가지로이다. [표37(p. 51) 참고] 단, 대학 등과 비교하여 개설교의 비율이 낮았고(약 4%),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과목수와 이수자수의 증감에 영향을 준다.

3-6. 수업내용과 운영형태

대학 등의 학습레벨

4년제대학에서는 중급과 초급이 많았고, 입문이 그 뒤를 이었다. 단기대학은 초급이 과반수 이상이고 입문이 버금갔다. 국립은 중급이 과반수를 넘어 초급과 비슷한 수로 뒤를 이었다. 공립은 초급과 입문이 과반수를 넘었고, 중급 이상은 없었다. 사립에서는 초급이 가장 많았고, 입문과 중급이 뒤이었다. 단기대학에서는 회답이 온 공립을 모두 초급으로 간주했다. 사립에서는 초급이 약 반수, 입문이 그에 버금가고는 있으나, 중급도 적지 않았다. [표39-표41(p. 53) 참고]

대학 등의 단위수와 강의시간수

4년제대학의 60%에 가까운 과목 단위수는 2단위였고, 국립·사립이 같은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1단위이다. 공립에서는 1단위가 과반수였고, 2단위가 다음이었다. 주당 강의시간수는 가장 많은 것이 주 1시간, 4년제대학 전체에서 75%였다. [표42, 표43(p. 54) 참고]

단기대학 및 기타학교에서는 1단위와 2단위가 거의 동수(약 46%)였고, 공립에서는 75%가 2단위, 사립에서는 약 53%가 1단위였다. 고등전문학교에서 회답이 온 것은 2교 뿐이었으나 단위수는 4단위가 많았다. 주당 강의시간수는 가장 많은 것이 주 1시간으로, 단기대학 및 기타학교의 전체의 약 83%였다. [표44와 표45(p. 54) 참고] 또, 4년제·단기대학이 함께 문법과 회화 중심의 내용이 가장 많아, 양쪽 모두 40% 전후에 달했다. [표46-48(p. 55) 참고]

고등학교의 단위수는 1997-98년도에는 2단위가 41%, 4단위 31%, 6단위 8%였다. 이 비율은 현재까지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 대학 등과 고등학교에서의 1시간이 다르므로 단순한 비교는 어려우나 주당 1시간 내지 2시간 수업이 대부분이다.

대학 등에서의 위치와 운영형태

4년제대학과 단기대학 모두, 학습 가능한 학부의 범위와 졸업단위와의 관계는 전체학부(코스)에서 이수가 가능했으며, 모두 졸업단위로 인정하는 기관이 가장 많았다. 한국어를 개설하고 있는 4년제대학의 약 75%가 모든 학부에 한국어를 개설하고 있었다. 단기대학 및 기타학교의 약 65%가 전체학부에서 이수가능하며, 모두 졸업단위로써 인정했다. [표49, 표50(p. 56) 참고]

4년제대학(1-2년)에서는 대학전체에서 운영·관리하는 센터방식이 가장 많아, 전체의 약 61%를 차지했다. 사립보다 국공립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학부별로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4년제대학 전체의 약 32%를 차지했다.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에서도 대학 전체에서 운영, 관리하는 센터방식이 가장 많았고, 약 6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학부별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의 약 19%를 차지했다. [표51(p. 57), 표53(p. 58) 참고]

고등학교의 운영형태

고등학교의 제도가 대학 등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한국어를 포함한 영어 이외의 외국어가 제2외국어로서 제도화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학습 시간이나 다른 과목시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례도 포함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교육 안에서 한국어를 포함한 외국어교육을 제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표37(p. 51) 참고]

4. 한국어교육의 과제

앞에서 제시한 본 보고서의 개요에 따라 현 상황을 분석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다른 외국어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 전체에서 한국어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제도와 정책적인 뒷받침을 논의할 때이다.

4-1. 교원고용문제와 신분보장

한국어학습자 수요증가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교원 확대와 연수, 그리고 교원의 신분보장이다. 여러 상황의 교원이 있지만 고등학교의 한국어교사와 대학 등의 교원이 처해 있는 상황은 비슷하다.

제Ⅱ부 4 장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양쪽 다 전임과 비상근의 차이가 있으며 전임이 부족한 형편이다. 한국인, 재일동포, 일본인교원 등 언어와 문화배경이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대학에서는 한국어 이외에 역사, 문화 등을 가르치는 전임교원이 한국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고등학교에서도 영어, 사회, 국어 등 타교과 교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 한국어교원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

학습자 증가에 따라 교원고용문제도 크게 부각되었다. 전임교원을 늘려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대학 등에 있어서 한국어교원의 증원은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타언어 교원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복잡한 사정이 따른다. 외국어교육 전체의 제도적인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주 2 시간 수업 또는 4 시간 수업이 대부분으로 전임교사의 고용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비상근강사는 2 교 이상의 학교에서 한국어를 담당하는 이도 적지 않다. 신분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라 할 것이다. 또, 한국어를 신규로 도입하고자 할 때 한정된 전체 수업수에서 다른 과목과의 조절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 또한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4-2.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실시

대학 등과 고등학교 모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을 제대로 익힌 교원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고등학교 한국어교사와 TJF 가 힘을 합쳐 2002 년 여름부터 일본의 한국어 고등학교교사가 주 대상이 된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실시된다. [12 일간, 매년 수강자 20 명 내외, 한국국제교류재단주최] 한국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단기 연수를 포함한 모든 교사연수가 한국측 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 일본 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지점을 말한다 할 것이다.

2004 년 8 월 TJF 의 발안으로 일본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학 등과 고등학교 한국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이 새로이 실시되었다. 대학 등 한국어교사연수회 [6 일간, 교토, 주임 강사 : 유타니 유키토시 도시샤대학 교수, 한국국제교류재단·TJF 공동개최]와 한국어교사 연수회 [5 일간, 도쿄, 주임강사 : 노마 히데키 도쿄외국어대학대학원 교수, 주일한국문화원 주최, TJF 후원]가 개최되었다. 강사는 각 9명과 8명 (한국에서 파견된 강사 2명씩) 으로 수강자는 대학 등과 고등학교, 전문 학교, 시만강좌 강사 등으로 각각 46 명, 37 명이였다.

두 연수회는 특색도 있었지만 많은 공통점을 보였다. 양쪽 모두 수강자는 한국어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로 나뉘어졌으며, 대학, 고등학교 등 학교교육기관과 일반 어학강좌의 강사로 구성되었다. 또, 한국 유학을 비롯한 연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자 등, 수강자에 따라 연수 내용에 관한 요구도 각양각색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2005 년도 이후에

도 지속할 것인가의 여부는 수강자의 앙케이트 결과를 분석하여 검토 중이다. 2005년에는 2004년과 거의 같은 규모로 교토와 도쿄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4-3. 교과서와 교재개발의 필요성

한국어수업에 사용되는 교과서는 대학 등과 고등학교에서 비슷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예가 많다. 같은 기관일지라도 둘 이상의 교재를 사용하는 예도 있고, 교원이 바뀌면 교재도 따라 바뀌는 등 한국어가 처해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교원 개개인이 수업에 맞게 작성한 프린트 교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상황은 대학 등에서도 비슷하다. 시청각교재와 그림교재 등은 전무한 실정이며 학습자와 수업현장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교과서와 그 외 교재개발의 종합적인 평가 검증과 신규 개발이 절실한 때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전임교원이 부족한 관계로, 많은 일들이 전임교원에게 집중된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교재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학 등과 고등학교교원이 힘을 합쳐 교과서 등 교재를 공동개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 또한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시, 제도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2004년 3월 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교과서가 처음 시판되었다. 그 후편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고등학교 전임 한국어교사가 거의 없다는 제도적인 문제에서이다. 교과서 편집과 제작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교사가 드물다는 결론이다.

4-4.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연계가 필요

TJF가 2002-03년도에 걸쳐 실시한 대학 등의 조사 목적 중 하나는 대학 등과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함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이수한 학생에게 추천입학을 설정하는 등, 지역 고등학교와의 연계를 맺고 있는 예도 있다.

또,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한국어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보고도 들린다. 6단위 이상 이수할 수 있는 학교와 한국어 전문코스가 있는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배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한국에 단기 또는 장기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개별적인 사례도 귀중하지만, 한국어교육의 미래를 위해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연계를 넓히기 위한 협의와 검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입장에 선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의 연계와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4-5. 다양한 이수방법을 검토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에 한국어가 도입되기 시작한 해(2002년)의 4월부터 방송대학에서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조사에 의하면, 방송대학의 한국어강좌를 수강하는 것만으로 단위를 인정하는 대학 등이 5교가 있다. 원격교육을 이용한 방식으로 대학 등에서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일본 전국 고등학생의 한국어 학습률이 평균 0.17%라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각 고등학교에서 한국어교사가 직접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을 위한 방송강좌 등이 마련된다면 학습자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다른 예로써는 대학생 뿐만이 아니라 대학 등의 교직원도 물론이고, 부속 고등학교 학생에게까지 수강을 인정하는 대학도 있다.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4-6. 한국어교육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한국어교육을 일본 학교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의 문제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다. 이런 문제제기 자체가 한국어교육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중국어 관계자가 같은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 19세기 후반 이후 역사적인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본에서의 각 외국어의 위치가 언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타 외국어와 한국어를 비교해 가면서 대학 등과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에 관해 살펴보았다. 학습자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국어의 위치를 제대로 알기 위해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 현 상황에서 사회적인 의견 일치는 뒤로 미루더라도,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 관계자만이라도 논의의 토대가 되는 기초자료를 공유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한국어학습자가 과거 10년 동안 확대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증가한 수치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많은 관계자들이 한국어의 현실인식을 할 때이다.

제언: 한국어를 고등학교의 필수선택과목으로

2005년도 현재, 한국어를 이수하는 1학년 수가 학년의 1할을 넘는 대학이 몇개교 있다. 동북지방과 규슈지역에는 1학년생이 전원 필수로 한국어를 이수하는 고등학교도 있다. 표 59과 표 60(p. 65)은 한국어이수자의 비율이다. 이 표를 참조하면 장래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1할 정도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대학 등과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의미는 크다. 미·서구식 해석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이웃나라와 일본을 생각하는 사고력이 생긴다. 아시아대륙 주변에 위치하여 국제관계 속에서 해석하기 쉬운 이웃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냉철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일본어, 일본문화와 관계가 깊은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일본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어학습은 일본과 이웃나라의 역사적인 관계를 재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학습효과와 비교해서, 고등학교교육에서의 한국어의 위치는 부당히 낮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는 '기타 외국어'로 취급되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과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순과 문법이 일본어와 비슷한 한국어는 가장 배우기 쉬운 외국어이기도 하다. 학습달성감을 얻기 쉬운 과목이라 할 것이다.

영어교육을 통해 외국어가 싫어진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한국어학습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 기호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자신감을 얻게 되는지. 그 기쁨은 교사의 상상을 초월한다.

영어교육의 조기 도입이 검토되는 한편, 외국어교육의 다양화가 거론되고 있으나, 실패는 영어 일변도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외국어교육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여, 한국어를 포함한 외국어교육을 학교교육 커리큘럼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 계기로서, 고등학교에 있어서 한국어를 포함한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필수선택과목의 하나로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4년제대학의 약 반수가 제2외국어로서 선택할 수 있는 한국어를 고등학교교육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II .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분석(자세한 조사결과)

1. 외국어교육 속의 한국어
2. 90년대 이후의 상황변화
3. 한국어과목 명칭
4. 한국어교원의 현 상황
5. 이수형태와 이수자수
6. 대학 등의 수업내용과 운영형태
7. 사용 교재
8. 현 상황과 과제 (대학 등의 양케이트 결과)
9. 현 상황과 과제 (대학 등 관계자들의 기술내용)

1. 외국어교육 속의 한국어

먼저, 4년제대학과 고등학교의 외국어교육 실시개황을 살펴보고 각 과정에서의 한국어의 현 위치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외국어수업 실시상황과 함께 이수상황도 표시했다.

1-1. 대학 등에서의 외국어교육의 개황

4년제대학에서의 외국어교육 실시상황을 표4에 제시했다. 2002년도를 보면 영어 실시율(실시학교수/전체학교수) 98.7%를 제외하더라도, 독일어 84.1%, 중국어 82.8%, 프랑스어 79.2%에 비하여 한국어는 46.9% 밖에 되지 않아 독일어·중국어·프랑스어와 30 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있다. 국립대학만을 보아도 영어와 독일어 96.0%, 중국어와 프랑스어 88.9%, 한국어 58.6%순인 점으로 보아 역시 큰 차이가 있다.

국립대학에서는 중국어와 프랑스어의 실시율이 약 9할이고, 독일어와 한국어의 실시율이 사립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2002년도와 2000년도의 실시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어는 6.4, 중국어는 3.6포인트 증가했고, 독일어는 1.9, 프랑스어는 0.6포인트 감소했다.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4년제대학의 수가 증가해, 독일어와 프랑스어의 실시교수도 늘어났으나 실시율은 감소를 보인다. 이것은 2000년도 이후의 신설교 또는 기존의 대학에서 프랑스어나 독일어보다 한국어나 중국어를 개설하는 기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4] 4년제대학에서의 외국어교육 실시상황: 2000-02년도

년도 종별	2002년				2001년				2000년			
	사립	국립	공립	합계	사립	국립	공립	합계	사립	국립	공립	합계
전체학교수	512	99	75	686	496	99	74	669	478	99	72	649
영어	509	95	73	677	494	95	73	662	472	94	72	638
	99.4%	96.0%	97.3%	98.7%	99.6%	96.0%	98.6%	99.0%	98.7%	94.9%	100.0%	98.3%
독일어	424	95	58	577	416	95	58	569	406	94	58	558
	82.8%	96.0%	77.3%	84.1%	83.9%	96.0%	78.4%	85.1%	84.9%	94.9%	80.6%	86.0%
중국어	422	88	58	568	397	85	57	539	375	83	56	514
	82.4%	88.9%	77.3%	82.8%	80.0%	85.9%	77.0%	80.6%	78.5%	83.8%	77.8%	79.2%
프랑스어	403	88	52	543	393	88	51	532	380	87	51	518
	78.7%	88.9%	69.3%	79.2%	79.2%	88.9%	68.9%	79.5%	79.5%	87.9%	70.8%	79.8%
한국어	234	58	30	322	204	49	32	285	187	46	30	263
	45.7%	58.6%	40.0%	46.9%	41.1%	49.5%	43.2%	42.6%	39.1%	46.5%	41.7%	40.5%
스페인어	173	44	23	240	173	40	19	232	163	40	19	222
	33.8%	44.4%	30.7%	35.0%	34.9%	40.4%	25.7%	34.7%	34.1%	40.4%	26.4%	34.2%
러시아어	113	54	22	189	114	54	21	189	108	54	20	182
	22.1%	54.5%	29.3%	27.6%	23.0%	54.5%	28.4%	28.3%	22.6%	54.5%	27.8%	28.0%
라틴어	64	33	6	103	57	30	4	91	62	35	4	101
	12.5%	33.3%	8.0%	15.0%	11.5%	30.3%	5.4%	13.6%	13.0%	35.4%	5.6%	15.6%
이탈리아어	72	18	9	99	n/a	n/a	n/a	n/a	n/a	n/a	n/a	n/a
	14.1%	18.2%	12.0%	14.4%								
아라비아어	28	12	4	44	28	9	3	40	27	10	4	41
	5.5%	12.1%	5.3%	6.4%	5.6%	9.1%	4.1%	6.0%	5.6%	10.1%	5.6%	6.3%
그 외	102	33	6	141	143	34	14	191	135	36	12	183
	19.9%	33.3%	8.0%	20.6%	28.8%	34.3%	18.9%	28.6%	28.2%	36.4%	16.7%	28.2%

주: 문부과학성 “대학에 있어서의 교육내용 등 개혁상황에 관해서” 를 바탕으로 하였다. 각 외국어의 상단에 학교수, 하단에는 실시율을 표시했다. 한국어 학교수 및 2002년도 대학 전체와 국립대학에서의 실시율이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있는 외국어에 한해 굵은 글자로 표시했다.

1-2.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교육 실시상황

1986년도 이후, 문부과학성이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의 국제교류 등의 상황’을 보면, 고등학교의 외국 수학여행 실시상황이나 영어 이외의 외국어과목 개설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고등학교에서의 영어 이외의 외국어교육 실시개황을 표5에 제시했다.

대학 등에서의 외국어교육 실시상황(p. 29 참고)과는 달리, 영어에 관한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어의 실시율은 100%에 가깝다. 표5가 ‘영어 이외의 외국어교육’만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교육의 현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가 제 1외국어, 그 외 외국어가 제2외국어로써 고등학교교육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외국어교육의 현실은 개개의 학교 재량이나 교원 개인의 열의, 그리고 학교관계자의 지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2003년도 수치를 보면 ‘영어 이외의 외국어’의 학교수로 본 실시율은 중국어가 8.74%, 프랑스어 4.32%, 한국어 4.03%, 스페인어 1.86%, 독일어 1.84%순이다. 1999년도 수치와 비교하면 중국어 1.93, 프랑스어 0.55, 한국어 1.63, 스페인어 0.45포인트가 늘어나, 중국어와 한국어의 증가율이 높다. 한편, 독일어는 0.15 포인트 감소해, 표4(p. 29)의 4년제대학과 같은 경향을 나타 낸다. 프랑스어와 독일어는 사립교의 실시율이 공립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5]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교육 실시상황: 1999-2003년도

년도 종별	2003년			2001년			1999년		
	사립	국공립[a]	합계	사립	국공립[a]	합계	사립	국공립[a]	합계
전체 학교수	1318	4117	5435	1318	4146	5464	1316	4148	5464
중국어	133 10.09%	342 8.31%	475 8.74%	125 9.48%	299 7.21%	424 7.76%	121 9.19%	251 6.05%	372 6.81%
프랑스어	95 7.21%	140 3.40%	235 4.32%	95 7.21%	120 2.89%	215 3.93%	93 7.07%	113 2.72%	206 3.77%
한국어	60 4.55%	159 3.86%	219 4.03%	52 3.95%	111 2.68%	163 2.98%	47 3.57%	84 2.03%	131 2.40%
독일어	46 3.49%	54 1.31%	100 1.84%	50 3.79%	57 1.37%	107 1.96%	49 3.72%	60 1.45%	109 1.99%
스페인어	26 1.97%	75 1.82%	101 1.86%	25 1.90%	59 1.42%	84 1.54%	22 1.67%	55 1.33%	77 1.41%
러시아어	6 0.46%	15 0.36%	21 0.39%	6 0.46%	14 0.34%	20 0.37%	8 0.61%	15 0.36%	23 0.42%
이탈리아어	7 0.53%	3 0.07%	10 0.18%	6 0.46%	1 0.02%	7 0.13%	6 0.46%	1 0.02%	7 0.13%
포르투갈어	2 0.15%	7 0.17%	9 0.17%	2 0.15%	4 0.10%	6 0.11%	2 0.15%	4 0.10%	6 0.11%
인도네시아어	1 0.08%	2 0.05%	3 0.06%	1 0.08%	1 0.02%	2 0.04%	1 0.08%	1 0.02%	2 0.04%
베트남어	1 0.08%	2 0.05%	3 0.06%	1 0.08%	2 0.05%	3 0.05%	1 0.08%	1 0.02%	2 0.04%
말레이어	0	2 0.05%	2 0.04%	0	3 0.07%	3 0.05%	0	1 0.02%	1 0.02%
필리핀어	1 0.08%	1 0.02%	2 0.04%	1 0.08%	0	1 0.02%	n/a	n/a	n/a
아라비아어	2 0.15%	0	2 0.04%	1 0.08%	0	1 0.02%	2 0.15%	0	2 0.04%
기타	10 0.76%	2 0.05%	12 0.22%	8 0.61%	2 0.05%	10 0.18%	9 0.68%	0	9 0.16%

주: 문부과학성, “고등학교 등에서의 국제교류 등의 상황” (2000, 2002, 2004) 을 자료로 했다. 한국어실시교의 합계와 실시율 및 사립과 공립교의 실시율이 2포인트 이상 차이가 있는 외국어, 2003년도 실시율은 굵은 글자로 표시했다. a. 국립 15교 (2001년, 03년), 17교 (1999년) 를 포함한다. 한국어를 실시하는 국립교는 없다.

1-3.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 이수상황

고등학교에 관해서는 문부과학성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어 이외의 외국어과목 이수자수를 파악할 수 있다. 표5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과목에 대해 학교수로 본 실시율이다. 표6은 이러한 외국어과목 이수자수의 전체 학생수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공립교와 사립교를 합친 고등학교 전체에서 보면, 고등학생 1000명에 대해 중국어는 5.0명, 프랑스어 2.1명, 한국어 1.7명, 독일어 1.1명, 스페인어 0.7명 순이다. 하지만 사립교만을 보면 중국어가 7.1명, 프랑스어 4.1명, 한국어 1.7명, 독일어 2.6명, 스페인어 1.1명으므로, 한국어 이외에는 모두 공립교보다 사립교의 이수율이 높다. 1000명 당 차이는 중국어 3.0명, 프랑스어 2.8명, 독일어 2.1명, 스페인어 0.5명이다.

한국어의 공립교와 사립교의 이수율의 차이는 1999년이 0.05, 2001년도가 0.02이므로,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공립교 이수자의 신장률이 크다. 같은 기간의 개설교수 변화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표5 참고]

[표6]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 이수상황: 1999-2003년도

년도	2003 년			2001 년			1999 년		
	사립	국공립[a]	합계	사립	국공립[a]	합계	사립	국공립[a]	합계
전체 학교수	18,966	22,643	41,609	18,264	20,793	39,057	20,807	19,390	40,197
전체 학생수	1,115,158	2,694,669	3,809,827	1,187,867	2,873,889	4,061,756	1,248,305	2,963,521	4,211,826
중국어	7,892 0.71%	11,153 0.41%	19,045 0.50%	7,159 0.60%	10,690 0.37%	17,849 0.44%	8,757 0.70%	9,684 0.33%	18,441 0.44%
프랑스어	4,561 0.41%	3,520 0.13%	8,081 0.21%	4,880 0.41%	3,741 0.13%	8,621 0.21%	5,982 0.48%	3,941 0.13%	9,923 0.24%
한국어	1,949 0.17%	4,527 0.17%	6,476 0.17%	1,536 0.13%	3,051 0.11%	4,587 0.11%	1,611 0.13%	2,361 0.08%	3,972 0.09%
독일어	2,916 0.26%	1,359 0.05%	4,275 0.11%	3,225 0.27%	1,323 0.05%	4,548 0.11%	2,931 0.23%	1,515 0.05%	4,446 0.11%
스페인어	1,175 0.11%	1,609 0.06%	2,784 0.07%	1,095 0.09%	1,489 0.05%	2,584 0.06%	942 0.08%	1,383 0.05%	2,325 0.06%
러시아어	205	273	478	113	386	499	294	414	708
이탈리아어	113	46	159	106	21	127	137	21	158
포르투갈어	41	61	102	73	52	125	37	52	89
인도네시아어	12	28	40	16	4	20	24	4	28
베트남어	5	10	15	1	5	6	4	5	9
말레이어	0	14	14	0	10	10	0	10	10
필리핀어	6	1	7	n/a	n/a	n/a	n/a	n/a	n/a
아라비아어	6	0	6	7	0	7	25	0	25
기타	85	42	127	53	21	74	63	0	63

주: 문부과학성, "고등학교에서의 국제교류 등의 상황" 등을 자료로 했다. 이수자수가 합계 1000명 미만의 외국어는 이수율을 나타내지 않았다. 03년도 이수자수 및 1999, 2001, 03년도의 이수율이 0.1% 이상의 외국어 이수율에 한해 굵은 글자로 표시했다. [a] 국립 15 교(01년, 03년), 17 교(99년)을 포함하나, 한국어를 실시하고 있는 국립교는 없다.

1-4.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비교

학교교육의 외국어 개설상황에 대해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현 상황을 비교하므로써, 각 단계에 있어 개개의 외국어 위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고등학교 외국어수업의 개설률(전체 학교에 대한 개설교의 비율)은 2003년도에는 중국어가 9%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4%, 독일어와 스페인어가 2% 순이다.

표 7에 4년제대학과 고등학교에서의 4개 언어 실시상황을 비교했다(4년제대학에서 실시율이 높은 순으로 정리). 표 4(p. 29)와 표 5(p. 30)의 공통연차인 2001년도 수치를 합성한 것이다. 중국어는 4년제대학과 고등학교 모두 높은 실시상황을 보였다.

[표 7] 4년제대학과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교육 실시상황: 2001년도

언어	종별	사립	국립	공립	합계
독일어	4년제대학	416 83.9%	95 96.0%	58 78.4%	569 85.1%
	고등학교	50 3.79%	57 1.37%		107 1.96%
중국어	4년제대학	397 80.0%	85 85.9%	57 77.0%	539 80.6%
	고등학교	125 9.48%	299 7.21%	424 7.76%	
프랑스어	4년제대학	393 79.2%	88 88.9%	51 68.9%	532 79.5%
	고등학교	95 7.21%	120 2.89%	215 3.93%	
한국어	4년제대학	204 41.1%	49 49.5%	32 43.2%	285 42.6%
	고등학교	52 3.95%	111 2.68%	163 2.98%	

주: 4년제대학과 고등학교 상위 2개언어의 학교수와 실시율을 굵은 글씨로 나타냈다.

예를 들면 중국어는 고등학교에서는 1할에도 못 미치지만 8할이 넘는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 대학 모두 개설률이 낮은 한국어의 위상은 같은 아시아언어로 비교되는 일이 많은 중국어와는 아주 다른 위치에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관점에서 재파악함으로써, 대학 등과 고등학교를 포함한 학교교육 전체에서 한국어교육의 위치를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나 대학 등의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고찰할 때, 개설학교수에 주목하는 일이 많았으나, 제대로는 이수자수나 전체 학생에 대한 이수자의 비율(이수율)을 중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두 교육과정 모두 외국어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짜여져 있어 선택하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이다.

학교교육 제도에 있어서 외국어교육의 위상이 낮다고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점이다. 또한 대학 등에서는 제2외국어가 제도화되어 자리를 잡고 있는 데 비해, 고등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 등과 고등학교 간에 나타나는 실시율과 이수율의 큰 격차도 이러한 제도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은 도입시기와 지역성에 따라 인권교육, 국제이해교육, 이(異)문화 이해교육, 국제교류, 다문화공생(多文化共生) 등, 각각의 요소에 역점을 두면서 발전해 왔다. 대학 등의 한국어교육은 고등학교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다 전문적인 면, 실용적인 면이 크다. 물론, 양쪽 다 전문 코스와 일반교양 코스와는 크게 내용이 다르므로 일괄해서 말할 수는 없으나, 대학 등과 고등학교라는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차이는 있다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입장은 기본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두 과정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전문 과정을 제외한 대학 등의 일반교양과 고등학교의 보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은 큰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한국어를 학교교육 속에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가, 많은 토론과 생각이 필요하다.

타 외국어와 비교하여 한국어를 어떻게 특징지어 갈 것인가라는 작업이다.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들이 한국어학습의 의미와 특징을 언급해 왔다. 앞으로는 보다 깊고 광범위한 연구와 고찰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2. 90년대 이후의 상황변화

TJF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한국어교육을 개설한 대학 등의 총수는 410교이다. 표8에 1988년도부터 이번 조사 때까지의 4년제대학과 단기대학 및 그 외의 개설 상황을 제시하였다(확인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학 등 전체에서 한국어교육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1995년도(185교), 2000년도(327교), 2002-03년도의 세 시기를 비교해 보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5년 동안에 142교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에 83교가 늘어났다. 19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8년 동안 개설교가 2.2배 증가했다.

[표8] 대학 등에서의 개설상황: 1988-2003년도

년도	대학 등		4년제 대학			단기대학 및 기타			
	전체	사립	국립	공립	합계	사립단대	공립단대	기타[c]	합계
1988년	-	50	10	8	68	-	-	-	-
1993년[a]	-	67	(10)	13	(90)	-	-	-	-
1995년[b]	185	100	25	18	143	40	2	-	42
1998년	-	154	38	23	215	-	-	-	-
2000년	327	187	46	30	263	58	6	-	64
2001년	-	204	49	32	285	-	-	-	-
2002년	-	234	58	30	322	-	-	-	-
2002-03년	410	243	58	34	335	62	7	6	75

주: 문부과학성, 한국교육재단 등 관련 단체의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했다. ' - ' 란은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
a. 국립대학만 확인되었다. 1993년도에 국립대학은 4개밖에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 내에는 1988년도 숫자를 기재했다. b. 한국교육재단의 조사자료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어교육 실태조사 보고 1996)
c. 고등전문학교(2), 방송대학, 해상보안대학교, 방위대학교, Temple University Japan을 포함.

2-1. 4년제대학의 상황

표9는 1995년도 수치를 1로 정하여, 2002-03년도까지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4년제대학에서는 사립대학이 2.43배, 국립대학 2.32배, 공립대학 1.89배의 비율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2.34배 증가하였다. 이 8년 동안 4년제대학의 한국어 개설학교수는 해마다 늘어, 사립 143교, 국립 33교, 공립 16교가 늘었다.

[표9] 4년제대학에서의 개설학교수의 변화: 1995-2003년도

년도	사립		국립		공립		4년제 전체	
	개설교	증가율	개설교	증가율	개설교	증가율	개설교	증가율
1995년	100	1	25	1	18	1	143	1
2000년	187	1.87	46	1.84	30	1.67	263	1.84
2001년	204	2.04	49	1.96	32	1.78	285	1.99
2002년	234	2.34	58	2.32	30	1.67	322	2.25
2003년	243	2.43	58	2.32	34	1.89	335	2.34

주: 1995년도의 숫자는 한국교육재단의 조사 (1996) 를 근거로 하였다. 1995년도 수치=1

표10은 학교수에 대한 한국어 개설학교수의 비율이다. 1995년도부터 2002-03년도에 사립대학은 24.1%에서 46.2%로, 국립대학은 25.5%에서 58.0%로, 공립대학은 34.6%에서 44.7%로 증가했다. 4년제대학 전체에서는 25.3%에서 47.7%로 22.4포인트 증가했다. 2002-03년도에는 4년제대학의 거의 2교에 1교의 비율로 한국어가 개설되었다.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1995년도부터 2002-03년도에 걸쳐서 한국어 개설교의 비율이 국립대학에서 30포인트 이상 늘어나, 거의 60%에 다다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기간 동안, 국립대학의 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대학에서 한국어 개설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4년제대학에서의 개설학교의 비율변화: 1995-2003년도

년도	사립		국립		공립		4년제 전체	
	학교수	한국어개설교	학교수	한국어개설교	학교수	한국어개설교	학교수	한국어개설교
1995년	415	100 24.1%	98	25 25.5%	52	18 34.6%	565	143 25.3%
2000년	478	187 39.1%	99	46 46.5%	72	30 41.7%	649	263 40.5%
2001년	496	204 41.1%	99	49 49.5%	74	32 43.2%	669	285 42.6%
2002년	512	234 45.7%	99	58 58.6%	75	30 40.0%	686	322 46.9%
2003년	526	243 46.2%	100	58 58.0%	76	34 44.7%	702	335 47.7%

주: 각 년도의 학교수는 문부과학성의 학교기본조사이다. 1995년도의 개설학교수는 한국교육재단의 조사(1996)를 근거로 했다

2-2. 단기대학의 상황

2003년도 현재, 학교수로는 4년제대학이 702교, 단기대학이 525교로, 1.3대 1의 비율이다. 학생수에서는 4년제대학이 2,803,980(학부 2,509,374)명, 단기대학이 250,062명으로, 11.2(10.0)대 1의 비율이다. 대학 등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을 살펴볼 경우, 학교수로는 4년제 대학과 단기대학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으나, 학생수로 보면 단기대학은 4년제대학의 1/10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1은 1995년도부터 2002-03년도까지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2003년도 현재, 단기 대학의 88%가 사립교이고, 공립교는 사립교의 1할 남짓하다. 단기대학 전체의 한국어 경향은 사립교와 거의 비슷하다. 국립 단기대학에는 한국어 개설교가 없다.

[표 11] 단기대학에서의 개설학교수의 변화: 1995-2003년도

년도	사립		공립		단기대학 전체	
	개설학교	증가율	개설학교	증가율	개설학교	증가율
1995년	40	1	2	1	42	1
2002년	57	1.43	7	3.50	64	1.52
2003년	62	1.55	7	3.50	69	1.64

주: 1995년도의 개설학교수는 한국교육재단의 자료(1996)를 근거로 한다. 1995년도 수치=1

1995년도부터 2002-03년도에 걸쳐 4년제대학의 신설이 많았던 것에 비해, 단기대학은 1995년 전후로 감소한다. 특히 국립은 1995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립교도 7% 정도 감소했다. 표12에 단기대학의 한국어개설 상황을 제시하였다. 사립에 있어서 개설교의 비율은 13.4%이고, 단기대학 전체에서는 13.1%에 그친다. 4년제대학에서의 비율(47.7%)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어, 대학 등이라는 파악방법의 어려움을 준다.

[표 12] 단기대학에서의 개설학교의 비율변화: 1995-2003년도

년도	사립		국립		공립		단기대학 전체	
	학교수	한국어 개설수	학교수	한국어 개설수	학교수	한국어 개설수	학교수	한국어 개설수
1995년	500	40 8.0%	36	0	60	2 3.3%	596	42 7.0%
2002년	475	57 12.0%	16	0	50	7 14.0%	541	64 11.8%
2003년	463	62 13.4%	13	0	49	7 14.3%	525	69 13.1%

주: 각 년도 학교수는 문부과학성의 학교기본조사, 95년도 개설학교수는 한국교육재단 자료(1996)를 근거로 했다.

2-3. 대학 등에서의 신규 개설상황

표13에 조사 당시, 2004년도 이후 한국어를 개설할 예정이었던 대학 등(4년제대학 11교와 단기대학 및 그 외 3교)를 표시하였다. 4년제대학은 국공립 각 1교, 사립 9교, 단기대학은 국공립 각 1교이다. 2002-03년도의 한국어 개설교와 비교하면, 4년제대학은 17교, 단기대학에서는 5교가 증가했다.

조사로 확인된 2004년도부터의 개설예정 학교수는 4년제대학이 9교, 단기대학 및 기타 2교로 합하여 11교이다. 미확인 학교를 포함하면, 거의 2002-03년의 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개설교가 증가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국어의 이수자수가 많은 복수의 사립대학에 있어서, 2004년에도 계속 이수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표 13] 대학 등에서의 개설상황: 2004-05년도

지역	학교명 *국립, **공립, 표시가 없는 것은 사립.	과목명	개시 예정 년도	이수 형태와 협정대학
4년제대학				
홋카이도	홋카이도분교대학	조선어	2004년	
후쿠시마	* 후쿠시마대학	조선어	2005년	
도치기	나스대학	한국어	2004년	동서울대학[b]
니가타	게이와가쿠엔대학	코리아어	2004년	
시가	비와코세이케이스포츠대학	한국어	2004년	전 학부에서 이수 가능
효고	**고베상과대학		2005년	새로운 대학에 통합된 이후, 도입을 검토
효고	고베신와여자대학		2004년	2004년 이후 도입을 검토
오카야마	주코쿠가쿠엔대학	한국어	2004년	
히로시마	히로시마조가쿠인대학		2004년	모든 학부에서 이수 가능.
후쿠오카	후쿠오카공업대학	한국어	2004년	일부 학부에서만 이수 가능. 경성대/아주대[a](1)
구마모토	규슈루테루가쿠인대학		2004년	평택대[b]
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				
가나가와	쇼호쿠단기대학	한글어	2004년	
야마나시	**야마나시현립 여자단기대학	한국어	2005년	모든 학부에서 이수 가능, 졸업단위로 인정.
후쿠오카	* 구루메공업고등전문학교	한국어	2004년	중·영·독·한국어를 개강할 예정 계명대[a, b](2)

주: 본 조사를 통해 확인한 정보로, 공식으로 발표된 정보는 아니다. 협정교(協定校)는 2002년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후의 학교도 포함시켰다. 문부과학성 조사도 포함한다. 협정대학: a. 본 조사에서 확인했다. b. 문부과학성 조사로 확인, (1)단위인정제도와 교원과 학생의 교류, (2)교원 또는 학생 교류만 있다.

2-4. 대학 등과 고등학교에서의 개설교 증가

4년제대학의 수는, 2차대전 후 일관성 있게 증가하고 있다. 사립교의 증가가 현저하며 사립교의 비율은 2003년도 4년제대학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고등학교 전체수는 1990년도까지 계속 증가했으나, 그 후 감소추세를 보인다. 공립, 사립교의 비율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2003년도 현재 공립교 76%, 사립교 24%이다.

2001년도와 2003년도 한국어실시교 수를 살펴보면, 4년제대학은 2001년 285교에서 2003년에는 335교로, 50교가 증가했다(증가율 17.5%). 같은 기간에 고등학교는 163교에서 219교로 56교(34.4%) 증가했다. 증가율만을 보면 4년제대학보다 고등학교의 증가율이 크다.

한국어 개설률을 살펴보면 고등학교는 1995년에 1.33%, 2001년 2.98%, 2003년 4.03%로, 1995-2001년이 1.65포인트, 2001-2003년이 1.05포인트 증가했다. 4년제대학은 1995년 25.3%, 2001년 42.6%, 2003년 47.7%로, 1995-2001년까지 6년간 17.3포인트가 늘었고, 2001-2003

년의 2년 동안에 5.1포인트 증가했다. 모든 교육과정이 꾸준히 증가했다.

4년제대학과 단기대학의 상황차도 있으므로,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을 단순비교해서는 안될 것이나, 최근 2년간의 증가율과 개설률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4년제대학보다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증가경향이 두드러진다. 전체 기관수가 4년제대학은 늘고 있고 고등학교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개설교 증가비율이 현저하다.

특히 공립교가 두드러진다. 1995년 실시교수를 1로 볼 때, 2001년에는 2.2배(공립 2.4), 2003년에는 3배(공립 3.4)로 증가했다. 덧붙여, 한국어를 개설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73%는 공립교이다(2003년도). 본 보고서에서 확인한 2002-03년도 한국어를 개설한 4년제대학의 73%는 사립으로, 고등학교와 대학에 있어서의 공사립의 비율이 거꾸로이다. [표4(p. 29)와 표5(p. 30) 참고]

본 보고서의 기초가 된 조사 실시년도(2002)에 대해서는 월드컵 효과로 한국어 개설교가 급증했다는 이해도 일부 있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와 1995년도 한국어 개설상황을 대조해 보고, 2004년도 이후의 개설예정을 비교하면, 2002년도의 한국어개설교 증가현상이 일시적인 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늘어갈 추세라고 보는 시각이 타당하다. 가까운 장래에 4년제대학의 과반수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상황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무리가 따르는 일은 아닐 것이다.

2-5. 고등학교에서의 최근 동향

표14에 도쿄도(東京都)와 가나가와현(神奈川県) 및 그 외 지역의 동향을 제시했다. 2004년도에 개설된 학교 10교(개편에 의한 신설교를 포함)와 2005년도 이후 개설예정교 7교(2006년 1교를 포함)를 확인했다. 공립 고등학교 개편과 더불어 한국어의 개설교가 늘고 있다.

종합(總合)고등학교에서는 종래의 보통고등학교와는 달리 해당 어학과목의 교원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그에 상당하는 어학능력과 교수법이 있으면 한국어 및 타 외국어수업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학교설정과목으로 취급). 보통 고등학교에서도 많은 한국어교사가 영어나 국어교과 등의 교사를 겸하고는 있으나, 종합고등학교에서 타교과 교사가 한국어를 담당하기가 더 쉬워졌다.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가 공립교의 한국어개설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한다.

[표14] 고등학교에서의 개설상황: 2004-05년도(일부 조사)

지역	학교명 (지역별 히라가나순)	개시년(예정)/과목명/코스명/이수형태 등
후쿠시마	후쿠시마기타	2004
도쿄	오모리 정시제(定時制)	2004 한글, 한글 I 필수선택, 三 한글II 필수선택 四
	가쓰시카 상업	2005 예정, 三자유선택
	스기나미 종합	2005 예정, 한글 I 필수선택, 二三2, 한글II 자유선택 三2
	미나토지구 켈린지스쿨(가칭)	2006 예정, 한글 I II, 전학년 2
	무코지마(→산업)	2005 예정
가나가와	아사오 종합	2004 신설교
	가나자와 종합	2004
	사가미하라 종합	2004
	하다노미나미가오카	2004
	요코하마세이료 종합	2004 신설교
나가노	오마치기타	2004
아이치	나고야 공업(市)	2005 예정
	야마다(市)	2005 예정
오사카	센리	2005 예정
사가	사가 상업	2004
가고시마	가이요 전일제(全日制)	2004 한글 초급·중급

주: 보통제, 정시제, 통신제 과정이 병설되어 있는 경우, 각각을 다른 기관으로 다루었다.

예: 二 2 2학년에서 2 단위, 二 三 2 2학년 또는 3학년에서 2 단위, 二 2, 三 2 2학년에서 2 단위, 3학년에서 2 단위 이수를 말한다

3. 한국어과목 명칭

일본 대학 등에서 한국어가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본 보고서에서는 대학 등이 개설하고 있는 한국어과목명을 그 기관에 있어서의 한국어명칭으로 파악했다. 학부에 따라 명칭이 다른 대학 등의 경우는 표15에 병용형으로 나타냈다. ‘한글’과 ‘한국어’를 병용하고 있는 대학 4교(‘한글’ 또는 ‘한국어’를 주요 명칭으로 하는 2교씩 있다)와 ‘조선어’가 추가 되고 ‘한국어’를 병용하는 2교 외, 11기관이 병용형이다.

3-1. 4년제대학의 현 상황

2002-03년도 4년제대학 한국어과목명 상황을 표15에 제시했다. 2003년도 현재, 4년제대학 전체의 국공사립의 비율을 보면 사립대학이 75%, 국립대학 14%, 공립대학이 11%로, 거의 4교 중 3교가 사립대학이다. 아래 표를 참조할 때 이 점에 유의한다.

4년제대학 전체를 보면 ‘한국어(韓國語)’가 33.1%, ‘조선어(朝鮮語)’ 27.8%, ‘한글(한글)’ 14.3%, ‘코리아어(코리아어)’ 7.8%, ‘한국·조선어(韓國·朝鮮語)’ 5.7%순이다. 4년제 사립대학에서는 ‘한국어’가 36.6%, ‘조선어’ 20.6%, ‘한글’ 15.6%, ‘코리아어’ 9.1%, ‘한국·조선어’ 6.2%순이다. 국립 대학에서는 ‘조선어’ 55.2%, ‘한국어’ 20.7%, ‘한글’ 10.3%, ‘한국·조선어’ 5.2%의 순으로 ‘한국어’와 ‘조선어’의 사용비율은 사립과 국립이 순위가 역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립대학에서 ‘조선어’란 명칭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점, 사립대학 실시교에서 9.1% 사용되는 ‘코리아어’란 명칭이 국립대학에서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공립대학 한국어실시교에서는 ‘조선어’가 32.4%, ‘한국어’ 29.4%, ‘한글’ 11.8%, ‘코리아어’ 11.8%순으로 사립과 국립대학의 중간적 상황을 보인다. ‘조선어’와 ‘한국어’의 사용은 비슷하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한글’ ‘한국어’ ‘조선어’ ‘한국·조선어’ 순이고 ‘코리아어’ 사용은 1교에 불과하다. ‘한국(·)조선어’ 사용도 대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표 15] 4년제대학의 언어(과목)명: 2002-03년도

언어(과목)명	사립		국립		공립		4년제 전체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한국어	89	36.6%	12	20.7%	10	29.4%	111	33.1%
조선어	50	20.6%	32	55.2%	11	32.4%	93	27.8%
한글[a]	38	15.6%	6	10.3%	4	11.8%	48	14.3%
코리아어	22	9.1%			4	11.8%	26	7.8%
한국·조선어[b]	15	6.2%	3	5.2%	1	2.9%	19	5.7%
조선어(한국어)	4	1.6%	2	3.4%			6	1.8%
한국어·한글[c]	2	0.8%					2	0.6%
한글어	3	1.2%			1	2.9%	4	1.2%
한국의 언어와 문화[d]	4	1.6%	1	1.7%	1	2.9%	6	1.8%
조선·한국어[e]	3	1.2%	1	1.7%			4	1.2%
기타[f]	2	0.8%	1	1.7%	2	5.9%	5	1.5%
병용형[g]	11	4.5%					11	3.3%
합계	243	100.0%	58	100.0%	34	100.0%	335	100.0%

주: 2002년도와 2003년도 언어(과목)명이 다른 경우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했다

a. 한글과 문화를 포함 b. 한국조선어 | 한국/조선어 | 한국어(조선어) | 한국어, 조선어 | 한국어, 한국어/조선어 | 한국·조선어를 포함 c. 한국어·한글 | 한글·한국어 d. 세계의 언어와 문화(한국어) | 한국사정과 문화 | 외국어와 문화 한국을 포함 e. 조선한국어 | 조선(한국)어를 포함 f. 한국(조선)어(코리아어) | 코리아어(한국어) | 조선언어문화특론 g. 두가지 이상의 언어(과목)명을 병용(학부와 언어센터 등에서 명칭이 다른 경우. 좌측 명칭을 주로 함): 한글+한국어(2) | 한국어+한글(2) | 조선어+한국어(2) | 한국어+조선어 | 조선어+한국·조선어 | 한국어+한국어/조선어+조선어 | 조선어+한글 | 조선어+한글어 | 한국어+한글어 | 한국어+한국의 언어와 문화

3-2. 4년제대학: 1995-2003년도

표16에 1995년도 4년제대학의 한국어명칭 사용상황을 표시했다. 4년제대학 전체에서 ‘조선어’ 39.9%, ‘한국어’ 21.7%, ‘코리아어’ 7.7%, ‘한글어’ 7.7%순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국립대학에서는 ‘조선어’가 80.0%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어’와 ‘코리아어’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공립대학에서도 ‘조선어’가 50.0%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도와 2003년도 한국어명칭을 비교하면 사용상황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과목명으로 ‘조선어’를 사용하는 기관은 늘었지만, 실시교 중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은 낮아졌다. 표17(p. 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로, 2차대전 이후부터 70년대까지는 대부분이 ‘조선어’였다.

그러나 1995년도에는 사립의 ‘조선어’와 ‘한국어’ 사용이 거의 동수에 달했다. 사립대학에서는 95년을 전후로 ‘한국어’가 더 많이 쓰이게 되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2003년도에는 공립대학의 ‘조선어’와 ‘한국어’ 사용이 거의 같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으로 보아 2004년 이후 공립에서도 ‘한국어’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국공립 대학에서는 ‘조선어’가 95년의 80.0%에서 약 25포인트 떨어졌다고는 하나 2002-03년도에도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보아, 사립대학과 비교해서 국립대학 관계자들이 ‘조선어’를 학문적인 명칭으로 삼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1995년과 2003년을 비교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국립대학에 있어서 ‘조선어’와 ‘한국어’ 사용비율이 역전되리라 보기는 어렵다. 단, 일본의 대학 중에서도 가장 오랜 한국어교육 역사를 가진 덴리대학이 조선학과를 폐지하게 됨으로써 언어명칭을 ‘조선어’에서 ‘한국·조선어’로 변경(2003년도)한 것과 도쿄대학이 ‘조선어’를 ‘한국조선어’로 바꾼 사례(2003년도부터)를 미루어 본다면, ‘조선어’명칭이 감소경향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표 16] 4년제대학의 언어(과목)명: 1995년도

언어명칭	사립		국립		공립		4년제 전체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조선어	28	28.0%	20	80.0%	9	50.0%	57	39.9%
한국어	29	29.0%			2	11.1%	31	21.7%
코리아어[a]	10	10.0%			1	5.6%	11	7.7%
한글어	8	8.0%	1	4.0%	2	11.1%	11	7.7%
한국어+한글어	2	2.0%	1	4.0%			3	2.1%
한글			1	4.0%			1	0.7%
한국어+조선어	1	1.0%					1	0.7%
한국어+코리아어					1	5.6%	1	0.7%
한국어+기타	1	1.0%					1	0.7%
기타	19	19.0%	2	8.0%	3	16.7%	24	16.8%
불명	2	2.0%					2	1.4%
	100	100.0%	25	100.0%	18	100.0%	143	100.0%

주: 한국교육재단 조사(1996)를 근거로 작성했다. a. 조치대학은 1976년도에 ‘한국어’강좌를 개설했으나 수강생의 강좌명 문제제기로 교수회에서 논의한 결과, 스페인어·포르투갈어·러시아어를 본 따 ‘코리아어’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리고 77년도부터 ‘코리아어’로 정식 개칭했다.

표17은 4년제대학이 한국어를 개설한 초년도 명칭을 연도별로 분류했다. 2002-03년도에 개설한 335교 중, 개설년도와 언어명칭을 회답한 211교(63%)만을 게재했다. 표에 의하면 70년대까지는 거의가 ‘조선어’였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어’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1976년 처음 사용). ‘코리아어’는 77년부터, ‘한글’은 86년, ‘한국·조선어’는 91년부터이다. 고등학교에서도 80년대 전반까지는 대다수가 ‘조선어’였다(대부분이 공립교. 1951년도에 사립 1교가 ‘한국어’ 사용). ‘한국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86년이고 ‘한글’은 85년부터 ‘한국조선어’는 90년부터이므로, 4년제대학과 비슷한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의 ‘코리아어’명칭은 99년도에 개설된 1교만이 확인되었다.

[표 17] 4년제대학의 언어(과목)명: 1950-2005 년도

개설년도	학교수	언어 (과목) 명	회답한 대학교에 한함.
1950 년	1	조선어	→한국·조선어[2003]
60 년대	1	조선어	→한국조선어[2002]
1961 년	1	조선어	
70 년대	1	조선어	
1976 년	2	조선어, 한국어	→코리아어[1977]
1977 년	1	조선어	
1979 년	1	조선어	→한국어+ 한국어/조선어+ 조선어
1983 년	2	조선어, 한국어	
1983 년	1	한국어	
1984 년	1	한국어	
1985 년	1	조선어	
1986 년	2	한국어, 한글	
1987 년	3	한국어[2], 조선어	
1988 년	8	조선어[2], 한국어[2], 조선어(한국어), 조선어+ 한국어, 한글, 코리아어	
89 년 경	1	조선어	
1990 년	1	조선어	
1991 년	3	조선어, 한국어, 한국·조선어	
1992 년	6	한국어[2], 코리아어[2], 조선어, 한국·조선어	
92 년 이전	4	코리아어[2], 조선어, 한국어	
1993 년	7	조선어[4], 한국어[2], 한글	
1994 년	6	조선어[2], 한글[2], 한국·조선어, 조선어 (한국어)	
1995 년	11	조선어[6], 한국어[4], 한국·조선어	
1996 년	10	조선어[2], 한국어[2], 한글[2], 조선어 (한국어), 조선한국어, 코리아어 한글어 →한국·조선어[1999]	
95/6 년 경	2	한국어, 코리아어	
1997 년	11	한국어[5], 조선어[3], 한국조선어, 한글, 한국어+ 한글어	
97 년 경	1	조선어	
1998 년	15	한국어[5], 조선어[4], 한글어[2], 한국·조선어, 한글, 코리아어, 한국어+조선어	
97/8 년 경	3	한국어[2], 조선어	
1999 년	10	조선어[3], 한글[3], 한국어[2], 코리아어, 한국사정과 문화	
99 년 경	1	한국어	
2000 년	19	한국어[7], 조선어[4], 한글[4], 코리아어, 조선어 (한국어), 한국어 (조선어), 한글어	
2000 년 경	3	조선어[2], 한국어	
2001 년	19	한국어[8], 한글[5], 조선어, 한국·조선어, 코리아어, 조선어+ 한글 한글 →한글+ 한국어[2003] 조선어 →조선어+ 한국어[2003]	
2001 년 경	1	한국어	
2002 년	23	한국어[15], 한글[3], 조선어, 한국·조선어, 코리아어, 한글·한국어, 한국의 언어와 문화 1 조선어 (이전에는 한글)	
2003 년	19	한국어[9], 조선어[2], 한글[2], 코리아어[2], 한국·조선어[2], 한국의 언어와 문화 한글과 문화	
2003 년?	1	한국어[1]	
2004 년*	6	한국어[4], 조선어, 코리아어	
2005 년*	1	조선어	

주: 개설년도에 대한 회답이 있었던 대학 210교만을 게재했다. 개설년도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년대' '이전' '경' 등으로 표시했다.

*: 개설 예정? 미확인 | 92년 이전 조사 시점에서 10년 이상 전이라고 회답한 것 | 을 포함한다. 초년도를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 우측에 변경된 언어 (과목) 명을 표시한 후 []에 변경년도를 기재했다. 예) →한국조선어[2002]

그 이외의 []내 숫자는 학교수를 가리킨다. 숫자 기재가 없는 것은 [1]교를 의미한다. 예) 한국어[2], 조선어

+ : 같은 대학 내에서 사용되는 복수 언어 (과목) 명을 병용형으로 나타냈다. 예) 조선어+한국어

3-3.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1995-2003년도

표18은 2002-03년도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의 한국어과목명을 표시한 것이다. ‘한국어’가 45.3%이고 ‘한글’이 21.3%, ‘조선어’ 10.7%, ‘코리아어’ 6.7%순이다. 단기대학의 약 9할을 차지하는 사립 단기대학에서는 ‘한국어’가 46.8%로 반수에 달한다. 또한, 단기대학에서는 병설된 4년제 대학의 한국어강좌 이수자가 가능한 곳이 많다(일부 4년제대학에서는 병설된 단기대학의 한국어 강좌 이수를 인정하는 곳도 있다).

[표18]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언어(과목)명: 2002-03년도

언어(과목)명	사립 단기대학		공립 단기대학		기타		단기대학 기타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학교명	학교수	%
한국어[a]	29	46.8%	3	42.9%	2	방송대, 해상보안대	34	45.3%
한글	13	21.0%	1	14.3%	2	도야마상선, 나가노공업	16	21.3%
조선어[b]	6	9.7%	1	14.3%	1	방위대	8	10.7%
코리아어	4	6.5%	1	14.3%			5	6.7%
한국·조선어	3	4.8%	1	14.3%			4	5.3%
한국의 언어와 문화[c]	2	3.2%					2	2.7%
한글어	1	1.6%					1	1.3%
코리아어	1	1.6%					1	1.3%
한국어·한글	1	1.6%					1	1.3%
한글(한국어)	1	1.6%					1	1.3%
한글·코리아문화	1	1.6%					1	1.3%
Korean					1	템플대(Temple Univ.)	1	1.3%
합계	62	100.0%	7	100.0%	6		75	100.0%

주: 2002년도와 2003년도가 언어(과목)명이 다른 경우는 2003년도 명칭으로 한다. a. 한국어회화를 포함한다. 병설 대학강좌와의 단위호환도 포함한다. b. 병설 대학에서의 수강을 포함한다. c. 외국어와 문화: 한국을 포함한다.

표19에 1995년도 단기대학 한국어과목명을 표시했다. ‘한국어’ 35.7%, ‘한글어’ 19.0%, ‘조선어’ 14.3%, ‘코리아어’ 11.9%, ‘한글’ 9.5%의 순이다. 단기대학만의 집계로는 2002-03년도에는 ‘한국어’가 46.4%로 1995년도에 비해 10.7포인트 증가했다. ‘한글’도 10.8포인트 증가 하여 20.3%, ‘조선어’는 4.2포인트 감소해 10.1%였다. ‘한글어’는 1교만이 남았다.

[표19] 단기대학의 언어(과목)명: 1995년도

언어명칭	사립		공립		단기대학 전체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조선어	6	15.0%			6	14.3%
한국어	13	32.5%	2	100.0%	15	35.7%
코리아어	5	12.5%			5	11.9%
한글어	8	20.0%			8	19.0%
한글	4	10.0%			4	9.5%
기타	3	7.5%			3	7.1%
불명	1	2.5%			1	2.4%
	40	100.0%	2	100.0%	42	100.0%

주: 한국교육재단의 조사(1996)를 근거로 작성했다.

3-4. 고등학교: 1997-2001년도

2001년도의 한국어과목명은 표20에 제시한 바와 같다. 고등학교 전체에서 보면 ‘한글’이 35.1%, ‘한국어’가 22.6%, ‘조선어’ 17.3%, ‘한국(·)조선어’ 16.7%순이다.

1997-98년도 고등학교 조사에 의하면 ‘한글’은 86%가 공립교, ‘한국어’는 68%가 사립교,

‘조선어’는 72%가 공립교, ‘한국조선어’는 86%가 공립교로 나타나는 등, 공립과 사립교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난다. 1997-98년도와 2001년도를 비교하면 ‘한글’을 사용하는 고등학교 전체수 중에서 공립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에서 86%로 6포인트 증가했다. 공립교가 ‘한국조선어’를 차지하는 비율도 76%에서 86%로 10포인트 증가했다. ‘조선어’는 반대로 79%에서 72%로 7포인트 감소했다. 공사립교 모두 ‘한글’과 ‘조선어’ 사용비율이 감소했고, 공립교에서는 ‘한국조선어’가 11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대학에서 사용이 감소된 ‘한글어’가 공사립교 모두 증가했다.

[표20] 고등학교의 언어(과목)명: 2001년도

언어(과목)명	사립		공립		고등학교 전체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한글[a]	8	15.4%	51	44.0%	59	35.1%
한국어	26	50.0%	12	10.3%	38	22.6%
조선어[b]	8	15.4%	21	18.1%	29	17.3%
한국·조선어[c]	4	7.7%	24	20.7%	28	16.7%
한글어[d]	3	5.8%	3	2.6%	6	3.6%
국제이해(한국·조선어)	0	0.0%	2	1.7%	2	1.2%
조선·한국어	0	0.0%	2	1.7%	2	1.2%
한국어·조선어	1	1.9%	0	0.0%	1	0.6%
코리아어	1	1.9%	0	0.0%	1	0.6%
기타[e]	1	1.9%	1	0.9%	2	1.2%
합계	52	100.0%	116	100.0%	168	100.0%

주: 2001년도에 한국어교육을 실시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표 4의 2001년도 학교수보다 많은 이유는 정시제(定時制)와 통시제(야간부·주간부)를 따로 다룬 점과 일부 교과외 수업과 사회강좌 등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 a. 병기형(併記型)을 포함한다. 한글(한국·조선어)7 | 한글(한국어)5 | 한글(한글어)3 | 한글(조선어)1
- b. 병기형을 포함한다. 조선어(한국·조선어)1 | 조선어(한국어)1 | 조선어(한국[한글]어)1
- c. 한국조선어 4를 포함한다. d. 병기형을 포함한다. 한글어(한국·조선어)1 e. 아시아의 언어 | 아시아를 생각한다

1997-98년도 고등학교 과목명을 표21에 표시했다. 고등학교 전체에서는 ‘한글’이 42.1%, ‘한국어’가 24.3%, ‘조선어’ 20.0%, ‘한국조선어’ 12.1%의 순이다. ‘한글’을 과목명으로 하는 학교는 80%가 공립교, ‘한국어’는 68%가 사립교였다. ‘조선어’의 79%가 공립교, ‘한국조선어’의 76%가 공립교로 나타나는 등,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났다. 공립교가 ‘한글’ 50.0%, ‘조선어’ 23.4%인데에 비해, 사립은 ‘한국어’가 50.0%, ‘한글’이 26.1%였다. 대학 등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명칭보다 고등학교의 명칭이 사회일반의 경향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표21] 고등학교의 언어(과목)명: 1997-98년도

언어(과목)명	사립		공립		고등학교 전체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한글	12	26.1%	47	50.0%	59	42.1%
한국어	23	50.0%	11	11.7%	34	24.3%
조선어[a]	6	13.0%	22	23.4%	28	20.0%
한국조선어	4	8.7%	13	13.8%	17	12.1%
조선한국어	0		1	1.1%	1	0.7%
한국어(조선어)	1	2.2%	0		1	0.7%
합계	46	100.0%	94	100.0%	140	100.0%

주: 조사에 회답한 고등학교만 반영한다. a. 조선어1을 포함한다.

4. 한국어교원의 현 상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0년대 후반 이후 대학 등에 있어서 한국어교육은 상당한 기세로 확장되어 왔다. 문제는 많은 대학 등에 있어서, 한국어교육의 수요확대에 따른 제도적인 대응이 진척되었느냐는 점이다. 이하, 다각도에서 현 상황을 파악하여 한국어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4장에서는 4년제대학과 단기대학을 구별하여 다루지 않기로 한다. 사정이 다르다고는 하나, 양쪽에 걸쳐 복수의 기관에서 가르치는 교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과 단기대학간 이외에, 고등학교와 4년제대학 또는 단기대학 교원을 겸임하는 예도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대학 등과 고등학교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양자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대학 등의 교양교육(한국어 전문교육을 제외)과 고등학교 수업은 공통점이 많다고 여겨진다. 한국어교원이 대학 등과 고등학교에 걸쳐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양자간의 상황을 이해하는 관계자의 확대가 요망된다. 이하의 표에서는 본 조사로 확인한 한국어교육 개설 대학 중, 회답이 있었던 기관만을 집계한 것으로 항목에 따라 집계수가 다르다.

4-1. 모어 등으로 살펴본 대학 등의 교원구성

표22에서 표25까지를 보면, 회답이 있었던 대학 395교 중, 일본어가 모어인 교원이 266명, 한국어가 모어인 교원이 485명, 그 외 7명을 포함하여 총 758명이었다(410교 787명으로 추정). 한국어가 모어인 교원수는 일본어가 모어인 교원의 두 배이다. 언어학전공자는 회답이 있었던 대학에서 57명, 교원 전체에서 비율은 약 7%였다.

[표22] 일본어가 모어인 교원

명수	학교수	%	교원수	%
1	116	68.2%	116	43.6%
2	33	19.4%	66	24.8%
3	12	7.1%	36	13.5%
4	3	1.8%	12	4.5%
5	2	1.2%	10	3.8%
6	3	1.8%	18	6.8%
8	1	0.5%	8	3.0%
170	100.0%		266	100.0%

[표23] 한국어가 모어인 교원

명수	학교수	%	교원수	%
1	172	61.2%	172	35.5%
2	62	22.1%	124	25.6%
3	24	8.5%	72	14.8%
4	10	3.6%	40	8.2%
5	8	2.8%	40	8.2%
7	3	1.1%	21	4.3%
8	2	0.7%	16	3.3%
281	100.0%		485	100.0%

주: 일본어 또는 한국어가 모어인 교원의 대표적인 구성과 합계를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표24] 모어로 본 교원구성

학교수	%	일본어		한국어		그 밖의 언어		교원수 총계
		학교당(當)	교원수	학교당	교원수	학교당	교원수	
34	8.6%	0		0		0		0
2	0.5%	0		0		1	2	2
137	34.7%	0		1	137	0		137
2	0.5%	0		1	2	1	2	4
35	8.9%	0		2	70	0		70
1	0.3%	0		2	2	2	2	4
11	2.8%	0		3	33	0		33
3	0.8%	0		4	12	0		12
225					256		6	262
69	17.5%	1	69	0		0		69
1	0.3%	1	1	0	0	1	1	2
19	4.8%	1	19	1	19	0		38
15	3.8%	1	15	2	30	0		45
5	1.3%	1	5	3	15	0		20

3	0.8%	1	3	4	12	0	15
3	0.8%	1	3	5	15	0	18
1	0.3%	1	1	8	8	0	9
116			116		99		216
7	1.8%	2	14	0			14
12	3.0%	2	24	1	12		36
6	1.5%	2	12	2	12		24
4	1.0%	2	8	3	12		20
2	0.5%	2	4	4	8		12
2	0.5%	2	4	5	10		14
33			66		54		120
1	0.3%	3	3	0		0	3
2	0.5%	3	6	1	2		8
4	1.0%	3	12	2	8		20
3	0.8%	3	9	3	9		18
1	0.3%	3	3	4	4		7
1	0.3%	3	3	5	5		8
12			36		28		64
1	0.3%	4	4	2	2		6
1	0.3%	4	4	3	3		7
1	0.3%	4	4	4	4		8
3			12		9		21
1	0.3%	5	5	7	7		12
1	0.3%	5	5	8	8		13
2			10		15		25
1	0.3%	6	6	5	5		11
2	0.5%	6	12	7	14		26
3			18		19		37
1	0.3%	8	8	5	5		13
395	100.0%		266		485		758

주: 교원수 0이란 4년제대학과 단기대학, 방송대학의 강좌 청강 등에 의한 단위 인정을 말한다. 학교수 전체에 대한 교원 구성(일본어모어+한국어모어+기타언어가 모어인 자) 비율이 3%를 넘는 것에 한해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표25] 언어학전공자

인수	학교	수(%)	교원	수(%)
1	38	82.6%	38	66.7%
2	7	15.2%	14	24.6%
5	1	2.2%	5	8.8%
	46	100.0%	57	100.0%

주: 언어학전공 교원의 대표적인 구성과 합계를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직위(나중에 표시)와 모어 등으로 본 교원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어에 관한 회답이 직위의 해당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표24는 모어별 교원구성이다. 한국어모어 교원 1명이 담당하는 기관이 전체의 34.7%로 137명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일본어모어 교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곳이 69교로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한국어모어 교원이 2명인 곳은 35교로 8.9%, 일본어모어인 교원 1명과 한국어모어 교원 1명이 19교로 4.8%, 일본어모어 교원 1명에 한국어모어 교원 2명이 15교로 3.8%, 일본어모어 교원 2명에 한국어모어 교원 1명이 12교로 3.0%를 차지했다. 많은 강사가 복수의 대학 등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한 수의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1명이 평균 1.5대학 등에서 가르친다고 가정하면 약 520명(평균 2대학 등으로 추정하면 약 400명)이 된다.

4-2. 직위로 본 대학 등의 교원구성

한국어 전임교원과 비상근·겸임강사, 기간제강사의 구성은 표26과 같다. 전임을 두지않고 비상근강사 1명이 가르치는 학교가 189교로 47.8%, 전임이 없이 비상근강사 2명이 근무하는 학교가 44교로 11.1%를 차지했다. 전임 1명이 근무하는 학교는 42교로 10.6%, 전임과 비상근

II.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분석

강사가 각 1명씩 있는 곳이 20교로 5.1%, 전임 1명 비상근강사 2명이 17교로 4.3%를 차지했다.

[표26] 직위로 본 교원구성

학교수 합계	교원 구성 비율	전임교원		비상근강사		기간제강사		교원수 합계	%
		학교당	교원수	학교당	교원수	학교당	교원수		
3	0.8%	0		0		0			
2	0.5%	0				1	2		
1	0.3%	0				2	2		
189	47.8%	0		1	189				
44	11.1%	0		2	88				
14	3.5%	0		3	42				
10	2.5%	0		4	40				
1	0.3%	0		5	5				
1	0.3%	0		6	6				
2	0.5%	0		7	14				
1	0.3%	0		9	9				
268					393	4		397	49.7%
42	10.6%	1	42						
1	0.3%	1	1			1	1		
20	5.1%	1	20	1	20				
1	0.3%	1	1	1	1	1	1		
17	4.3%	1	17	2	34				
8	2.0%	1	8	3	24				
1	0.3%	1	1	3	3	1	1		
5	1.3%	1	5	4	20				
3	0.8%	1	3	5	15				
2	0.5%	1	2	6	12				
1	0.3%	1	1	8	8				
1	0.3%	1	1	12	12				
102			102		149	3		254	31.8%
3	0.8%	2	6						
1	0.3%	2	2			1	1		
5	1.3%	2	10	1	5				
1	0.3%	2	2	2	2	1	1		
1	0.3%	2	2	3	3				
3	0.8%	2	6	4	12				
1	0.3%	2	2	9	9				
1	0.3%	2	2	11	11				
1	0.3%	2	2	12	12				
17			34		54	2		90	11.3%
1	0.3%	3	3						
1	0.3%	3	3	1	1				
1	0.3%	3	3	2	2				
1	0.3%	3	3	3	3				
1	0.3%	3	3	5	5				
5			15		11			26	3.3%
1	0.3%	4	4	2	2			6	0.8%
1	0.3%	5	5	8	8		0	13	1.6%
1	0.3%	10	10	2	2	1	1	13	1.6%
395	100.0%		170		619	10		799	100.0%

주: 교원수 0이란 4년제대학과 단기대학, 방송대학의 강좌 청강 등에 의한 단위인정을 말한다. 학교수 전체에 대한 교원구성 비율이 3%를 넘는 것에 한해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표27에서 표29까지를 보면, 전임교원의 총인원은 170명, 비상근·전임강사는 619명, 기간제강사는 10명으로 전체 한국어교원수는 합계 799명이 된다. 이 항목에 관한 회답률 96.3%

(개설교 410교 중 회답이 온 395교)를 근거로 추정되는 교원의 총인원수는 830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원의 겸임 상황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확인된 범위 내에서 가장 많았던 것은 2교로, 3교 이상 근무도 약간있었다. 비상근·겸임강사의 겸임 기관수를 평균 2교로 추정하면 교원의 실제인원은 490명이 된다. [p. 43 참고]

[표27] 전임교원

학교당 명수	학교	수(%)	교원수
0	268	67.8%	0
1	102	25.8%	102
2	17	4.3%	34
3	5	1.3%	15
4	1	0.3%	4
5	1	0.3%	5
10	1	0.3%	10
	395	100.0%	170

[표28] 비상근, 겸임강사

학교당 명수	학교	수(%)	교원수
0	54	13.7%	0
1	216	54.7%	216
2	65	16.5%	130
3	25	6.3%	75
4	18	4.6%	72
5	5	1.3%	25
6	3	0.8%	18
7	2	0.5%	14
8	2	0.5%	16
9	2	0.5%	18
11	1	0.3%	11
12	2	0.5%	24
	395	100.0%	619

[표29] 기간제강사

학교당 명수	학교	수(%)	교원수
0	27	75.0%	0
1	8	22.2%	8
2	1	2.8%	2
	36	100.0%	10

주: 굵은 글씨는 각 직위교원수의 최대치와 합계를 나타낸다(0은 제외함)

4-3. 대학의 교직과정과 한국어교원면허

2003년도 현재, 한국어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대학은 표30에 제시한 바와 같다. 언어 명칭은 조선어(3), 한국어(4)로 합계 7개 대학에 한국어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단, 한국어 교원면허를 취득하더라도 고등학교교사로서 취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영어 등의 교원면허와 함께 복수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표30] 한국어교직과정이 있는 대학

언어명	대학명 (*국립)	취득 가능한 교원면허, 관련사항 등
조선어	*도쿄외국어대학	중학교 1종, 고등학교 1종
	*오사카외국어대학	중학교 1종, 고등학교 1종
	후쿠오카대학	중학교 1종, 고등학교 1종
한국어	간다외어대학	고등학교 1종, 영어 중·고등학교 1종 교원면허 같이 취득 2001-03년 한국어특별강좌를 개강
	도쿄세이토쿠대학	중학교 1종, 고등학교 1종
	구마모토가쿠엔대학	고등학교 1종
	덴리대학[a]	중학교 1종, 고등학교 1종, 2002년까지는 조선어 2001-02년 조선어 교원면허 취득강좌를 개강

주: 상기 대학 외에 2004년 이후 사립과 공립 각 1개교가 한국어의 교직과정 도입을 검토중이다.

a. 2003년부터 코스명은 '한국·조선어'이다.

2001년부터 2003년에 걸쳐 덴리대학과 간다외어대학이 한국어교원면허 취득을 위한 하기 집중강좌를 개설했다. 국어나 사회과 등의 교원면허를 가진 고등학교교사가 수강했다. 한국어 교원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단위를 이수하기 위한 강좌로, 덴리대학 수강자 30여명 중 약 20명이 한국어교원면허를 취득했다. 2002년도 간다외어대학의 수강자 20여명 중 약 15명이 2003년도 말까지 조선어 또는 한국어교원면허를 취득했다. 새로운 한국어교원면허 취득자 약 35명이 두 대학에서 열린 강좌를 통해 일본 전역에 배출되었다는 사실은 의의 깊은 일이다.

4-4. 한국어교원면허에 관한 문제

고등학교교원면허를 수여하는 각 지방의 교육위원회 일부가 ‘한국어’와 ‘조선어’를 다른 과목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교원면허 신청에 있어서, A대학에서 이수한 ‘조선어’ 과목과 B대학에서 이수한 ‘한국어’ 단위의 합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조선어’ 관련 단위끼리, ‘한국어’ 관련 단위끼리의 이수단위수는 합산이 가능하나, ‘조선어’와 ‘한국어’를 같은 언어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단위를 합산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등과 고등학교에 있어서 한국어과목명은 다양하고 도입 시기에 따라서 ‘조선어’가 많거나 ‘한국어’가 많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초급과 중급 과정에서 가르치는 언어는 명칭에 관계없이 한국의 서울지역 표준어이다.

과목명이 ‘조선어’라고 해서 북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관련 이수 단위와 일부 ‘조선어’ 과목이 합산될 수 없다는 교원면허 취득에 관련한 해석은 실태와 동떨어진 행위이며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표31] 고등학교교사의 한국어교원면허 보유: 1997년도

면허 과목과 종류	교원수	%	교원수	%
조선어[a]			타교과	
조선어	11		영어	7
조선어+ 영어	5		국어	4
조선어+ 기타	3		음악	3
	19[i]	37.3%	상업	2
임시면허[b]			사회+ 기타	2
임시면허	6		농업	2
영어+ 임시면허	2		기타	4
	8[ii]	15.7%		
			24[iii]	47.10%
			합계 [i+ ii+ iii]	51
				100.0%

주: TJF 조사(1999). a. 교원면허 과목명은 조선어이다. b. 임시면허 과목명은 교육위원회에 따라 다르다.

표31에 고등학교 한국어교육 교원면허에 관한 1997년도 상황을 제시했다. 여기에 덴리대학교 간다외어대학 강좌를 통해 한국어교원면허를 취득한 교사를 더하더라도, 2003년도 말까지 한국어교원면허를 갖고 있는 고등학교교사는 전국에 55명 정도 밖에 없다. (임시면허는 제외함).

표31은 응답자의 교원면허 보유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일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가 같은 비율로 면허를 취득하고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미응답자 중, 미취득자가 많을 것으로 추측됨). 한국어 고등학교교사의 겸임 학교수가 1.5교라 볼 때, 전국 교사수는 약 150명으로 추정된다. 55명이 한국어교원면허를 보유한다 해도, 일본 내 한국어교사 중, 한국어교원면허를 가진 자의 비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신설 종합고등학교에서 학교설정 과목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수업은 한국어교원면허를 갖고있지 않더라도 담당할 수가 있다. [p. 36 참조]

다른 외국어수업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경우도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한국어교원면허를 가진 사람이 학교에 없다는 이유로 한국어수업을 실시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제도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

5. 이수형태와 이수자수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 이수형태와 과목수 등을 살펴보자. 모든 대학 등에서 회답이 온 것이 아니므로, 이수자수는 추정치로 제시했다. 2003년도 고등학교의 한국어 이수자수를 10이라 할 때,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와 4년제대학의 이수자수 비율은 10:4:134 이다.

5-1. 대학 등의 이수형태

이수기간과 형태는 표32, 표33과 같다. 4년제대학에서는 전기, 후기, 1년간 선택이 가장 많았고 선택필수가 그 다음이었다. 필수인 경우는 1-2년차 이수라하더라도 한국어 전문과정에 포함시켰다. 단기대학에서는 선택의 비율이 4년제보다 높았고, 단기대학의 회답내용에서는 필수가 보이지 않았다. 4년제대학의 한국어 전문과정과 이에 준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학생을 제외한 일반학생의 대다수는 선택 또는 선택필수로 이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이수기간과 형태: 4년제대학

이수기간	이수형태	이수 연차(4년제)별 학교수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전기	필수	5	1.0%	6	0.9%	0		0	
	선택필수	63	12.2%	66	9.4%	48	7.2%	45	7.0%
	선택	92	17.8%	155	22.2%	174	25.9%	174	27.0%
후기	필수	6	1.2%	2	0.3%	0		0	
	선택필수	65	12.6%	64	9.2%	48	7.2%	41	6.4%
	선택	98	19.0%	154	22.0%	176	26.2%	173	26.9%
1년간	필수	1	0.2%	1	0.1%	0		1	0.2%
	선택필수	49	9.5%	60	8.6%	33	4.9%	33	5.1%
	선택	59	11.4%	104	14.9%	110	16.4%	102	15.8%
기타	필수	8	1.5%	8	1.1%	6	0.9%	3	0.5%
	선택필수	25	4.8%	18	2.6%	8	1.2%	8	1.2%
	선택	46	8.9%	61	8.7%	68	10.1%	64	9.9%
		517	100.0%	699	100.0%	671	100.0%	644	100.0%

주: 굵은 글씨는 전기, 후기, 1년간, 기타 각 항목의 최대치이다

[표 33] 이수기간과 형태: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이수기간	이수형태	이수연차(단대 및 기타)별 학교수				이수연차(단대 제외)별 학교수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전기	필수	0		0		0		0	
	선택필수	9	9.7%	8	9.3%	1	10.0%	1	14.3%
	선택	22	23.7%	21	24.4%	4	40.0%	2	28.6%
후기	필수	0		0		0		0	
	선택필수	11	11.8%	5	5.8%	0		0	
	선택	17	18.3%	22	25.6%	0		0	
1년간	필수	0		0		0		0	
	선택필수	14	15.1%	8	9.3%	0		0	
	선택	14	15.1%	17	19.8%	3	30.0%	2	28.6%
기타	필수	0		0		0		0	
	선택필수	1	1.1%	1	1.2%	1	10.0%	1	14.3%
	선택	5	5.4%	4	4.7%	1	10.0%	1	14.3%
		93	100.0%	86	100.0%	10	100.0%	7	100.0%

주: 굵은 글씨는 전기, 후기, 1년간, 기타 각 항목의 최대치이다.

II.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분석

[표 34] 4년제대학의 과목수와 이수자수(회답한 대학만을 반영)

회답한 대학	과목수	과목수 합계	이수 자수	이수자 수 합계	이수자수 /과목	회답한 대학	과목수	과목수 합계	이수 자수	이수자 수 합계	이수자수 /과목
1	20	20		3664	183.2	3	2, 4, 5	11	150	450	40.9
1	28	28		2098	74.9	2	1, 2	3	140	280	93.3
1	5	5		2053	410.6	2	2, 5	7	131	262	37.4
1	6	6		1901	316.8	1	8	8		130	16.3
1	26	26		1773	68.2	4	1, 2, 4, 5	12	130	520	43.3
1	18	18		1091	60.6	1	4	4		122	30.5
1	5	5		910	182.0	1	2	2		120	60.0
1	39	39		860	22.1	1	3	3		118	39.3
1	11	11		745	67.7	1	4	4		117	29.3
1	13	13		724	55.7	2	3, 4	7	115	230	
1	24	24		697	29.0	1	10	10		114	32.9
1	20	20		640	32.0	2	4, 5	9	113	226	11.4
1	5	5		530	106.0	1	2	2		108	25.1
1	4	4		480	120.0	1	1	1		104	104.0
1	6	6		436	72.7	5	1, 2*2, 4*2	13	100	500	38.5
1	4	4		398	99.5	1	6	6		98	16.3
1	10	10		394	39.4	1	2	2		96	48.0
1	5	5		360	72.0	1	2	2		95	47.5
1	11	11		343	31.2	1	1	1		85	85.0
1	5	5		340	68.0	1	4	4		82	20.5
1	7	7		325	46.4	5	1*2, 2*2, 4	10	80	400	40.0
1	2	2		300	150.0	1	2	2		79	39.5
1	9	9		297	33.0	1	4	4		76	19.0
1	2	2		290	145.0	1	5	5		75	15.0
2	6, 11	17	284	568	33.4	1	10	10		72	7.2
1	5	5		275	55.0	3	1*2, 3	5	70	210	42.0
1	9	9		265	29.4	1	2	2		69	34.5
1	4	4		260	65.0	1	2	2		68	34.0
1	1	1		250	250.0	3	1, 2, 4	7	66	198	28.3
1	10	10		235	23.5	1	2	2		65	32.5
2	1, 2	3	230	460	153.3	2	2, 3	5	60	120	24.0
1	1	1		226	226.0	1	2	2		58	29.0
2	2	4	220	440	110.0	1	1	1		52	52.0
1	1	1		212	212.0	3	1	3	50	150	50.0
1	3	3		206	68.7	2	2	4	48	96	24.0
1	4	4		203	50.8	1	2	2		47	23.5
1	1	1		200	200.0	1	2	2		46	23.0
1	7	7		199	28.4	3	1*2, 2	4	40	120	30.0
1	8	8		194	24.3	2	1, 31	32	35	70	2.2
1	1	1		190	190.0	1	2	2		34	17.0
1	2	2		180	90.0	2	1	2	30	60	30.0
1	3	3		171	57.0	4	1*3, 2	5	20	80	16.0
1	2	2		170	85.0	1	2	2		15	7.5
1	1	1		169	169.0	1	1	1		10	10.0
1	3	3		165	55.0	2	1	2	8	16	8.0
1	4	4		161	40.3	1	1	1		6	6.0
1	5	5		160	32.0	2	2, 4	6	4	8	1.3
1	2	2		157	78.5						
						132		622		33,522	53.9

주: 회답한 대학 중에 일부 과목만 이수자수를 기입한 학교가 있다. 이수자수는 총인원수이다.

5-2. 대학 등의 이수자수

앞 페이지 표34에서 제시한 4년제대학 중 회답이 있었던 대학 132교에 관한 수치를 자료로, 4년제대학 이수자수의 총합계(1명의 학생이 2과목 이상의 과목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한 총인원)를 추정하면 약 85,000명이다(학교당 평균 이수자수 254.0×4년제대학 한국어개설교 335 = 85,075). 학교당 평균 과목수는 4.7과목, 과목당 평균 이수자수는 53.9이다.

전기와 후기를 연결 이수라 보고(실제 거의 같은 수), 1년간과 그 외 이수가 연결 이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한국어학습자의 실제수는 57,000명, 학생 1인당 평균 이수과목을 2과목으로 간주하면 42,500명이 된다. 이 수치를 기초로 4만명 내지 5만명으로 추정한다.

한국어이수자수는 꾸준히 늘고있다. 1995년 조사에서는 16,988명(총인원수라고 생각됨. 143교)이었다. 여러 대학 등에서 한국어수강자수가 2002-04년의 3년 동안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학교수의 증가가 2.3배이므로 1995년의 수치를 총인원수로 본다면 약 5배가 늘어난 것이다.

대학 등의 이수자수 분포를 표35에 나타냈다. 4년제대학 132교 중, 과목당 평균 이수자수가 100명이 넘는 대학이 17교(13%)이고, 6교에서는 200명(5%)이 넘는다. 평균 이수자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대학은 24교(18%)였다. 평균 이수자수가 50명 이상의 대학이 31%였다. 대교실에서의 수업풍경이 연상된다.

표36에서 집계한 단기대학 중 회답이 있었던 18교의 수치를 자료로 단기대학 이수자수를 추정하면 약 2,400명이 된다(학교당 평균 이수자수 34.8×단기대학의 한국어개설교 69 = 2,401). 학교당 평균 과목수는 2.3과목, 과목당 평균 이수자수는 34.8이다. 평균 이수자수가 50명 이상의 대학은 6교(33%)이며 4년제와 마찬가지로 과목당 학생수는 많다. 4년제대학과 마찬가지로 한국어학습자의 실제수는 추측할 수 밖에 없다. 평균 이수과목수가 1.5과목이라 보면 1,600명, 2과목이라면 1,200명이 된다. 고등학교 이수자보다 낮은 실정이다. 단기대학 한국어 학습자는 1995년 조사에서 2,106명(총인원수라고 생각됨. 42교)이었다. 8년간을 볼 때 4년제 대학 만큼은 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학개편으로 인한 단기대학의 감소현상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표 35] 대학 등의 이수자수 분포

과목당 이수자수	4년제대학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대학 등 전체	
	과목수	이수자수	과목수	이수자수	과목수	이수자수
1-5	70	257	0	0	70	257
6-10	65	563	2	14	67	577
11-15	40	544	4	47	44	591
16-20	73	1382	4	78	77	1460
21-25	34	786	2	48	36	834
26-30	43	1253	2	60	45	1313
31-35	27	888		431	40	1319
36-40	34	1322		0	34	1322
41-45	14	591		0	14	591
46-50	30	1467	2	100	32	1567
51-55	8	421		0	8	421
56-60	26	1528	3	180	29	1708
61-65	3	187	1	61	4	248
66-70	12	830		0	12	830
71-75	4	293		0	4	293
76-80	13	1030		0	13	1030
81-85	7	574	2	162	9	736
86-90	7	623	2	180	9	803
91-95	2	188		0	2	188
96-100	5	498	1	100	6	598

II.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분석

101-105	3	308	0	3	308	
106-110	3	323	0	3	323	
111-115	6	685	0	6	685	
116-120	10	1200	0	10	1200	
121-125	1	124	0	1	124	
126-130	1	130	0	1	130	
136-140	1	140	0	1	140	
141-145	2	290	0	2	290	
146-150	4	595	0	4	595	
151-155	1	155	0	1	155	
156-160	3	470	0	3	470	
166-170	1	169	0	1	169	
171-175	2	347	0	2	347	
176-180	2	357	0	2	357	
186-190	3	568	0	3	568	
196-200	4	800	0	4	800	
211-215	1	212	0	1	212	
216-220	2	440	0	2	440	
221-225	1	221	0	1	221	
226-230	4	916	0	4	916	
236-240	1	239	0	1	239	
246-250	1	250	0	1	250	
286-290	2	573	0	2	573	
296-300	1	300	1	300	2	600
336-340	1	340	0	1	340	
376-380	1	380	0	1	380	
436-440	1	437	0	1	437	
441-445	1	444	0	4	444	
471-475	1	475	0	1	475	
481-485	1	483	0	1	483	
496-500	2	992	0	2	992	
511-515	1	514	0	1	514	
576-580	1	579	0	1	579	
861-865	1	863	0	1	863	
921-925	1	925	0	1	925	
1021-1025	1	1022	0	1	1022	
1031-1035	1	1031	0	1	1031	
1296-1300	0	0	1	1300	1	1300
591		33,522	40	3,061	634	36,583

주: 과목당 이수자수가 많은 것은 대학 전체의 합계와 방송대학 등이다. 이수자수의 기입이 없는 것(커리큘럼 상에는 있으나 개강 안됨)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수자수가 전후 연속되지 않는 행은 4년제대학,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표 36]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과목수와 이수자수

회답한 대학	과목수	이수자수	이수자수/과목	회답한 대학	과목수	이수자수	이수자수/과목
1	12	330	27.5	1	2	50	25.0
1	2	180	90.0	1	1	35	35.0
1	2	162	81.0	1	1	30	30.0
1	2	120	60.0	1	2	29	14.5
1	1	100	100.0	1	1	25	25.0
1	2	100	50.0	1	1	20	20.0
1	4	90	22.5	1	1	20	20.0
1	5	87	17.4	1	1	12	12.0
1	1	60	60.0	1	1	11	11.0
18		42	1,461	34.8			

주: 방송대학 이수자수는 2 과목인 경우 1600명이다. 일반 대학과 형태가 다르므로 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5-3. 고등학교의 이수형태와 이수자수

한국어이수자수는 총인원수를 지표로 한 것으로, 학습자가 한국어학습에 소비하는 시간수를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실제수를 파악하는 의미도 크다. 표38(p. 52)에 게재된 고등학교 한국어 이수자도 총인원수이다.

고등학교에 관해서는 2001년과 2003년의 이수자수(총인원수)를 비교할 수 있다. 대학 등과는 달리, 각 지방별로 살펴보는 것이 실태파악이 용이하다. 일본전역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이수자수(총인원수)는 5,115명에서 6,345명으로 24% 증가했다. 고등학교 한국어개설교의 2001년도 이수자수를 참고로 이수자수를 추정하면 이수자의 20% 안팎이 2과목 이상 이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이수과목수를 1.2라 상정하면 학습자는 4,300명과 5,300명이 된다. 단, 제Ⅲ부 (p. J110)의 합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지방별로 살펴보면 증가한 지역만 있는 것도 아니다. 감소경향 지역이 12지역 존재한다. 출산율의 감소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교나 지역의 연도에 따른 증감현상은 고등학교가 변화가 크다. 2001-03년까지 한국어개설교가 없었던 지역은 아오모리현, 이바라키현, 시즈오카현, 후쿠이현, 도쿠시마현으로 6개 지역이다. 후쿠이현에는 과거(1994-97년도)에 한국어전문코스를 가진 학교가 있었다. 그 뒤 보통과(普通科)에서 개설되었으나, 2001년과 2003년에는 실시하지 않은 것 같다.

이수형태

선택 또는 선택필수가 많다는 것은 대학 등과 마찬가지로. 단, 대학 등과 비교하여 개설교의 비율이 낮고(약 4%), 제도로써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과목수와 이수자수의 증감을 초래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등에 비하여 개개인의 교사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부분이 크다. 예를 들면, 한국어담당교사가 전근을 하게 되면 수업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1997-98년도 고등학교 이수형태를 표37에 정리했다.

[표 37] 고등학교의 이수형태: 1997-98 년도

이수형태	공립	사립	합계	(%)
자유선택	54	13	67	53.2
필수선택	33	9	42	33.3
필수	3	9	12	9.5
필수선택+자유선택	1	-	1	0.8
필수+필수선택	-	1	1	0.8
기타[a]	2	1	3	2.4
합계	93	33	126	100

주: 같은 학교 복수 학과일 경우 중복이 된다. a. 필수+자유선택, 필수+필수선택+자유선택

일본 학교교육 속의 외국어교육

한국어판 독자의 이해를 위해 일본의 고등학교와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외국어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덧붙이고자 한다. 일본의 고등학교에서는 한국과 같은 제 2 외국어라는 과목설정이 없다.

표 37 과 같은 이수형태로써, 각각 고등학교의 의향에 따라 설치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한편, 일본의 대학 등의 대부분은 제 2 외국어를 필수로 하고 있다. 일본의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 있어서의 이수자수의 비율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한국의 한국어교육 관계자나 매스미디어 관계자가 일본의 한국어교육 상황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 한다. 한국의 외국어교육 제도가 일본보다 충실하다고 할 수도 있다.

[표 38] 고등학교의 이수자수: 2001-03 년도

지방	개설 실적이 있는 학교	2001년 또는 2003년 개설교			지방별 이수자수		
		사립	공립	합계	2001년	±	2003년
홋카이도	5	1	2	3	75	>	6
아오모리	0				0		0
이와테	3	1	2	3	56	>	7
미야기	4	3	0	3	34	<	67
아키타	2	0	2	2	0	<	51
야마가타	5	4	1	5	541	>	347
후쿠시마	2	0	1	1	0	<	22
이바라키	0				0		0
도치기	0				0		0
군마	2	0	1	1	20	>	0
사이타마	5	5	0	5	103	<	116
지바	4	3	1	4	95	<	122
도쿄	29	10	7	17	185	<	361
가나가와	24	4	10	14	132	<	165
니가타	4	1	3	4	75	<	106
야마나시	2	0	2	2	3	<	38
나가노	7	0	5	5	64	>	38
도야마	3	0	1	1	27	<	36
이시카와	7	0	7	7	18	<	139
후쿠이	2	0	0	0	0		0
기후	1	0	1	1	0	<	23
시즈오카	0				0		0
아이치	4	1	1	2	19	<	55
미에	5	1	4	5	33	<	364
시가	7	0	5	5	52	<	64
교토	7	3	1	4	81	>	68
오사카	49	7	30	37	1,124	<	1,368
효고	22	5	16	21	314	<	633
나라	3	1	2	3	49	<	63
와카야마	4	1	3	4	73	<	99
돗토리	9	1	7	8	188	>	170
시마네	4	1	3	4	109	>	60
오카야마	4	1	3	4	139	>	129
히로시마	26	3	14	17	254	<	405
야마구치	6	1	4	5	45	<	104
도쿠시마	0				0		0
가가와	1	1	0	1	160	>	0
에히메	2	0	2	2	5	<	26
고치	1	0	1	1	4	<	38
후쿠오카	13	6	5	11	109	<	264
사가	6	0	4	4	293	>	223
나가사키	3	0	2	2	41	>	23
구마모토	5	2	2	4	308	>	112
오이타	9	1	5	6	107	<	111
미야자키	6	2	4	6	80	<	133
가고시마	2	0	2	2	74	<	119
오кина와	2	0	2	2	26	<	70
일본전국	311	70	168	238	5,115	<	6,345

주: 학교수에는 포함되나 이수자수를 표기하지 않은 학교가 있다. 실제 이수자수는 수치보다 많다. 이수자수가 중복되며 다루는 방식이 다르므로, 표 6의 이수자수와 제Ⅲ부(p. J110)의 합계는 일치하지 않는다.

6. 대학 등의 수업내용과 운영형태

6-1. 대학 등의 학습레벨

조사결과는 응답자(대부분 한국어담당자)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한국어과목의 학습레벨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선행조사가 이러한 구분으로 조사하였던 점을 참고로 본 조사에서도 집계를 했다.

표39의 대학 등의 전체를 보면 4년제대학에서는 중급과 초급이 많았고 입문이 그 다음이었다. 단기대학은 초급이 과반수 이상이고 다음이 입문이었다. 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 외에 입문·초급, 입문·초급·중급, 초급·중급, 초중급, 중·상급이라고 회답한 학교도 있었다.

표40의 4년제대학 중 국립에서는 중급이 과반수를 넘고 다음이 초급이었다. 공립은 초급이 과반수를 넘고 다음으로 입문이 많았고 중급 이상은 없었다. 사립에서는 초급이 가장 많았고 입문과 중급순이었다. 상급이 15.1%, 전문이 10.0%인 것은 전문과정으로 생각된다. 국립대학에서 상급과 전문이 적은 것은 회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표41의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에서는 회답이 있었던 공립이 모두 초급이었다. 사립에서는 초급이 약 반수, 입문이 그 뒤를 잇고 중급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이라는 회답은 없었다.

[표 39] 학습레벨: 대학 등 전체

학습레벨	과목수(%)		4년제(%)		단기대(%)		고등전문 및 그 외(%)	
입문	149	22.2%	134	21.6%	14	29.2%	1	100.0%
초급	215	32.1%	188	30.3%	27	56.3%		
중급	205	30.6%	199	32.0%	6	12.5%		
상급	62	9.3%	61	9.8%	1	2.1%		
전문	39	5.8%	39	6.3%	0	0.0%		
합계	670	100.0%	621	100.0%	48	100.0%	1	100.0%

주: 굵은 글씨는 학습레벨의 최대치와 근사치를 표시했다.

[표40] 학습레벨: 4년제대학

학습레벨	과목수		국립(%)		공립(%)		사립(%)	
입문	134	31	15.7%	14	41.2%	89	22.8%	
초급	188	52	26.4%	20	58.8%	116	29.7%	
중급	199	112	56.9%	0	0.0%	87	22.3%	
상급	61	2	1.0%	0	0.0%	59	15.1%	
전문	39	0	0.0%	0	0.0%	39	10.0%	
합계	621	197	100.0%	34	100.0%	390	100.0%	

주: 굵은 글씨는 학습레벨의 최대치와 근사치를 표시했다.

[표41] 학습레벨: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학습레벨	과목수		공립(%)		사립(%)		고등전문 및 그 외	
입문	15	0	0.0%	14	35.9%	1		
초급	27	9	100.0%	18	46.2%	0		
중급	6	0	0.0%	6	15.4%	0		
상급	1	0	0.0%	1	2.6%	0		
합계	49	9	100.0%	39	100.0%	1		

주: 굵은 글씨는 학습레벨의 최대치와 근사치를 표시했다.

6-2. 대학 등의 단위수와 강의시간수

표42, 표43에 4년제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 단위수와 주당 강의시간수를 제시했다. 4년제 대학의 약 60%의 과목 단위수가 2단위로, 국립·사립 모두 같은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1단위였다. 공립에서는 1단위가 과반수였고 2 단위가 그 다음이었다. 주당 강의시간수는 가장 많은 것이 주 1시간으로 4년제대학 전체의 74.5%였다. 특히 국립은 84.5%에 달했다.

[표42] 과목당 단위수: 4년제대학

단위수	과목수(%)		국립(%)		공립(%)		사립(%)		기타
1	468	34.9%	110	34.7%	66	52.0%	292	32.7%	
2	770	57.4%	184	58.0%	56	44.1%	527	58.9%	3
4	103	7.7%	23	7.3%	5	3.9%	75	8.4%	
	1341	100.0%	317	100.0%	127	100.0%	894	100.0%	3

주: 굵은 글씨는 학습레벨의 최대치와 근사치를 표시했다.

[표 43] 주당 강의시간수: 4년제대학

주당 단위수	과목수(%)		국립(%)		공립(%)		사립(%)		기타
1	917	74.5%	240	84.5%	82	77.4%	595	71.0%	
2	280	22.7%	36	12.7%	23	21.7%	218	26.0%	3
3	10	0.8%	2	0.7%			8	1.0%	
4	22	1.8%	6	2.1%			16	1.9%	
5	2	0.2%			1	0.9%	1	0.1%	
	1231	100.0%	284	100.0%	106	100.0%	838	100.0%	1

주: 굵은 글씨는 학습레벨의 최대치와 근사치를 표시했다.

표44, 표45에 단기대학 및 그 외에 있어서의 한국어교육 단위수와 주당 강의시간수를 표시했다.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에서는 1단위와 2단위가 거의 같은 수였고 공립에서는 75.0%가 2단위, 사립에서는 52.9%가 1단위였다. 고등전문학교에서 응답이 있었던 곳은 2교 뿐이었으나, 단위수는 4단위가 많았다. 주당 강의시간수는 가장 많은 것이 주 1시간으로,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전체수의 83.2%였다. 특히 사립에서는 84.9%에 달했다.

[표 44] 과목당 단위수: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단위수	과목수(%)		공립(%)		사립(%)		고등전문(%)		기타
1	65	45.5%	2	12.5%	63	52.9%	0	0.0%	
2	65	45.5%	12	75.0%	50	42.0%	1	25.0%	2
4	13	9.1%	2	12.5%	6	5.0%	3	75.0%	2
	143	100.0%	16	100.0%	119	100.0%	4	100.0%	4

주: 굵은 글씨는 학습레벨의 최대치와 근사치를 표시했다.

[표 45] 주당 강의시간수: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주당 강의시간수	과목수(%)		공립(%)		사립(%)		고등전문(%)		기타
1	104	83.2%	12	70.6%	90	84.9%	1	100.0%	1
2	21	16.8%	5	29.4%	16	15.1%	0	0%	
	125	100.0%	17	100.0%	106	100.0%	1	100.0%	1

주: 굵은 글씨는 학습레벨의 최대치와 근사치를 표시했다.

6-3. 대학 등의 강의내용

표46에서 표48까지를 보면, 4년제, 단기대학 모두 문법과 회화를 중심으로 한 강의내용이 가장 많아 40%에 달한다.

[표 46] 강의내용: 대학 등 전체

강의내용	과목수(%)		4년제(%)		단대 및 그 외(%)	
문법	62	11.7%	56	11.5%	6	14.3%
독해[a]	27	5.1%	26	5.3%	1	2.4%
문법·독해[b]	65	12.3%	61	12.6%	4	9.5%
회화	89	16.9%	75	15.4%	14	33.3%
문법·회화[c]	220	41.7%	203	41.8%	17	40.5%
강독[d]	65	12.3%	65	13.4%	0	0.0%
합계	528	100.0%	486	100.0%	42	100.0%

주: 굵은 글씨는 강의내용의 최대치이다.

- a. 회화·강독 b. 독해·작문 | 회화와 문화적인 배경 등을 학습
- c. 한국어학 | 문법·회화, 한국어학 | 문법·회화, 독해·회화·문법, 작문 | 문법·회화, 독해·작문·회화 | 독해·문법·회화·강독 | 문법·회화, 한국어소설 강독 | 문법·독해·회화
- d. 강독 | 작문·회화 | 문법·강독·회화·작문

[표 47] 강의내용: 4년제대학

강의내용	과목수	국립(%)		공립(%)		사립(%)	
문법	56	14	9.9%	7	21.9%	35	11.2%
독해	26	7	4.9%	1	3.1%	18	5.8%
문법·독해	61	20	14.1%	5	15.6%	36	11.5%
회화	75	27	19.0%	3	9.4%	45	14.4%
문법·회화	203	53	37.3%	15	46.9%	135	43.3%
강독	65	21	14.8%	1	3.1%	43	13.8%
합계	486	142	100.0%	32	100.0%	312	100.0%

주: 굵은 글씨는 강의내용의 최대치이다.

[표48] 강의내용: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강의내용	과목수	공립(%)		사립(%)		고등전문및 그 외
문법	6	2	22.2%	4	12.9%	
독해	1	0	0.0%	1	3.2%	
문법·독해	4	1	11.1%	3	9.7%	
회화	14	3	33.3%	10	32.3%	1
문법·회화	17	3	33.3%	13	41.9%	1
강독	0	0	0.0%	0	0.0%	
합계	42	9	100.0%	31	100.0%	2

주: 굵은 글씨는 강의내용의 최대치이다.

표46에서 표 48까지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항목으로써 4년제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답이 있었다.
 세미나 형식의 발표 | 문법 | 회화·독해(2) | 언어와 문화와 사회(3) | 언어와 문화와 사회와 역사(2) | 강의(8) | 독해·회화(2) | 작문(6) | 작문·회화 | 졸업논문 세미나 | 청해(3) | 독해·회화(3) | 발음 | 발표연습 | 문자와 발음 | 문자와 발음이 중심, 문화도 다룬다 | 문법·독해·회화(2) | 문법·회화, 한국문화의 소개·한일문화비교 | 문법·회화·작문·청해(2) | 문법·회화·청해(4) | 문법·회화·청해·강독(2) | 문법·회화·문화·역사 | 문법·강독 | 문법·작문·회화(3) | 문법·독해·회화·작문·문화를 종합적으로(4) | 문법·독해·회화·문화 | 문법과 검정시험대책 모의시험 | 방송대학시청(2) | 일한대조번역과 대조언어학
 단기대학의 기타 항목은 문자와 발음 | 언어와 문화와 사회 | 언어와 문화와 사회와 역사 | 이다.

6-4. 대학 등에서의 한국어의 위치

본 조사대상은 한국어교육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 등이다. 개설교에 있어서 한국어교육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수 가능한 학부 범위와 졸업단위의 인정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자.

표49, 표50에 4년제와 단기대학에 있어서 한국어의 위치를 학습 가능한 학부의 범위와 졸업단위(학점)와의 관계를 통해 알아 보았다. 전체학부(코스)에서 이수 가능하고 전부 졸업단위로 인정하는 기관이 가장 많았다.

4년제 전체의 68.4%(국립 69.0%, 공립 76.5%, 사립 67.1%)가 전체학부에서 이수가 가능하고 전부 졸업단위로 인정하고 있다. 전체학부에서 이수 가능하고 일부만을 졸업단위로 인정하는 기관을 더하면, 한국어를 개설하고 있는 4년제대학의 75%가 전체학부에서 한국어를 개설하고 있다.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의 64.6%(공립 71.4%, 사립 62.1%)가 전체학부에서 이수 가능하며 전부를 졸업단위로써 인정하고 있다. 일부만을 졸업단위로 인정하는 기관은 없다.

같은 계열하의 4년제대학과 단기대학 사이에서 상호간의 단위를 인정하는 기관이 있다. 방송대학의 한국어강좌를 이수하면 이수단위를 인정하는 기관도 눈에 띈다.

[표 49] 한국어교육의 위치: 4년제대학

	합계(%)		국립(%)		공립(%)		사립(%)		기타
전체학부(코스)에서 이수 가능하고 모두 졸업단위로 인정한다	238	68.4%	40	69.0%	26	76.5%	171	67.1%	1
전체학부에서 이수 가능하나 일부만 졸업단위로 인정한다	23	6.6%	3	5.2%	3	8.5%	17	6.7%	
전체학부에서 이수 가능하나 졸업단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5	1.4%	2	3.4%	0		3	1.2%	
일부 학부에서 이수 가능하고, 모두 또는 일부를 졸업단위로 인정한다	78	22.4%	13	22.4%	5	14.7%	60	23.5%	
일부 학부에서 이수 가능하나, 졸업 단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2	0.6%	0		0		2	0.8%	
가까운 장래에 이수가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2	0.6%	0		0		2	0.8%	
합계	348	100.0%	58	100.0%	34	100.0%	255	100.0%	1

주: 굵은 글씨는 한국어 위치의 최대치와 다음 항목을 가리킨다

[표50] 한국어교육의 위치: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합계(%)		공립(%)		사립(%)		고등전문(%)		기타
전체학부(코스)에서 이수 가능하고 모두 졸업단위로 인정한다	51	64.6%	5	71.4%	41	62.1%	1	50.0%	4
전체학부에서 이수 가능하고 일부만 졸업단위로 인정한다	0		0		0		0		
전체학부에서 이수 가능하나 졸업단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6	7.6%	0	0.0%	6	9.1%	0	0.0%	
일부 학부에서 이수 가능하고 모두 또는 일부를 졸업단위로 인정한다	13	16.5%	2	28.6%	10	15.2%	1	50.0%	
일부 학부에서 이수 가능하나 졸업 단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4	5.1%	0		4	6.1%	0	0.0%	
가까운 장래에 이수가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5	6.3%	0		5	7.6%	0	0.0%	
합계	79	100.0%	7	100.0%	66	100.0%	2	100.0%	4

주: 굵은 글씨는 한국어 위치의 최대치와 다음 항목을 가리킨다

6-5. 4년제대학의 운영형태

표51과 표52에서는 4년제대학의 한국어 운영형태를 나타냈다. 학교전체에서 운영·관리하는 센터방식이 가장 많아 4년제대학 전체의 60.5%를 차지한다. 사립보다 국립이 10포인트 이상 높다. 다음이 학부별 운영·관리방식으로 4년제대학 전체의 31.8%를 차지한다. 센터방식과는 달리, 학부별인 경우는 사립이 35.5%, 공립 29.0%, 국립 16.7%로써 사립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이면 운영형태에 관해서 1-2학년과 3-4학년에서 특별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표 51] 운영형태: 4년제대학 1-2학년

운영형태	합계(%)	국립(%)	공립(%)	사립(%)	기타
학부별 운영·관리					
각 학부	76 24.4%	5 10.4%	4 12.9%	67 29.0%	
전체학부 공통기초강좌[a]	13 4.2%	2 4.2%	3 9.7%	8 3.5%	
기타[b]	10 3.2%	1 2.1%	2 6.5%	7 3.0%	
	99 31.8%	8 16.7%	9 29.0%	82 35.5%	
학교전체에서 운영·관리(센터방식)					
각 학부	10 3.2%	1 2.1%	0	9 3.9%	
전체학부 공통기초강좌[a]	166 53.4%	27 56.3%	21 67.7%	117 50.6%	1
외국어센터(학생만 이수가능)	5 1.6%	2 4.2%		3 1.3%	
기타[b]	7 2.3%	3 6.3%	0.0%	4 1.7%	
	188 60.5%	33 68.8%	21 67.7%	133 57.6%	1
특별히 강좌를 관리하지 않음					
각 학부	2 0.6%	1 2.1%	0	1 0.4%	
전체학부 공통강좌[a]	6 1.9%			6 2.6%	
기타[b]	2 0.6%			2 0.9%	
	10 3.2%	1 2.1%		9 3.9%	
기타[a]					
각 학부	1 0.3%			1 0.4%	
전체학부 공통기초강좌[a]	13 4.2%	6 12.5%	1 3.2%	6 2.6%	
	14 4.5%	6 12.5%	1 3.2%	7 3.0%	
	311	48	31	231	1

주: 굵은 글씨는 각 운영형태의 국공사립별 합계와 총합계를 나타낸다.

- a. (1·2학년) 1학년만 학교전체에서 운영·관리 | 2년차 이후 | 외국어학부에서 운영관리 | 교양과정으로 운영하나 일부 학부에서 독자운영 | 언어문화부가 전 학부 공통교육기구의 수업으로, 문학부·인문과학부의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문화학과에서 개강 | 국제유통학과와 한국어선택자만 | 인간환경학부만 독자운영, 그 외 학부는 교양부가 일괄운영 | 전공학과 | 전체학부공통·제2외국어 | 단과이다 | 일본어 일본문학과가 운영관리 | 방송대학과의 단위 연계
- b. (3·4학년) 2학년 후기 전체학과 개강 | 학부공통과목 | 외국어학부 | 각 학부의 2, 3, 4학년생 | 언어교육연구센터 | 국제문화학부 | 국제유통학과 | 인문학부 | 전학과 공통·선택 | 타학과 개방 | 국제문화학부

[표 52] 운영형태: 4년제대학 3-4학년

운영형태	합계(%)	국립(%)	공립(%)	사립(%)	기타
학부별 운영·관리					
각 학부	79 28.2%	12 26.1%	4 15.4%	63 30.4%	
전체학부 공통기초강좌[a]	11 3.9%	2 4.3%	3 11.5%	6 2.9%	
외국어센터(학생만 이수)	1 0.4%			1 0.5%	
기타[b]	9 3.2%	1 2.2%	1 3.8%	7 3.4%	
	100 35.7%	15 32.6%	8 30.8%	77 37.2%	
전체학과에서 운영·관리(센터방식)					
각 학부	10 3.6%	1 2.2%	0	9 4.3%	
전체학과 공통기초강좌[a]	136 48.6%	19 41.3%	17 65.4%	99 47.8%	1
외국어센터(학생만 이수)	4 1.4%	1 2.2%		3 1.4%	
기타[b]	6 2.1%	3 6.5%		3 1.4%	
	156 55.7%	24 52.2%	17 65.4%	114 55.1%	1

II.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분석

특별히 강좌를 관리하지 않음									
각 학부	1	0.4%	0		0		1	0.5%	
전체학부 공통강좌[a]	5	1.8%					5	2.4%	
기타[b]	5	1.8%	3	6.5%			2	1.0%	
	11	3.9%	3	6.5%			8	3.9%	
기타									
각 학부	2	0.7%					2	1.0%	
전체학부 공통기초강좌[a]	11	3.9%	4	8.7%	1	3.8%	6	2.9%	
	13	4.6%	4	8.7%	1	3.8%	8	3.9%	
	280		46		26		207		1

주: 굵은 글씨는 각 운영형태의 국공사립별 합계와 총합계를 나타낸다.

a. (3·4학년) 2학년 이상 1년간 전체학부에서 운영·관리 | 외국어학부에서 운영관리

교양과정으로 운영하나 일부학부에서 독자운영 | 국제문화학과에서 개강 | 국제유통학과와 한국어 선택자만 |

인간환경학부만 독자운영, 그 외의 학부는 교양부가 일괄운영 | 전공학과 | 전학부 공통·제2외국어

b. (3·4학년) 2학년 후기 전체학과 개강 | 학부공통과목 | 외국어학부 | 각 학부의 2, 3, 4학년생 | 언어교육연구

센터 | 국제문화학부 | 국제유통학과 | 인문학부 | 전학과 공통·선택 | 타학과 개방 | 국제문화학부

6-6.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의 운영형태

표53은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에서의 한국어 운영형태이다. 4년제대학과 마찬가지로 전체학교에서 운영·관리하는 센터방식이 가장 많아,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4년제대학과는 달리, 공립보다 사립이 30포인트 이상 높았다. 그 다음이 학부별 운영·관리방식으로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의 19.1%를 차지했다. 회답이 있었던 고등전문학교는 학부별 운영·관리방식이 많았다.

[표 53] 운영형태: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운영형태	합계(%)	공립(%)	사립(%)	고등전문(%)	기타
학부별로 운영·관리					
각 학부	11 16.2%	3 50.0%	8 14.3%	0	
기타	2 2.9%	0	0	2 66.7%	
	13 19.1%	3 50.0%	8 14.3%	2 66.7%	
전체학교에서 운영·관리(센터방식)					
각 학부	1 1.5%	0	1 1.8%	0	
전체학부 공통기초강좌	39 57.4%	2 33.3%	34 60.7%	1 33.3%	2
외국어센터(학생만 이수)	2 2.9%	0	2 3.6%	0	
	42 61.8%	2 33.3%	37 66.1%	1 33.3%	2
특별히 강좌를 관리하지 않는다					
전체학부 공통강좌	3 4.4%	1 16.7%	2 3.6%	0	
기타	8 11.8%		7 12.5%	0	1
	11 16.2%	1 16.7%	9 16.1%	0	1
기타					
전체학부 공통기초강좌	2 2.9%	0	2 3.6%	0	
	68	6	56	3	3

주: 굵은 글씨는 각 운영형태의 국공사립별 합계와 총합계를 나타냈다.

7. 사용 교재

표54에서 표56까지는 대학 등(2002-03년도)과 고등학교(2001년도)에서 사용되는 한국어교재를 빈도 순으로 정리했다. 대학 등과 고등학교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교재가 적지 않았다. 학교수는 일부 중복된 수치이므로 실제수보다 많다. 자체 프린트 교재는 회답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7-1. 4년제대학의 교재

표54는 4년제대학의 사용 교재를 사용수가 많은 순으로 정리했다. 이수자수가 많은 대학 등이 사용 교재 부수가 많으므로, 대학수 순으로 나열하여 한국어교재 보급상황을 살펴 보았다. 2003년도 이후에 발간된 교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표 54] 4년제대학의 사용 교재: 2002-03년도

교재	사용자 수[a]	대학 수	과목수[b]		사용자수 추정치 [c]
			합계 (1)	이수자수 무기입(2)	
프린트 교재	520	22	35	20	1,213
언어의 가교, 오고시 나오키 외, 하쿠테이사	3,442	19	46	13	4,770
쓰면서 외우는 초급조선어, 다카시마 요시로, 하쿠스이사	2,943	18	29	6	3,711
한국어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원	1,609	16	31	13	2,771
커뮤니케이션 한국어 회화편1, 하세가와 유키코, 하쿠테이사	1,590	12	18	1	1,684
한국어중급 이창규, 하쿠테이사	609	12	16	4	812
한국어초급 이창규, 하쿠테이사	1,123	11	22	5	1,453
한국어레슨 초급1, 김동한 외, 3A네트워크	1,114	9	12	3	1,485
종합한국어1, 유타니 유키토시 외, 하쿠테이사	750	9	16	3	923
지복(至福)의 조선어, 노마 히데키, 아사히슛판사	370	8	13	7	802
포인트레슨 입문한국어, 마쓰바라 다카토시 외, 도호쇼텐	713	7	10	1	792
기초부터 배우는 한국어강좌 기우치 아키라, 고쿠쇼간코카이	529	7	10	3	756
자체 교재·교과서	2,809	6	11	0	
가나다 KOREAN 초급1, 가나다 한국어학당	340	6	8	1	389
신문·소설 외	166	6	17	1	194
한국어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원	110	6	11	3	151
이거라면 알 수 있어!, 시로카와 유타카 외, 하쿠스이사	2,698	5	8	2	3,597
조선어입문1, 유타키 유키토시, 히쓰지쇼보	940	4	9	1	1,058
알기쉬운 조선어기초, 오무라 마스오 외, 도요쇼텐	297	4	9	1	334
들으면서 외우는 초급조선어' 가와무라 미쓰마사, 하쿠스이사	278	4	7	1	324
표현이 넓어진다 지금부터 조선어, 권재숙, 산슈샤	203	4	9	6	609
제대로 이해하는 한국어Step1 이리사 노부히로, 하쿠테이사	524	3	5	0	
조선어입문2 유타니 유키토시, 히쓰지쇼보	424	3	8	0	
NHK TV 한글강좌 텍스트	386	3	5	0	
쉬운 한국어입문 전성희, 고쿠사이고가쿠샤	280	3	3	0	
알기쉬운 한국어 미조구치 고준, 하쿠테이사	264	3	5	0	
글로벌조선어 쓰카모토 히데키 외, 구로시오슛판	256	3	4	0	
스탠더드 한글강좌1 입문·회화 우메다 히로유키 외	252	3	3	0	
종합한국어2 유타이 유키토시 외, 하쿠테이사	248	3	6	0	
한국어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63	3	10	0	
우리말 조희철, 하쿠테이사	153	3	4	2	306
조선어입문 간노 히로오미, 하쿠스이사	139	3	6	1	167
신한국어입문 양호연, 고마쇼린	110	3	3	1	165
한글의 기초 유타니 유키토시, 다이슈칸쇼텐	88	3	4	1	117
한국어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원	37	3	4	2	74
한국어 I 오고시 나오키·네모토 리에, 방송대학교육진흥회	36	3	3	1	54

II.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분석

바로 말하는 한국어입문편 기우치 아키라, 도신붓크스	953	2	5	2	1,588
한국어 I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71	2	5	2	452
가나다 KOREAN 초급2 가나다 한국어학원	200	2	3	2	600
입문자를 위한 조선어강좌 쓰카모토 이사오 외, 하쿠테이사	147	2	3	0	
실용조선어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소가 유스케	130	2	3	0	
쉬운 한국어강좌 이웅수, 고켄	86	2	3	0	
조선어를 배우자 조선어학연구회 산슈샤	59	2	5	3	148
핸드북 한국입문 언어와 문화 마쓰바라 다카토시, 도오쇼텐	44	2	3	2	132
처음의 한국어 이창규, 나쓰메샤	35	2	3	2	105
한국어레슨 초급2 김동한 외, 3A네트워크	21	2	3	2	63
NHK 라디오 한글강좌 텍스트	8	2	2	1	16
커뮤니케이션 한국어1 입문편 오영원, 다이산쇼보	7	2	2	1	14
일한대조언어학 입문 유타니 유키토시, 하쿠테이사	514	1	1	0	
한국어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480	1	4	0	
Friendly Korean1 이시자카 고이치 외, 오피스·미케	460	1	2	0	
Friendly Korean2 이시자카 코이치 외, 오피스·미케	440	1	2	0	
NHK 스탠더드 40한글 가네와카 도시유키, NHK	290	1	2	0	
Home stay of 한국어 B 대학 자체교재	230	1	1	0	
한글교재 기초부터 독해까지 문경수, 신칸샤	210	1	4	0	
Easy Korean for Foreigners I 시사일본어사(한국)	172	1	1	0	
한국어학습 - 기초부터 완성까지 (프린트교재)	132	1	6	0	
일상단어집 한국어 노마 히데키, 나쓰메샤	130	1	1	0	
Easy Korean for ForeignersII 시사일본어사(한국)	124	1	1	0	
CD레슨 놀랄만큼 습득되는 한국어	120	1	1	0	
한국어레슨 초급 I	120	1	1	0	
한국어 문자와 발음 프린트 교재	111	1	1	0	
기초부터 회화까지 한글 문중열	104	1	1	0	
회화트레이닝 페이지 문중열 편	104	1	1	0	
역세스시리즈 초급한국어 표현편	90	1	1	0	
한국어II 한국문화체육부	87	1	1	0	
한국어III 한국문화체육부	87	1	1	0	
스탠더드 한글강좌4 작문 김동준 외, 다이슈칸쇼텐	80	1	1	0	
한국어 I 한국문화체육부	79	1	1	0	
입문한국어 회화편 하나쇼인	78	1	1	0	
어학왕 시오타 교코, 산슈샤	70	1	1	0	
NHK 한글입문 우메다 히로유키, NHK	69	1	1	0	
한국문학사 조윤제, 단큐도	69	1	1	0	
한국어초급 독본 간다외어대학 한국어학과 편	59	1	2	0	
처음의 한국어회화 신세이슛판샤	56	1	1	0	
10일간의 한글 김용권 저	50	1	1	0	
처음으로 배우는 한국어 김유홍, 고켄	50	1	1	0	
한글 연습문제 뱃사쓰다카라지마, 회화(오리지널)	50	1	1	0	
처음의 한국어 하쿠스이사	45	1	1	0	
별의 왕자님 (한국어 번역판)	43	1	1	0	
제대로 배우는 한국어 김유홍, 베루슛판	40	1	1	0	
국제이해의 매력 사이키 다미에(긴다이분계이사)	36	1	1	0	
영화·TV 등 비디오	32	1	1	0	
새로운 조선어 하쿠테이사	30	1	1	0	
즐겁고 확실하게 한국어를 배우자	30	1	1	0	
한국어 트레이닝북	30	1	1	0	
월간 기초한글 소장 “중급강좌”	24	1	1	0	
바로 말하는 한국어(응용편) 기우치 아키라, 나가세	21	1	1	0	
일본어 기본동사용법 사전	21	1	1	0	
바로 말하는 한국어 응용편 기우치 아키라, 도신붓크스	20	1	1	0	
한국어4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원	20	1	1	0	
코스모스 조일(朝和)사전 의 “문법개설”	20	1	1	0	
한글로 편지를 강구영, 난운도	20	1	1	0	

한국어 I 경희대학교	20	1	1	0
서강한국어2 서강대학교 한국학센터	20	1	1	0
서강한국어3 서강대학교 한국학센터	20	1	1	0
입문한글 문법과 회화 강구영, 난운도	20	1	1	0
시판 한국어회화교재	20	1	1	0
한국어 소설강독	20	1	1	0
현대한국어 동사구문 사전	18	1	1	0
한국어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7	1	1	0
한국어독본 연세대학교	17	1	1	0
종합한국어3 유타니 유키토시 외, 하쿠테이사	14	1	1	0
한국어II 오고시 나오키·네모토 리에, 방송대학교육진흥회	10	1	1	0
팔죽 할멈과 호랑이 보리	9	1	2	0
열녀 심청	6	1	2	0
	33,812	322	525	120
				43,155

주: 교재 사용조사 회답내용을 대학수가 많은 순으로 나열했다. 굵은 글씨는 프린트 교재를 제외한 상위 10 위이다.

a. 대학수의 합계는 중복된다. b. 과목수의 합계에는 이수자수가 기입되지 않은 것도 포함한다.

c. 교재의 사용자수 추정치[c]=사용자수[a]÷(과목수 합계[b1]-이수자수 기입이 없는 과목수[b2])×과목수 합계[b1]

프린트 교재와 자체 제작 교재를 제외하면 언어의 가교, 쓰면서 배우는 초급조선어, 한국어1(서울대학교 어학연구원), 커뮤니케이션 한국어 회화편1, 한국어중급, 한국어초급, 한국어레슨 초급1, 종합 한국어1, 지복(至福)의 한국어, 포인트레슨 입문한국어, 기초부터 배우는 한국어 강좌의 순으로 사용빈도가 높았다.

7-2.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의 교재

표55와 같이,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에서는 약 40%의 개설교에서 회답을 얻었다. 방송대학의 교재를 제외한 사용자수 추정치는 1,958(3,459-1,600)였다. 이는 회답한 기관만을 추측 계산한 것이다.

[표 55]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의 사용 교재: 2002-03 년도

교 재	사용자 수 [a]	대학 수	과목수[b]		사용자수 추정치 [c]
			합계 (1)	이수자수 무기입(2)	
쓰면서 외우는 초급조선어 다카시마 요시로, 하쿠스이사	282	5	7	3	494
언어의 가교 오고시 나오키 외, 하쿠테이사	129	2	4	0	129
종합한국어1 유타니 유키토시 외, 하쿠테이사	249	2	4	0	249
실용조선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소가 유스케	60	2	3	2	180
처음으로 배우는 한국어 김유흥, 고첸	36	2	2	0	36
지복의 조선어 노마 히데키, 아사히슈판사	33	1	2	1	66
조선어를 배우자 조선어학연구회, 산슈사	33	1	2	1	66
한국어1 경희대학교	66	1	2	0	66
한국어2 경희대학교	66	1	2	0	66
한국어 I 오고시 나오키·네모토 에리, 방송대학교육진흥회	1,300	1	2	0	1,300
한국어II 오고시 나오키·네모토 에리, 방송대학교육진흥회	300	1	2	0	300
한국어초급 이창규, 하쿠테이사	18	1	1	0	18
기초부터 배우는 한국어강좌 기우치 아키라, 고쿠쇼간코카이	30	1	1	0	30
이거라면 알 수 있어! 조선어 히쓰지쇼보	35	1	1	0	35
조선어입문 유타니 유키토시		1	1	1	
타이틀 불명	424	7	14	0	424
	3,061	30	50	8	3,459

주: 교재 사용조사 회답내용을 대학수가 많은 순으로 나열했다.

a. 대학수의 합계는 중복된다. b. 과목수의 합계에는 이수자수가 기입되지 않은 것도 포함한다.

c. 교재의 사용자수 추정치[c]=사용자수[a]÷(과목수 합계[b1]-이수자수 기입이 없는 과목수[b2])×과목수 합계[b1]

7-3. 고등학교의 교재

표 56 에 고등학교의 사용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타냈다. 2001 년도 집계로, 2003 년도 이후에 발행된 교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의 교재 등을 편집한 자체 프린트 교재 등이 많았고, “쓰면서 외우는 초급조선어” “기초부터 배우는 한국어강좌” “언어의 가교” “커뮤니케이션 한국어 회화편 1” “종합한국어 1”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4 년제대학과 공통이었다.

고등학생용 교과서로 작성된 “스키야넨 한글” 시용판은 2002 년 1 월에 발행되어 2001 년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4 교가 기재하고 있다. 조사시기인 2002 년도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등학생을 위한 한국 조선어 1 스키야넨 한글” 이 발행된 것은 2004 년 2 월이다. 처음으로 고등학교 한국어교육 현황을 토대로 작성된 시판교재이다.

[표56] 고등학교의 사용 교재: 2001년도

교재	사용자수	학교수	과목수
자체 프린트 제작	1198	37	49
쓰면서 외우는 초급조선어 다카시마 요시로, 하쿠스이샤	237	19	19
기초부터 배우는 한국어강좌 기우치 아키라, 고쿠쇼간코카이	655	10	13
언어의 가교 오고시 나오키 외, 하쿠테이샤	153	8	10
커뮤니케이션 한국어 회화편1 하세가와 유키코, 하쿠테이샤	341	6	6
한국어 I 한국문화체육부	96	5	6
종합한국어1 유타니 유키토시 외, 하쿠테이샤	103	4	5
글로벌조선어 쓰카모토 히데키 외, 구로시오숫판	90	4	4
처음의 한국어 이창규, 하쿠테이샤	66	4	5
한국어레슨 초급1 김동한 외, 3A네트워크	64	4	5
한국어초급 이창규, 하쿠테이샤	55	4	4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입문 I	36	3	3
일본인을 위한 안녕하세요? - 한국어입문	31	3	4
일본인을 위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3	1	2
NHK TV 한글강좌 텍스트	207	2	2
처음의 조선어 우리말텍스트 말마당	143	2	3
스키야넨 한글 (시용판) 고등학교 한국조선어교육 네트워크	162	4	6
실용조선어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소가 유스케, 하쿠스이샤	84	2	4
한글초급 CD첨부 변은전, 하쿠스이샤	64	2	2
한국어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원	52	2	3
KOREAN(초급)1 한국·가나다 한국어학원	30	2	3
NHK라디오 한글강좌 텍스트	29	2	2
NHK 한글입문	27	2	2
한국어회화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2	2	2
Easy Korean for Foreigners 1	10	2	2
한국어1·2·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30	1	2
조선어입문 미나토가와 고등학교 조선어과 제작	98	1	3
바로 말하는 한국어 입문편 기우치 아키라	76	1	4
한국어강좌	68	1	2
한국어(초·중·상급) 한국문화체육부	51	1	1
들으면서 외우는 초급조선어 가와무라 미쓰마사, 하쿠스이샤	47	1	2
한국어 1 경희대학교	42	1	4
한국어 2 경희대학교	42	1	4
한국어가 놀랄만큼 습득되는 책	41	1	1
한국어 1 고려대학교	39	1	1
조선어를 배우자 초급편	39	1	1
실용조선어 소가 유스케 외, 하쿠스이샤	33	1	2
조선어 (시용판)	33	1	2
한글 1	32	1	1
한국어초보 고마쇼린	31	1	2

CD북 귀로 외우자 처음의 한국어	31	1	1
가나다 KOREAN For Japanese 초급1	47	2	2
입문자를 위한 조선어강좌 쓰카모토 이사오, 하쿠테이샤	30	1	2
한글어입문 사가현 교육위원회 제작, 2001년 3월	29	1	1
자체 교재	25	1	1
포인트레슨 입문한국어 개정판, 마쓰바라 다카토시 외, 도호쇼텐	24	1	1
이거라면 알 수 있어! 조선어 시로카와 유타카 외, 하쿠스이샤	23	1	1
한국어 신문·잡지, 서적 등의 복사본	23	1	1
한국·조선어[입문·초급편] 요나고미나미 상업고등학교 제작	23	1	1
쉬운 한국어 강좌 고켄	21	1	1
Pathfinder in Korean Beginning	20	1	1
사람 놀이편 아이와 지내기	19	1	2
쉬운 한국어강좌	19	1	2
실용조선어 소가 유스케 외, 하쿠스이샤	18	1	2
프리웨이 한국어	18	1	1
한국어 I·II 선문대학교	16	1	1
처음의 한국어회화	16	1	1
처음의 조선어	15	1	2
제대로 배우는 한국어 - 문법과 연습문제 베루샤	13	1	1
한글의 기초	13	1	1
신한국어 입문 양호연, 고마쇼린	11	1	2
한글능력검정<준 4급·4급> 문제와 해답	11	1	1
한국어강좌	11	1	1
처음의 한국어 아카시쇼텐	10	1	2
NHK 신한글입문	10	1	2
한국어(상) 한국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편	10	1	1
일본인에게 쉬운 한국어문법	9	1	2
혼자서 체계적인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어	9	1	2
99가지 패턴으로 이만큼 말한다 - 가장 심플한 한국어매뉴얼 아르크샤	9	1	1
당장 쓸 수 있는 한국어회화 난운도웨니크스	9	1	1
가나다 KOREAN For Japanese 초급2	9	1	1
한국어1(한국)	8	1	1
입문한국어	8	1	1
한국어중급 이창규, 하쿠테이샤	8	1	1
Korean Elementary 2 for Japanese SISA Education 출판	8	1	1
여행의 손끝 회화장	7	1	1
코스모스 조일(朝和)사전 하쿠스이샤	7	1	
한국어	6	1	1
조선어강좌 1-4 조선청년사	6	1	1
한국어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6	1	1
한국어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5	1	1
한국어 관용문구 600 고켄, 2001년	5	1	1
일본인을 위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I	5	1	1
한글입문 자체 제작	4	1	1
처음의 한글	3	1	1
한국어입문2	2	1	1
중학국어 1-1한국 국어교과서	1	1	1
타이틀 불명	121	7	9
	5531	206	264

주: JAKEHS 등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 학교수가 많은 순으로 정렬했다.

이수자수는 총인원수이다. *는 비슷한 서명이 있는 등의 이유로 파악이 불가능한 것을 나타낸다.

8. 현 상황과 과제(대학 등의 앙케이트 결과)

한국어개설교와 이수자증가가 일시적인 붐인지, 또는 착실히 증가경향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학 등 관계자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이 본 조사목적 중의 하나이다. 증가현상을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8-1. 한국어교육의 장래

한국어에 대한 대학생의 높은 관심은 국제정세에 좌우되고 있어, 일정한 경향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답이 많았다. 표57과 표58에서 회답자의 직위를 보면, 전임, 비상근강사 모두 대학생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 전임은 국제정세에 좌우된다고 냉정하게 보는 사람이 많았다. 그 비율은 비상근강사가 전임의 3분의 1정도였다. 또, 단기대학의 경우가 대학생의 높은 관심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았다. 많은 회답자가 일시적인 붐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한편, 2003년도 이후 학습자가 감소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직위별로 보면 전임보다 비상근강사의 의견이 높았다. 또, 단기대학보다도 4년제가 감소할 우려가 크다는 답이 많았다. 어느 쪽이라고도 대답하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표57] 최근 수년간 대학생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선택1)[A1]

선택 항목	회답 총수		대학 등의 종류				회답자의 직위					
	대학 등 전체		4년제		단대 및 기타		전임		비상근강사		기타	
	181	100.0%	155	85.6%	26	14.4%	77	42.5%	58	32.0%	46	25.4%
<input type="checkbox"/> 최근 수년간 한국어에 대한 대학생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	107	69.0%	96	71.1%	11	55.0%	46	67.6%	46	88.5%	15	42.9%
<input type="checkbox"/> 한일 월드컵공동개최에 따른 현상으로 학습자가 늘어난 것일 뿐, 정착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4	2.6%	4	3.0%	0	0.0%	1	1.5%	1	1.9%	2	5.7%
<input type="checkbox"/> 한일관계를 포함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인기가 좌우된다. 특별한 경향은 없다.	33	21.3%	26	19.3%	7	35.0%	16	23.5%	4	7.7%	13	37.1%
<input type="checkbox"/> 기타	11	7.1%	9	6.7%	2	10.0%	5	7.4%	1	1.9%	5	14.3%
합계	155	100.0%	135	100.0%	20	100.0%	68	100.0%	52	100.0%	35	100.0%

주 : 표의 수치는 회답수이며 %는 각 설문에 대한 항목별 회답률이다.

굵은 글씨는 각 설문의 회답률 30% 이상 항목을 표시했다. 단 고등전문학교는 회답이 2건으로 제외했다.

[표58] 사회인을 포함한 일반학습자의 관심(선택1)[A2]

선택 항목	회답 총수		대학 등의 종류				회답자의 직위					
	대학 등 전체		4년제		단대 및 기타		전임		비상근강사		기타	
	181	100.0%	155	85.6%	26	14.4%	77	42.5%	58	32.0%	46	25.4%
<input type="checkbox"/> 2003년 이후도 학습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28	27.5%	22	26.2%	6	33.3%	9	22.0%	3	15.0%	16	39.0%
<input type="checkbox"/> 2003년 이후 학습자가 감소할 우려가 크다	46	45.1%	40	47.6%	6	33.3%	23	56.1%	14	70.0%	9	22.0%
<input type="checkbox"/> 어느 쪽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28	27.5%	22	26.2%	6	33.3%	9	22.0%	3	15.0%	16	39.0%
합계	102	100.0%	84	100.0%	18	100.0%	41	100.0%	20	100.0%	41	100.0%

주 : 표의 수치는 회답수이며 %는 각 설문에 대한 항목별 회답률이다.

굵은 글씨는 각 설문의 회답률 30% 이상 항목을 표시했다. 단 고등전문학교는 회답이 2건으로 제외했다.

8-2. 목표로 하는 이수자수

표59와 표60은 대학교육과 고등학교교육에서의 한국어 학습자수 비율을 묻은 것이다. 대학 등과 고등학교 모두, 재학생 중 10% 정도의 한국어학습자를 목표로 하는 생각이 많았다. 대학교육만을 보면 50%정도를 목표로 한다는 회답이 다음으로 많았다. 고등학교교육의 경우에는 두번째가 1%정도였지만 50%라는 응답도 결코 적지는 않았다.

10%를 목표로 할 경우, 4년제대학 현행 이수자의 5배 정도 규모가 되므로, 실현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현 상황의 100배 가까운 증가로, 대폭적인 커리큘럼 변경이 없는 한, 실현은 먼 장래의 일이 된다.

[표 59] 대학 등에서의 한국어 이수자수 목표(선택 1)[A3]

선택 항목	회답 총수		대학 등의 종류				회답자의 직위					
	대학 등 전체		4년제		단대		전임		비상근강사		기타	
	회수	비율	회수	비율	회수	비율	회수	비율	회수	비율		
	181	100.0%	155	85.6%	26	14.4%	77	42.5%	58	32.0%	46	25.4%
<input type="checkbox"/> 학생의 1-2% (거의 현 상태) 는 이수요망	19	12.3%	16	12.0%	3	14.3%	8	12.3%	5	10.0%	6	15.4%
<input type="checkbox"/> 학생의 10% 정도	86	55.8%	76	57.1%	10	47.6%	41	63.1%	27	54.0%	18	46.2%
<input type="checkbox"/> 학생의 50% 정도	26	16.9%	22	16.5%	4	19.0%	12	18.5%	13	26.0%	1	2.6%
<input type="checkbox"/> 학생전원 (100%)	2	1.3%	2	1.5%	0	0.0%	1	1.5%	1	2.0%	0	0.0%
<input type="checkbox"/> 배우지 않아도 된다	1	0.6%	1	0.8%	0	0.0%	1	1.5%	0	0.0%	0	0.0%
<input type="checkbox"/> 잘 모르겠다	20	13.0%	16	12.0%	4	19.0%	2	3.1%	4	8.0%	14	35.9%
합계	154	100.0%	133	100.0%	21	100.0%	65	100.0%	50	100.0%	39	100.0%

주 : 굵은 글씨는 회답률이 가장 높은 항목을 표시했다. 단 고등전문학교는 회답수가 적은 관계로 제외했다

[표 60]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이수자수 목표(선택 1)[A4]

선택 항목	회답 총수		대학 등의 종류				회답자의 직위					
	대학 등 전체		4년제		단대		전임		비상근강사		기타	
	회수	비율	회수	비율	회수	비율	회수	비율	회수	비율		
	181	100.0%	155	85.6%	26	14.4%	77	42.5%	58	32.0%	46	25.4%
<input type="checkbox"/> 고등학생의 0.1% 정도 (거의 현상태) 는 학습요망	6	3.8%	6	4.5%	0	0.0%	3	4.5%	1	2.0%	2	5.1%
<input type="checkbox"/> 고등학생의 1% 정도	26	16.7%	23	17.2%	3	13.6%	15	22.7%	6	11.8%	5	12.8%
<input type="checkbox"/> 고등학생의 10% 정도	71	45.5%	61	45.5%	10	45.5%	33	50.0%	27	52.9%	11	28.2%
<input type="checkbox"/> 고등학생의 50% 정도	16	10.3%	14	10.4%	2	9.1%	7	10.6%	7	13.7%	2	5.1%
<input type="checkbox"/> 고등학생 전원(100%)	3	1.9%	2	1.5%	1	4.5%	0	0.0%	3	5.9%	0	0.0%
<input type="checkbox"/> 배우지 않아도 된다	5	3.2%	4	3.0%	1	4.5%	1	1.5%	2	3.9%	2	5.1%
<input type="checkbox"/> 잘 모르겠다	29	18.6%	24	17.9%	5	22.7%	7	10.6%	5	9.8%	17	43.6%
합계	156	100.0%	134	100.0%	22	100.0%	66	100.0%	51	100.0%	39	100.0%

주 : 굵은 글씨는 회답률이 가장 높은 항목을 표시했다. 단 고등전문학교는 회답수가 적은 관계로 제외했다

8-3. 대학 등에서의 외국어학습

표61은 학습도달목표에 관한 설문조사이다. 여행에 필요한 간단한 회화정도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신문, 잡지를 읽을 정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 순이었다. 같은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직위를 보면 '여행회화' 와 '자신의 생각' 에 대해서는 비상근강사의 회답률이 10포인트 정도 높았다. 4년제와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를 보면, '한글을 읽는 정도' 또는 '여행회화 정도' 라는 답이 단기대학에서는 50% 전후였다. 4년제의 '한글습득' 은 15.6% 정도로, 단기대학과 약 30%의 차이가 있었다. '여행회화' 는 4년제에서도 60%에 가깝다. '신문, 잡지를 읽을 정도' 와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하기 위함이라는 경우도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 4년제가 50% 전후인 것에 비해 단기대학은 20%이하였다. 언어보다 문화나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4년제보다 단기대학쪽이 약 10포인트 높았다.

[표 61] 대학 등의 한국어교육 학습도달 목표(복수회답)[B1]

선택 항목	회답 총수		대학 등의 종류			회답자의 직위						
	대학 등 전체		4년제	단대 및 기타		전임		비상근강사		기타		
	157	100.0%	135	86.0%	22	14.0%	67	42.7%	52	33.1%	38	24.2%
<input type="checkbox"/> 한글을 읽는 정도	31	19.7%	21	15.6%	10	45.5%	7	10.4%	9	17.3%	15	39.5%
<input type="checkbox"/> 여행회화 정도의 간단한 회화가 가능	92	58.6%	80	59.3%	12	54.5%	38	56.7%	34	65.4%	20	52.6%
<input type="checkbox"/> 신문 잡지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수준	72	45.9%	68	50.4%	4	18.2%	39	58.2%	26	50.0%	7	18.4%
<input type="checkbox"/> TV 뉴스를 듣고 거의 이해 가능한 수준	12	7.6%	11	8.1%	1	4.5%	7	10.4%	3	5.8%	2	5.3%
<input type="checkbox"/> 전문서적을 읽을 수 있는 수준	22	14.0%	21	15.6%	1	4.5%	12	17.9%	9	17.3%	1	2.6%
<input type="checkbox"/>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가능한 수준	66	42.0%	62	45.9%	4	18.2%	28	41.8%	30	57.7%	8	21.1%
<input type="checkbox"/> 언어보다는 문화와 역사를 배워야 한다	30	19.1%	24	17.8%	6	27.3%	13	19.4%	7	13.5%	10	26.3%
<input type="checkbox"/> 한국어로 토론이 가능한 수준	3	1.9%	2	1.5%	1	4.5%	3	4.5%	0		0	
	328		289		39		147		118		63	

주: 표의 수치는 회답수이며 %는 각 설문항목에 대한 회답률이다.
굵은 글씨는 각 설문의 회답률 상위 3항목을 나타냈다. 고등전문학교는 회답률이 낮은 관계로 제외했다.

표62는 대학 등에서 학습해야 할 외국어에 관한 설문이다. 영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아 대학 등 전체의 90%에 달한다. 회답자의 대다수가 한국어교원이므로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70%정도였다.

직위별로 보면, 전임보다 비상근강사의 한국어란 회답률이 10포인트 높은 80%에 가까웠다. 중국어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대학 등 전체의 60% 정도가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답했으며, 전임보다는 비상근강사가 10포인트 이상 높은 70%선이다. 그러나 프랑스어와 독일에 관해서는 대학 등 전체의 20% 전후로, 한국어나 중국어와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표 62] 대학교육에서는 다음 외국어를 어느정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복수회답)

선택 항목	회답 총수		대학 등의 종류			회답자의 직위						
	대학 등 전체		4년제	단대 및 기타		전임		비상근강사		기타		
	157	100.0%	135	86.0%	22	14.0%	67	42.7%	52	33.1%	38	24.2%
<input type="checkbox"/> 영어	141	89.8%	122	90.4%	19	86.4%	57	85.1%	47	90.4%	37	97.4%
<input type="checkbox"/> 프랑스어	36	22.9%	32	23.7%	4	18.2%	16	23.9%	8	15.4%	12	31.6%
<input type="checkbox"/> 독일어	34	21.7%	31	23.0%	3	13.6%	15	22.4%	9	17.3%	10	26.3%
<input type="checkbox"/> 중국어	91	58.0%	79	58.5%	12	54.5%	36	53.7%	35	67.3%	20	52.6%
<input type="checkbox"/> 한국어	107	68.2%	93	68.9%	14	63.6%	46	68.7%	41	78.8%	20	52.6%
<input type="checkbox"/> 기타 언어	19	12.1%	17	12.6%	2	9.1%	0		0		0	
<input type="checkbox"/> 특별히 필요 없다	0		0		0		0		0		0	
	428		374		54		170		140		99	

주: 굵은 글씨는 각 설문의 회답률 상위 3항목을 나타냈다. 고등전문학교는 회답률이 낮은 관계로 제외했다.

8-4. 대학교원의 현 상황과 문제점

표63은 대학 등의 한국어교원에 관한 문제점이다. 대학 등에서 많은 교원이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다. [pp. 44-45 참고] 이번 조사를 통해, 비상근강사로서 신분적 불안정을 느낀다는 회답이 전체의 약 60%에 달했다. 직위별로 보면 비상근강사가 70%를 넘는 것은 당연하다하겠지만, 전임도 60% 이상이 같은 회답을 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다음으로는 학생수에 비해 교원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학 등 전체에서 30% 회답이 있었다.

직위별로 보면 전임보다 비상근강사가 15포인트 이상 높은 응답률이다. 강좌당 이수자수에 관해서는 48-50페이지를 참고 바란다. 한국어교수법을 배우지 않은 교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응답도 30%에 가깝다. 그 실태의 일부분을 회답내용에서 볼 수 있다. [pp. 77-78 참고]

[표 63] 대학 등에서의 한국어교원의 현 상황과 문제점(복수회답)[B3]

선택 항목	회답 총수		대학 등의 종류				회답자의 직위					
	대학 등 전체		4년제		단대 및 기타		전임		비상근강사		기타	
	회답 수	%	회답 수	%	회답 수	%	회답 수	%	회답 수	%	회답 수	%
	157	100.0%	135	86.0%	22	14.0%	67	42.7%	52	33.1%	38	24.2%
□학생수에 비해 교원수가 절대 부족하다	47	29.9%	40	29.6%	7	31.8%	18	26.9%	22	42.3%	7	18.4%
□많은 교원이 비상근으로 신분이 불안정하다	94	59.9%	86	63.7%	8	36.4%	43	64.2%	37	71.2%	14	36.8%
□한국어교수법을 배우지 않은 교원이 많다	45	28.7%	40	29.6%	5	22.7%	26	38.8%	16	30.8%	3	7.9%
□한국어가 모어라는 것만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많다	37	23.6%	34	25.2%	3	13.6%	20	29.9%	14	26.9%	3	7.9%
□기타	25	15.9%	21	15.6%	4	18.2%	0	0	0	0	0	0
	248		221		27		107		89		27	

주 : 표의 수치는 회답수이며 %는 각 질문에 대한 항목별 회답률이다.
 굵은 글씨는 각 질문의 회답률 상위 3항목을 나타냈다. 고등전문학교는 회답률이 낮은 관계로 제외했다.

[표 64] 대학 등에서의 한국어교원 연수의 바람직한 방향(복수회답)[B4]

선택 항목	회답 총수		대학 등의 종류				회답자의 직위					
	대학 등 전체		4년제		단대 및 기타		전임		비상근강사		기타	
	회답 수	%	회답 수	%	회답 수	%	회답 수	%	회답 수	%	회답 수	%
	157	100.0%	135	86.0%	22	14.0%	67	42.7%	52	33.1%	38	24.2%
□대학교원을 포함한 고등학교교사, 어학교, 시민강좌강사 등의 교원연수가 필요하다	71	45.2%	61	45.2%	10	45.5%	33	49.3%	30	57.7%	8	21.1%
□고등학교, 어학교, 시민강좌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원연수가 대학 등의 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23	14.6%	22	16.3%	1	4.5%	11	16.4%	12	23.1%	0	0
□한국의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사연수강좌 등을 이용한다	47	29.9%	40	29.6%	7	31.8%	26	38.8%	16	30.8%	5	13.2%
□특별히 연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16	10.2%	14	10.4%	2	9.1%	7	10.4%	4	7.7%	5	13.2%
□개개인이 연구, 노력해야 한다	42	26.8%	37	27.4%	5	22.7%	22	32.8%	12	23.1%	8	21.1%
□잘 모르겠다	24	15.3%	21	15.6%	3	13.6%	6	9.0%	4	7.7%	14	36.8%
	223		195		28		105		78		40	

주 : 표의 수치는 회답수이며 %는 각 질문에 대한 항목별 회답률이다.
 굵은 글씨는 각 질문의 회답률 상위 3항목을 나타냈다. 고등전문학교는 회답률이 낮은 관계로 제외했다.

표64는 한국어교육 연수에 관한 설문이다. 많은 응답자가 자유기술내용에서 한국어교원의 질적문제를 지적하는 바와 같이 [p. 77 참고], 교원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가장 많은 회답은 대학교원을 포함한 한국어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수였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사연수강좌 등을 이용하자, 또는 개인의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등이었다.

8-5. 능력검정시험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 관련 검정시험 2개와 대학교육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표65는 '한글' 능력검정시험에 관해, 표 66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상황이다. 시험결과를 단위로 인정하는 대학 등에서는 '한글'이 전체의 11.4%였고 '한국어'가 9.5%였다. 수치로는 약

II.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분석

2포인트 정도에 불과하지만, 학생들에게 응시를 권하는 비율은 ‘한글’이 46.8%인 데 비해, ‘한국어’는 9.5%에 불과했다. ‘한국어’의 경우는 단위로 인정하는 대학 등과 응시를 권장하는 대학 등의 회답이 일치한다.

2001년과 2002년 응시자 유무에 관해서는 ‘한글’이 2001년도와 2002년도 모두 29% 전후인데 비해, ‘한국어’는 각각 13.9%와 15.2%에 불과했다. ‘한글’이 2회 실시, ‘한국어’가 1회 실시라는 실시 회수의 차이가 응답률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65] 한글능력검정시험의 응시상황 [C2]

선택 항목	회답 총수		대학 등의 종류				회답자의 직위					
	대학 등 전체		4년제		단대 및 기타		전임		비상근강사		기타	
	회답 수	비율 (%)	회답 수	비율 (%)	회답 수	비율 (%)	회답 수	비율 (%)	회답 수	비율 (%)		
	158	100.0%	136	86.1%	22	13.9%	66	41.8%	53	33.5%	39	24.7%
단위 인정 (일부라도)												
<input type="checkbox"/> 한다	18	11.4%	17	12.5%	1	4.5%	9	13.6%	7	13.2%	2	5.1%
<input type="checkbox"/> 하지 않는다	117	74.1%	102	75.0%	15	68.2%	49	74.2%	39	73.6%	29	74.4%
학생에게 응시를												
<input type="checkbox"/> 권한다	74	46.8%	68	50.0%	6	27.3%	35	53.0%	35	66.0%	4	10.3%
<input type="checkbox"/> 권하지 않는다	56	35.4%	48	35.3%	8	36.4%	22	33.3%	13	24.5%	21	53.8%
응시자가 있었던 해 (복수회답)												
<input type="checkbox"/> 2001년	46	29.1%	44	32.4%	2	9.1%	28	42.4%	17	32.1%	1	2.6%
<input type="checkbox"/> 2002년	45	28.5%	43	31.6%	2	9.1%	29	43.9%	15	28.3%	1	2.6%

[표 66]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상황 [C2]

단위 인정 (일부라도)												
<input type="checkbox"/> 한다	15	9.5%	13	9.6%	2	9.1%	9	13.6%	5	9.4%	1	2.6%
<input type="checkbox"/> 하지 않는다	114	72.2%	99	72.8%	15	68.2%	47	71.2%	39	73.6%	28	71.8%
학생에게 응시를												
<input type="checkbox"/> 권한다	15	9.5%	13	9.6%	2	9.1%	9	13.6%	5	9.4%	1	2.6%
<input type="checkbox"/> 권하지 않는다	114	72.2%	99	72.8%	15	68.2%	47	71.2%	39	73.6%	28	71.8%
응시자가 있었 던 해 (복수회답)												
<input type="checkbox"/> 2001년	22	13.9%	19	14.0%	3	13.6%	14	21.2%	8	15.1%	0	0.0%
<input type="checkbox"/> 2002년	24	15.2%	21	15.4%	3	13.6%	14	21.2%	10	18.9%	0	0.0%

주 : 굵은 글씨는 가장 회답률이 높은 항목을 표시했다.

표67에는 ‘한글’ 능력검정시험의 인정 급수와 단위수를, 표68에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인정 급수와 단위수의 관계를 정리했다. ‘한글’은 1급이 최상급이고 ‘한국어’는 6급이 최상급이라는 점을 덧붙인다. 표67과 표68에서는 각 대학(A, B, C……)의 능력시험 응시상황을 정리했다. ‘한글’ 시험 5급부터 준1급까지가 각각 ‘한국어’의 1급부터 6급에 대응한다.

[표 67] 한글능력검정시험: 인정 급수와 단위수

	5급	4급	3급	준2급	2급	준1급	1급	
A 대학	0	2	2	4	6	8	10	
B 대학	0	0	2	2	2	2	2	
C 대학	2	4	6	6	8			C 대학: ‘그 외의 단위’로 인정, 연속 합격자는 하위급과의 차이를 인정
D 대학	0	0	8	8	8	8	8	
E 대학	0	2	2					
F 대학	0	2(0)	4(2)	4	4	4	4	() 안은, 중급 이수자의 인정단위
G 대학	0	4	8	10	12	n/a	16	한국어능력시험은 인정하지 않는다
H 대학	0	0	2	2				
I 대학	0	0	2	2	2	2	2	
J 대학	0	2	4	6	6	6	6	한국어능력시험은 인정하지 않는다

[표 68] 한국어능력시험: 인정 급수와 단위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A 대학	0	2	2	4	6	8	'한글' 능력검정시험에 준한다	
B 대학	0	0	2	2	2	2		
C 대학			(인정한다)					
D 대학	0	0	8	8	8	8	전임이 없다	
E 대학	0	0	2	2				
F 대학	0(2)	4(2)	4	4	4	4		
H 대학	0	0	2	2				
I 대학	0	0	2	2	2	2		
K 대학			(현재 신청중)					'한글' 능력검정시험은 인정하지 않는다
L 대학	2	4	6	8	10	12	'한글' 능력검정시험은 인정하지 않는다	

주: 표 67, 표 68의 수치는 회답수이고, %는 각 설문항목별 회답률이다. 항목별 선택 1이다. 응시자수는 복수회답이 가능하고 인정급에 관해서는 기술식이다. 굵은 글씨는 '단위로 인정한다' '학생에게 시험을 권하고 있다' '2002년 응시자가 있었다' 라는 회답에 한해서이다.

8-6. 대학입시센터시험

표69는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의 '한국어'에 관한 설문이다. 대학 등 전체의 36.1%가 현 상황 그대로 1차시험만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등학교 한국어교육의 성숙을 기다려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24.7%로 다음을 이었다. 2차시험 도입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회답도 20%에 가까웠다.

고등학교 한국어교육 수준이 현행 대학입시센터시험의 '한국어' 응시(합격)레벨에 달하기는 가까운 시일에는 어려운 형편이다. 표7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외국어보다 한국어 평균점이 높은 것으로 보아 주된 응시자는 민족계고등학교 졸업생이나 귀국자녀라는 지적도 있다.

[표 69] 대학입시센터시험 한국어의 전망(선택 1)[C1]

	회답 총수		대학 등의 종류				회답자의 직위					
	대학 등 전체		4년제		단대 및 기타		전임		비사근강사		기타	
	158	100.0%	136	86.1%	22	13.9%	66	41.8%	53	33.5%	39	24.7%
<input type="checkbox"/> 1차시험만 (현 상태 대로) 시행한다	57	36.1%	52	38.2%	5	22.7%	25	37.9%	19	35.8%	13	33.3%
<input type="checkbox"/> 2차시험을 도입해 본격적인 실시를 해야한다	31	19.6%	27	19.9%	4	18.2%	17	25.8%	14	26.4%	0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한국어교육 수준의 성숙을 기다려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39	24.7%	34	25.0%	5	22.7%	15	22.7%	15	28.3%	9	23.1%
<input type="checkbox"/> 폐지해야 한다	1	0.6%	1	0.7%	0		1	1.5%	0		0	
<input type="checkbox"/> 잘 모르겠다	26	16.5%	20	14.7%	6	27.3%	6	9.1%	3	5.7%	17	43.6%
합계	154	97.5%	134	98.5%	20	90.9%	64	97.0%	51	96.2%	39	100.0%

주:

[표 70] 대학입시센터시험 외국어과목의 개황: 2003년

과목명	응시자수	평균점수	최고점수	최저점수	표준편차
한국어	169	170.96(85.48)	200(100)	28(14)	31.50(15.75)
중국어	405	150.71(75.35)	200(100)	25(12)	46.85(23.42)
프랑스어	138	131.57(65.78)	200(100)	35(17)	45.05(22.52)
독일어	96	110.98(55.49)	195(97)	33(16)	45.50(22.75)
영어	551,891	126.82(63.41)	200(100)	0(0)	40.78(20.39)

주: 평균점수, 최고점수, 최저점수, 표준편차의 ()안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다(대학입시센터 자료)

8-7.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관계

표71에서는 대학 등과 고등학교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질문이다. 대학 등에서 교양과정의 외국어교육은 고등학교 외국어교육과 공통점이 많다는 응답이 42.1%, 수업이 다양하여 대학 등과 고등학교교육의 차이가 있다라기 보다는 각 학교간의 격차가 더 크다는 응답이 37.6%였다. 외국어교육에 대해 두 과정의 공통점을 인정하면서도 각 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고 할 것이다. 양자간의 관계를 생각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표71] 대학 등과 고등학교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복수회답)[03]

	회답 총수		대학 등의 종류			회답자의 직위						
	대학 등 전체		4년제	단대 및 타		전임	비상근강사	기타				
	178	100.0%	154	86.5%	24	13.5%	75	42.1%	57	32.0%	44	24.7%
□대학에서의 교양과정 외국어 교육은 고등학교 외국어교육과 공통점이 많다	75	42.1%	65	42.2%	10	41.7%	33	44.0%	28	49.1%	14	31.8%
□대학도 고등학교교육도 다양하여 교육 단계 (대학과 고등 학교) 의 차이보다는 학교간의 격차가 크다	67	37.6%	58	37.7%	9	37.5%	30	40.0%	19	33.3%	18	40.9%
□대학의 한국어이수자는 고등학교보다 학습의욕과 학습수준이 높다	16	9.0%	14	9.1%	2	8.3%	5	6.7%	8	14.0%	3	6.8%
□대학과 고등학교교육은 기본적인 면에서 다르므로 공통점을 찾으려하지 않는 편이 좋다	23	12.9%	21	13.6%	2	8.3%	9	12.0%	8	14.0%	6	13.6%

주 : 굵은 글씨는 회답률 상위 2 위 (근사치가 있는 경우는 3) 항목을 나타냈다.

표72는 대학 등과 고등학교교육과의 제도적인 협력에 관한 설문이다. 가장 많은 응답은 고등학교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 대학의 역할이 크다고 지적했다. 출산률 감소추세에 따른 대학 진학자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와 연계해야 한다는 회답도 높았다. 이 점에 관한 회답률은 비상근보다 전임이 약 16포인트 높다. 한국어 교육실습학교의 확보를 위한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비상근이 약 8포인트 정도 높았다.

[표 72] 대학 등과 고등학교교육에서의 제도적인 협력(복수회답)[C3]

	회답 총수		대학 등의 종류			회답자의 직위						
	대학 등 전체		4년제	단대 및 기타		전임	비상근강사	기타				
	158	100.0%	136	86.1%	22	13.9%	66	41.8%	53	33.5%	39	24.7%
□고등학교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 대학의 역할이 크다	81	51.3%	72	52.9%	9	40.9%	35	53.0%	28	52.8%	18	46.2%
□대학과 고등학교는 수업 내용과 목적이 다르므로 협력이 어렵다	16	10.1%	14	10.3%	2	9.1%	4	6.1%	8	15.1%	4	10.3%
□자녀감소에 따른 대학진학자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와 협력이 필요하다	48	30.4%	40	29.4%	8	36.4%	23	34.8%	10	18.9%	15	38.5%
□고등학교 한국어이수자의 (특별) 진학추진을 확보하고 있다	7	4.4%	6	4.4%	1	4.5%	6	9.1%	1	1.9%	0	
□한국어 교육실습 실시교의 확보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	24	15.2%	22	16.2%	2	9.1%	11	16.7%	13	24.5%	0	
□고등학교 한국어이수자에 대해서는 일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7	4.4%	7	5.1%	0		4	6.1%	2	3.8%	1	2.6%

주 : 굵은 글씨는 회답률 상위 2 위 (근사치가 있는 경우는 3) 항목을 나타냈다.

표73은 고등학교 한국어학습에 대해 대학 등 관계자의 견해를 물었다. 전체의 64.0%가 고등학교때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전임보다 비상근강사가 약 21포인트 높았다.

이유로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배우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55.1%, 대학에서 이수할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4.3%였다. 두 대답 모두 전임보다 비상근강사가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표 73] 고등학교교육에서의 한국어학습(복수회답)[D2]

	회답 총수		대학 등의 종류			회답자의 직위						
	대학 등 전체	4년제	단대 및 기타	전임	비상근 강사	기타						
	178	100.0%	154	86.5%	24	13.5%	75	42.1%	57	32.0%	44	24.7%
고등학교 때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114	64.0%	99	64.3%	15	62.5%	46	61.3%	47	82.5%	21	47.7%
□대학에서도 이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61	34.3%	52	33.8%	9	37.5%	24	32.0%	27	47.4%	10	22.7%
□영어 이외의 외국어도 배우는 것이 좋다	98	55.1%	85	55.2%	13	54.2%	41	54.7%	38	66.7%	19	43.2%
고등학교 때 한국어를 배울 필요는 없다	27	15.2%	23	14.9%	4	16.7%	11	14.7%	4	7.0%	12	27.3%
□대학에서 배우면 된다	8	4.5%	8	5.2%	0	0.0%	6	8.0%	1	1.8%	1	2.3%
□영어만 배우면 된다	8	4.5%	6	3.9%	2	8.3%	1	1.3%	1	1.8%	6	13.6%

주 : 굵은 글씨는 회답률 상위 2위 (근사치가 있는 경우는 3) 항목을 나타낸다.

8-8.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교원

표74와 표75는 대학 등과 고등학교교사의 관계에 대한 설문이다. 50%에 달하는 회답이 대학 등과 고등학교교사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교재개발을 하자는 의견이었다. 협력관계가 곤란하다는 대답은 8.9%에 불과했다. 대학교원이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있다는 회답은 38.6%였지만, 전임에 비해 비상근강사의 회답률이 약 18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수업을 견학하고 참고한다는 회답도 40%에 가깝다.

대학 등과 고등학교 교사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전임과 비상근의 차이없이 약 60%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말한다. 현 상황에 만족한다 또는,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은 들을 합하여 7%정도였다.

[표 74] 대학 등과 고등학교교원간의 관계(복수회답)[C4]

	회답 총수		대학 등의 종류			회답자의 직위						
	대학 등 전체	4년제	단대 및 기타	전임	비상근강사	기타						
	158	100.0%	136	86.1%	22	13.9%	66	41.8%	53	33.5%	39	24.7%
□대학교원이면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있다	61	38.6%	55	40.4%	6	27.3%	24	36.4%	29	54.7%	7	17.9%
□대학과 고등학교교사가 공동으로 교재개발을 해야한다	77	48.7%	66	48.5%	11	50.0%	33	50.0%	25	47.2%	19	48.7%
□대학교원이 고등학교 수업을 견학하고 참고한다	60	38.0%	51	37.5%	9	40.9%	24	36.4%	20	37.7%	15	38.5%
□고등학교교사가 대학 수업을 견학하고 참고한다	56	35.4%	51	37.5%	5	22.7%	26	39.4%	18	34.0%	11	28.2%
□대학과 고등학교는 기본적인 교육내용이 다르므로 협력관계는 어렵다.	14	8.9%	13	9.6%	1	4.5%	6	9.1%	4	7.5%	4	10.3%

주 : 굵은 글씨는 회답률 상위 2위 (근사치가 있는 경우는 3) 항목을 나타냈다. 2건의 고등전문학교 회답은 제외했다.

[표 75] 앞으로의 대학 등과 고등학교교원간의 협력관계(선택 1)[D4]

	회답 총수		대학 등의 종류				회답자의 직위					
	대학 등 전체		4년제		단대 및 기타		전임		비상근강사		기타	
	회수	%	회수	%	회수	%	회수	%	회수	%	회수	%
	178	100.0%	154	86.5%	24	13.5%	75	42.1%	57	32.0%	44	24.7%
<input type="checkbox"/> 더 밀접해야 한다	104	58.4%	90	58.4%	14	58.3%	45	60.0%	34	59.6%	25	56.8%
<input type="checkbox"/> 현 상태가 좋다	10	5.6%	10	6.5%	0	0.0%	4	5.3%	4	7.0%	2	4.5%
<input type="checkbox"/> 약화하는 것이 좋다	1	0.6%	1	0.6%	0	0.0%	1	1.3%	0	0.0%	0	0.0%
<input type="checkbox"/> 협력할 필요가 없다	1	0.6%	1	0.6%	0	0.0%	1	1.3%	0	0.0%	0	0.0%
<input type="checkbox"/> 잘 모르겠다	49	27.5%	43	27.9%	6	25.0%	20	26.7%	14	24.6%	15	34.1%

주 : 굵은 글씨는 회답률 상위2위 항목을 나타냈다.

8-9. 한국어교육 관련단체

표76은 조선학회, 조선어연구회, 조선어교육연구회 및고등학교 한국어교육 네트워크(JAKEHS)에 대한 인지도와 참가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발족년도는 각각 1950년, 1983년, 1999년, 1999년 순이다. 인지도는 대학 등 전체에서 조선학회가 69.7%, 조선어연구회 44.9%, 조선어교육연구회 47.8%, JAKEHS가 30.3%였다. 4년제와 단기대학에서의 응답률의 차이는 조선학회가 약 28, 조선어연구회 약 35, 조선어교육연구회 약 38, JAKEHS 약 22포인트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참가상황을 보면, 대학 등 전체 수치로는 조선학회가 32.6%, 조선어연구회 12.4%, 조선어교육연구회가 10.7%였다. 4년제와 단기대학의 조선학회 참가상황은 약 20포인트의 차이가 있었으며, 단기대학의 응답자를 보면 다른 2개의 연구회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었다. 인지도는 전임이 비상근에 비해 조선학회가 약 5포인트, 조선어연구회가 약 7포인트 높았다. 조선어교육연구회와 JAKEHS는 반대로 비상근이 각각 전임보다 약 8포인트, 약 15포인트가 높았다. 참가상황도 같은 경향이였다. 조선학회는 전임이 약 23포인트 높았고 조선어연구회는 근사한 차이지만 전임이 약 2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조선어교육연구회만은 비상근이 전임보다 약 10 포인트가 높았다.

[표 76] 한국어교육 관련단체

단체명 (발족 연월순)	회답 총수		대학 등 종류				회답자의 직위					
	대학 전체		4년제		단대		전임		비상근		기타	
	회수	%	회수	%	회수	%	회수	%	회수	%	회수	%
	178	100.0%	152	85.4%	26	14.6%	68	38.2%	51	28.7%	35	19.7%
조선학회(1950년 10월)												
<input type="checkbox"/> 알고 있다	124	69.7%	112	73.7%	12	46.2%	66	97.1%	47	92.2%	11	31.4%
<input type="checkbox"/> 모른다	49	27.5%	39	25.7%	10	38.5%	8	11.8%	10	19.6%	31	88.6%
<input type="checkbox"/> 참가하고 있다	58	32.6%	54	35.5%	4	15.4%	38	55.9%	17	33.3%	3	8.6%
<input type="checkbox"/> 참가하지 않는다	56	31.5%	52	34.2%	4	15.4%	17	25.0%	25	49.0%	14	40.0%
<input type="checkbox"/> 참가하고 싶다	13	7.3%	11	7.2%	2	7.7%	3	4.4%	10	19.6%	0	0.0%
조선어연구회(1983년 4월)												
<input type="checkbox"/> 알고 있다	80	44.9%	76	50.0%	4	15.4%	45	66.2%	30	58.8%	5	14.3%
<input type="checkbox"/> 모른다	90	50.6%	72	47.4%	18	69.2%	28	41.2%	25	49.0%	37	105.7%
<input type="checkbox"/> 참가하고 있다	22	12.4%	22	14.5%	0	0.0%	13	19.1%	9	17.6%	0	0.0%
<input type="checkbox"/> 참가하지 않는다	82	46.1%	73	48.0%	9	34.6%	35	51.5%	30	58.8%	17	48.6%
<input type="checkbox"/> 참가하고 싶다	13	7.3%	11	7.2%	2	7.7%	4	5.9%	9	17.6%	0	0.0%
조선어교육연구회(1999년 3월)												
<input type="checkbox"/> 알고 있다	85	47.8%	81	53.3%	4	15.4%	44	64.7%	37	72.5%	4	11.4%
<input type="checkbox"/> 모른다	86	48.3%	68	44.7%	18	69.2%	28	41.2%	20	39.2%	38	108.6%
<input type="checkbox"/> 참가하고 있다	19	10.7%	19	12.5%	0	0.0%	8	11.8%	11	21.6%	0	0.0%
<input type="checkbox"/> 참가하지 않는다	85	47.8%	76	50.0%	9	34.6%	39	57.4%	29	56.9%	17	48.6%
<input type="checkbox"/> 참가하고 싶다	16	9.0%	14	9.2%	2	7.7%	7	10.3%	9	17.6%	0	0.0%
고등학교 한국어교육 네트워크(1999년 8월)												
<input type="checkbox"/> 알고 있다	54	30.3%	51	33.6%	3	11.5%	26	38.2%	27	52.9%	1	2.9%
<input type="checkbox"/> 모른다	113	63.5%	95	62.5%	18	69.2%	44	64.7%	28	54.9%	41	117.1%

주 : 수치는 회답수이고 %는 각 설문항목에 대한 회답률이다. 굵은 글씨는 각 연구회 등에 대해서 '알고 있다' '참가하고 있다' 고 회답한 것이다 (0%는 제외).

9. 현 상황과 과제 (대학 등 관계자들의 기술내용)

본 조사의 자유란에 기입된 대학 등 관계자의 한국어교육 상황에 관한 의견을 표에 모았다. 기입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위 등을 부기했다.

제Ⅱ부의 조사결과와 8장의 앙케이트 집계결과(pp. 64-72)를 조합, 정리하면, 대학 등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과 고등학교 한국어교육과의 연계 등을 대학관계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을 토대로, 고등학교 한국어교사를 포함한 관계자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함께 비교, 검토함으로써,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9-1. 학습자 증가와 한국어교육의 위치

2002-03년도 한국어학습자의 증가추세는 2004년도 이후에도 늘어나고 있다. 여러 4년제대학에서 1학년생의 한국어이수율이 1할을 넘고 있다. 안일하게 일반화 시켜서는 안될 것이나, 한국어 교육을 둘러싼 상황이 새롭게 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위치정립이 필요하다.

표77-78에서와 같이, 한국어교육 관계자가 한국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학생의 요구에 대응하는 한국어교육의 앞으로의 방향과, 학습자가 극히 소수밖에 없었던 70-80년대 당시의 한국어에 관한 인식이 공존하고 있어, 과도기 양상을 보인다.

[표77] 한국어학습자의 증가와 대학교육

·학생수도 교원수도 더 늘려야할 것이며 대학측도 적극 후원해 주었으면 한다.	사립대 비상근
·학생들이 한국인과 교류할 기회가 늘어나는데 비해, 대학의 한국어교육 레벨은 자유로이 회화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능력 수준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깝다. 주 1회란 시간적 제한과 선택과목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사립대 비상근
·(학교측에 대하여)수업을 늘려야 한다.	사립대 비상근
·대학교육에 있어서 희망이수자는 전 학생의 3% 정도의 학습을 희망한다.	국립대 전임
·한국어학습 희망자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국립대 전임
·앞으로 더 충실해지리라 예상한다. 발전을 기대하며 희망한다.	사립대 전임 (타교과)
·앞으로도 더욱 한국어 교육열이 높아지길 바란다.	공립대 비상근
·최근 절실히 느끼는 것은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실력이 부족 늘었다는 점이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생생한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는 것도 원인이지만, 그보다 요즘 젊은이들은 외국어에 대한 긴장이나 거부감이 적어져, 이전보다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 흥미를 느낄만한 소재를 부여하기 만 해도 놀랄 정도의 실력향상을 보인다. 누가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는 별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사립대 전임
·겉으로 보기에는 관심이 높아진 듯하나, 극히 피상적인 레벨에 불과하며 오히려 조선문화가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립대 전임
·작년(2002년)은 월드컵 영향과 더불어 수강하기 쉽도록 조정을 했더니 수강생이 급격히 늘었다. 앞으로 이처럼 급증할 일은 없다고 여겨지나, 학습자는 점차 증가 하리라 예상한다.	국립대 전임 (타교과)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과 일시적인 붐이 섞여 있다. 일시적인 붐은 당연히 줄 것이다.	사립대 전임
·일시적인 붐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선다. 단, 2003년도에도 수강생은 약간 늘었다.	공립대 전임
·2002년도 개강으로 이수희망자가 쇠도했다. 2003년도 이후는 출산율감소 영향도 있어 잘 모르겠다.	사립대 비상근
·학생의 희망이 적다.	사립단대 교무
·2004년 실시예정이므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일부는 관심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한다.	사립대 전임 (타교과)

[표 78] 한국어교육의 의미와 위치, 필요성

·학생들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중요하다. 거리상으로도 가까운 한국이나 영어권, 중국어권 등 유학할 곳에서 한국인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어 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사립대 교무과
·앞으로의 외국어교육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흥미도 없는데 억지로 가르쳐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앞으로도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가진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사립대 전임
·외국어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만 집착하여, 왜 가르치고 배워야 하나라는 관점이 결여되었다. 또, 일본에 있어서의 외국어교육이란 시점이 결여되어 외국으로부터의 간섭도 필요 이상 받고 있다.	국립대 전임
·대학에 있어서 특히 국제관련 학부는 한국어를 필수로 해야하며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관계를 전공하는 경우는 강의 시간수를 늘려 성과도를 확실히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일반 선택과목의 경우도 입문·초급·중급의 3단계학습이 가능하도록 커리큘럼을 짜야한다.	공립대 비상근
·제2외국어로써 파악한다면 중국어, 한국어가 프랑스어, 독일어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어, 독일어 재직교원 고용에 관한 문제로, 학생의 변화추세에 맞는 변화와 대응은 불가능하다.	사립대 교무과
·여러가지 언어를 접하는 편이 좋다. [복수 의견]	국립대 전임 사립대 비상근
·일본어가 모어인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배우기 쉬운 외국어라는 것을 빨리 인식했으면 한다.	사립대 비상근
·일본어화자에게는 배우기도 쉽고 여러면에서 친근한 관계의 외국어이므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의 국제화를 방해한다.	사립대 전임 (타교과)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 사용빈도가 높고 시민의 관심도 높다.	사립대 교무과
·배워야 한다고 생각치 않는다. 선택제로 배우는 정도가 좋다.	사립대 교무과
·이분화되리라 본다. 한글에 흥미가 있는 학생은 한국문화·조선문제에 관해 보다 깊이 이해하려 하지만, 그 외의 학생은 변함없이 김치, 불고기 정도의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사립대 부속도서관
·배워야 한다.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사립대 전임
· '배워야만 한다' 고까지는 생각치 않는다.	사립대 전임
·시민레벨의 교류를 위해서. [복수 의견]	국립대 비상근 사립단체 전임
·사회적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	국립대 전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을 위해 환경을 부여해야 한다.	사립대 전임
·의무로 할 필요는 없으나 기회는 준비해 두어야 한다.	사립대 전임
·이공계대학이므로 앞으로도 예정이 없다.	공립대 비상근 (타교과)
·목적과 목표에 따라 다르므로 대답할 수 없다.	사립대 전임
·본인이 제일 한국인인 경우, 또는 이웃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립대 전임

9-2. 다방면에서 한국어교육을 파악

한국의 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일반인들의 일본어학습자가 많은 것과 비교해,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도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양국간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서 한국의 일본어학습자 규모에 버금가는 정도의 한국어학습이 필요하다고 보는 생각도 있다. 외국어 학습은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지역과 일본과의 교류를 촉진시키므로 상대국 언어를 배우는 쌍방의 학습인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영어권과는 관계가 멀다.

이 문제는 일본이란 나라가 주변국가들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는가와도 관련이 깊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또는 북한과 일본의 관계, 이웃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에 있어서 일본의 위치를 재파악하는 것이 한국어학습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생각이다. 결국은 '외국어'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다. 영어 일변도를 대신하는 다언어적인 견해가 침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어교육을 둘러싼 상황변화는 일본이 처한 국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표 79] 한국의 일본어교육과의 관계

·한국에서 일본어교육이 활발한 것에 비하면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어교육은 너무나 빈약하여 한심하다.	사립대 비상근
·한국의 일본어교육에 비해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아직 규모가 작아 균형이 맞지 않다. 조금 더 한국어교육 인구를 증가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되면 상호이해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사립대 전임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어교육과는 정반대로 실리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전문가를 제외) 배우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 놀랍다. 언어 뿐 아니라 문화와 역사에 대한 학습관심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국립대 전임 (타교과)
·일본에 있어서 한국어교육의 충실이란, 미래의 한일교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여러 관계기관에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히 편성, 운영하여 한국어학습자 저변을 넓혀갈 것이 요망된다.	사립대 전임
·한국 고등학교에서의 일본어학습자와의 균형도 생각했으면 한다.	사립대 비상근

한국어를 배우는 동기는 이웃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적지않다. 같은 관점에서 중국어학습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사람도 많다. ‘이웃나라’ 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러시아연해주보다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친근감이 있는 이웃나라로서 한국(과 북한)을 보는 견해가 많다. 이웃나라에 대한 의식도 동아시아지역 내에서 일본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어를 공부 하는 것이 이러한 의식을 심화하는 면도 있지만, 최근 학습자들에게 이런 의식은 희박하다고 말해진다.

[표 80] 이웃나라 언어로서의 한국어

·뭐라해도 한국은 이웃나라이다. 교제를 위해서 언어를 배워야 한다. 한국어는 일본어와 문법이 비슷하다.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외국어(→외국)에 대한 이미지(그에 따른 일본어·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혁신될 것이다.	사립단대 전임
·근린우호국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이해를 더욱 돈독히해야 한다. 아직도 가깝고 먼 관계이며 일본인의 한국인을 특별시하는 경향은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언어를 중심에 둔 한국교육은 필요하다. 단, 주입식교육이 아니라 선택가능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며, 관심을 넓히는 일도 중요하다.	사립대 교무부
·이웃나라이므로 일본어와 비슷한 점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사립대 교무과
·이웃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사고가 필요하다.	사립대 전임
·한국에 비해서 일본이 이웃나라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이 늦어졌다고 생각한다. 양국은 같은 동북아시아지역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이다. 관민 모두가 한국어교육의 보급에 힘써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긴 역사와 문화 속에서 자라난 언어를 접하는 것은 양측의 이해를 높인다.	국립대 비상근
·이웃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사립대 전임
·이웃나라에 더욱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	국립대 전임
·이웃나라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립대 교직과
·배워야만 한다고 까지는 생각치 않으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특히 우호적인 이해, 관계를 위해) 강요보다는 선택의 문제라 생각한다.	사립대 전임
·이웃나라에 대한 친근감을 갖기 위해. 다른 문화권의 생활을 말을 통해 체험하면 인생이 넓어진다.	사립대 교무과

한국어학습은 외국어 일반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의식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기본적인 문법이 같아 학습하기 쉬운 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이웃나라 언어로서 보면, 중국어 또는 러시아어를 한국어와 같이 취급할 수 있겠지만, 어순이나 문법을 비교하면 일본어와 한국어만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학습하기 쉬운 언어라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영어와 프랑스어가 일본어와는 전혀 다른 외국어인데 비해 한국어는 비슷한 점이 많은 외국어라고 말해진다. 미, 유럽언어와 중국어라는 종래의 외국어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외국어 관념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표82의 영어교육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어를 생각해 보는 것도 같은 생각에 기인한다.

다양한 외국어 관념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표82의 영어교육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어를 생각해 보는 것도 같은 생각에 기인한다.

[표 8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은 일본의 외국어교육의 방향을 근본부터 재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일본어가 모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심화, 연구가 요구된다. 한일대조언어학, 한국어학의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사립대 전임
·외국어교육은 제대로 된 제도가 필요하다. 다른 외국어교육과 비교해 제도상의 문제점이 많다.	국립대
·일본어모어화자의 오용분석과 개선방법에 대한 연구를 추적해야 한다.	사립단체 비상근
·아시아계 어학으로써 중국어가 압도적인 우위에 서 있으나,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어의 위치를 거론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한국어의 유용성이 실제화되어 눈에 드러나기를 바란다.	사립대 전임
·일본어는 모음이 적고 유성, 무성음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소리의 영역이 몹시 좁다. 자음으로 끝나는 어미 발음이 곤란하다. 가능한 한 어렸을 적에 영어 뿐 아니라 한국어, 중국어의 간단한 회화, 발음연습을 해 둘 필요가 있다.	공립대 비상근
·일본어와 한자어를 재인식하는 기회가 된다. 어학교원이 아니라, 원래는 역사교육이 중심이라서 어학당에서 5급까지 연수를 받았다. 언어의 보급, 체계, 일본어와의 비교 등을 시험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나 아직은 개론에 가깝다.	사립단체 전임 (타교과)
·일본어 이외의 2개의 언어를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가 필요하다.	사립대 전임
·서양언어 이외의 말을 접하므로써 외국어의 이미지를 다양화한다.	사립대 비상근
·외국어학습은 각 학생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다.	사립대 전임
·사람에 따라 인생에서 필요한 언어는 다를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다.	사립대 전임
·언어는 가능한 한 빨리 접하는 게 중요하다.	국립대 전임
·타 언어학습은 문화학습도 되고, 깊은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사립대 총무
·서구계언어와 아시아언어를 하나씩.	국립대 전임
·현재 외국어의 일환으로써 한국어를 제공할 것을 검토 중.	사립대 교무과
·어학과 '조선사정' 을 세트로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사립대 비상근

[표 82] 영어교육과의 관계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한국의 여러 대학과 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어' 가 공통언어이다. 특히 대학원생 레벨의 학구적인 교류는 '영어' 만으로 충분하다.	국립대 교무과
·영어능력향상에 보다 더 힘써야 한다.	사립대 사무부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립단체 사무
·영어 초차도 불충분한 상황이다.	국립대 전임 (타교과)
·역시 대학입시를 생각하면 영어다.	사립대 교무과
·영어교육의 실패(독해중심으로 몇 년을 공부해도 말할 수 없고 제대로 된 문장을 쓸 수 없다)를 되풀이 하지않기 위해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기능을 균형있게 신장시키는 교육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의 도구가 한국어라는 인식이 필요.	국립대 비상근
·영어 일본도의 외국어교육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한국어교육이 더욱 보급되어야 한다. 더욱 가까운 아시아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도.	사립단체 전임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속에서 한국어도 선택이 가능하면 좋겠다.	국립대 전임
·이유가 있어서 스스로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사립대 교무과
·영어보다도 친근감이 있다.	사립대 전임
·희망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영어의 대신으로써 좋지 않다.	국립대 전임
·영어도 중요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영어 이외의 언어도 배우는 편이 좋다.	사립대 사무
·한국어가 아니라도 영어 이외의 외국어이수는 바람직하다.	사립대 전임
·한국어가 아니라도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이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립대 전임 (타교과)
·영어이외에 1-2개 언어.	사립대 비상근
	국립대 전임
	국립대 전임
·영어 외에 한가지 언어라면 무엇이라도 좋다. [복수 회답]	사립대 교무과
	사립대 전임
·영어+1개의 아시아언어.	사립대 전임

9-3. 교원양성과 현직교원의 재교육

한국어를 비롯한 외국어관념의 문제와는 달리, 교원을 둘러싼 상황은 시급한 문제인만큼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 한국어학습자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화된 한국어교원의 문제는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이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사항은 교원양성과 현직교원의 재교육에 있다고 할 것이다.

표83을 보면, 계통적인 교수법을 배우지 않은 교원에 대한 비판, 한국어모어화자교원에 대한 불만, 재일교포교원에 대한 비판 등, 교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다. 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상근강사의 고용대책도 큰 문제이다. 한국어학습자가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전임교원이 필요할 정도로 증가한다고는 많은 관계자들이 보고 있지 않다. 학습자가 감소하는 프랑스어나 독일어교원의 고용조절도 문제가 되어, 외국어교육을 포함한 대학 등의 교육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에 왔다고 할 것이다. 표84에 나타난 고용문제의 해결도 중요한 문제이다.

[표 83] 교원의 자질향상

·(한국어 수업) 더욱 보급해야 한다. 또한 교원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립대 비상근
·고등학교·대학을 포함해서 수준 높은 교사가 필요하다. 자신의 좁은 경험을 보편화하여 교육하려는 전문가로서의 자각이 결여된, 돌팔이의사 같은 '한국어교사'의 참여를 저지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국립대 전임
·어학교사 뿐 아니라 한국·조선 문화와 사회에 대해 정확하고 논리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원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립대 전임
·교원의 재교육기관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국립대 전임
·교원양성에 조선어 교육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	국립대 전임
·언어교육 비전문가의 재교육도 필요하다.	국립대 전임
·교수법연구는 자칫하면 매뉴얼이 돼 버린다. 매뉴얼대로 행하는 수업만큼 재미없는 것도 없다. 오히려 거칠고 세련되지 못해도 각각의 선생이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에 임기응변할 수 있는 수업이 훨씬 매력적이다.	사립대 전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자가 멋대로 가르치고 있는 케이스가 종종 눈에 띈다. 조선문화권 전체를 시야에 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가 많다.	국립대 전임
·네이티브 이외에, 한국을 잘 모르는 교원이 많다.	사립대 전임
·재일한국인교원의 경우, 이름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된 자도 있다. 레벨 이전의 문제다.	사립대 비상근
·한국·조선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일본인교원이 적다.	사립단대 비상근
·당 대학에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전임 2명]	국립대 전임
·(한국어 표준어가 아닌)방언화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사립대 전임
·전임교원을 늘려야 한다.	사립대 전임
·(2003년 4월) 현재, 전임교원이 없다.	국립대 교무과
·다행이도 경험이 풍부한 교원이 많고, 일본어교원양성, 동양철학, 국제정치경제의 분야에도 한국관련전문가가 있다.	사립대 전임

[표 84] 전문교육연구자 양성과 교수법 확립

·무엇보다도 고도로 전문화된 교원연구기관이 필요. 대학원 레벨의 우수한 연구자를 빨리 육성하지 않으면, 일본전체의 한국어교육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 교재도 아직 전체적으로 수준이 낮다. 현재로는 우수한 일부 연구자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선구적인 연구자양성이 급선무이다. 우수한 연구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연구자는 일본어모어자 뿐 아니라 한국어모어자도 일본의 대학원에서 양성해야 한다.	국립대 전임
·대학원을 충실시켜 한국어 모어자의 교육도 충실해져야 한다.	국립대 전임
·아직도 조선어가 '우랄 알타이어족'이라는 설을 아무런 검증없이 언뜻 들은 지식으로 진짜인양 고교생에게 교육하거나, 또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미워 미워 미워'를 가르치는 등의 부적절한 현상은 근절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립대 전임

II.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분석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인재가 몹시 드물다. 이것은 대학의 조선어학과가 부족한 점에서 기인하므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비전문)이나 한국유학 경험이 있는 일본인(비전문)이 주로 가르치는 현실에서 체계적인 수업은 불가능하다. 교사의 레벨이 아주 낮다.	국립대 전임
·대학, 고등학교의 우수한 전문교원, 연구자의 양성이 급하다. 대학, 고등학교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재정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국립대 전임
·한국에서 언어학이나 언어교육법을 배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사립대 전임
·한국 내에서의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이나 일본어교육의 현실과 과제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한일 상호교류와 연구, 연수회 등이 더욱 필요하다.	사립대 전임
·교수법의 연구와 개발이 시급하다.	국립대 비상근

대학 등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 일본 문부과학성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표85와 같이 한국어교원과 연구자양성, 그리고 교수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몇 년을 주기로 되풀이되는 한국붐, 역사, 영토문제를 미디어가 증폭하는 등의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등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외국어교육정책 확립이 시급하다.

[표 85] 사회적 수요확대와 고용문제

·조선어에 관한 고용 창출, 취직대책에 눈길을 돌릴 때이다.	사립대 비상근
·교원이란 직업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수 있었으면 한다.	사립대 비상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전임교원의 채용증가가 요구된다.	사립대 전임
·대학수업을 전임교원이 보다 많이 담당하게 된다면(전임수가 늘어나), 교수법을 배운 교원이 담당해 교육의 질도 높아진다.	사립대 전임
·대학, 고등학교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임교원을 두는 것이다. 신분적인 보장없이 교육의 질적향상은 어렵다. 사립대학에 모범이 되는 대학에서 한국어 전임교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국립대 전임
·대학의 전임교원이 비상근강사로 단대에 출강한다.	공립단체 교무과
·일반적으로, 영어 이외의 교원은 비상근이다.	사립대 교무

9-4. 학습교재 개발

앞에서 살펴본 문제들과 함께 교재개발이 시급하다. 관계자들의 오랜 노력과 연구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는 크게 확충되었다. 대형서점에는 한국어코너가 설치되어, 입문,초급용 서적이 범람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교수법과 이론에 충실한 교과서나 학습교재가 충분히 공급되어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표86과 표87의 내용이 말해주고 있다.

[표 86] 학습내용

·일부에서 학습자의 능력을 이유로 '쉽게 가르친다' 는 명목하에 조선어교육의 질을 낮추는 예가 있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알기쉽게 가르치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	국립대 전임
·총 이수시간수와 학습어휘와 문법사항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 전임
·학습지도요령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사립대 비상근
·(B1의 회답은 본 대학의 현실적인 교육목표로, 일반적인 목표는 아니다)교육목표는 한국어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사립대 전임
·바람직한 커리큘럼과 교수법에 대한 연구, 논의가 필요하다.	사립대 비상근
·문화적 접근은 효과적이고 재미있으나 한계도 있다.	사립대 전임
·언어의 배경에 있는 문화와 사회, 역사 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립대 비상근
·한국의 문화, 생활, 인물 등을 소개하는 교육용 비디오(일본어자막) 제작을 희망한다.	사립대 비상근
·문자와 발음이 중심이나 문화도 다룬다.	공립대 비상근 (타교과)
·본 학교에서는 3명의 비상근교원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며 교재와 교수법 등도 공유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사립대 전임

[표 87] 교재와 교구의 필요성

·이처럼 한국어교육이 급속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교과서와 보조교재, 교구, 시청각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	사립대 전임
·자신을 비롯하여 지금까지의 학습자는 독학, 유학이라는 방법으로 공부했으나, 학습자의 증대에 따라 우선은 텍스트 개발이 필요하다.	사립대 교무과
·텍스트 이외의 교재(비디오나 그림교재 등)가 필요하다.	사립대 비상근
·일본어모어자를 대상으로한 다양한 교재개발이 요망된다.	국립대 전임
·현재, 일본에 나온 교재(텍스트)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있다. 문법체계, 문법용어 등이 교재나 교사에 따라 다른 것은 나름대로의 식견에 의한 것이므로, 특별히 통일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가장 이상적인 교수법의 추구는 전문가 사이에서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한다.	사립대 전임
·아주 조잡한 텍스트를 가끔 접한다.	사립대 전임

9-5. 대학 등과 고등학교교육의 연계

본 보고는 일본의 대학 등과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을 파악하여 관계자들간에 공유하는 것을 제일 큰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한국어교육을 둘러싼 대학 등과 고등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표88에 ‘고대연계’에 관한 대학관계자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를 참고한 분들로부터 여러 의견과 비평을 듣는 것이 일본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논의를 한층 깊이 해갈 것으로 기대한다.

[표 88]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의 한국어교육

·대학과 고등학교교사의 협력관계는 한국어교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하나로 뭉쳐서 논하기엔 불가능하다.	사립대 전임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분투하는 고등학교교사가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는 대학선생보다 훨씬 좋은 수업을 하고있는 예가 많다.	사립대 전임
·고등학교와 대학이 협력해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면 대학에서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협력이 중요하고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도 필요하다.	n/a
·고등학교 네트워크는 존재하나, 대학교원의 협력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우선 대학교원만의 만남이 필요하다.	사립대 비상근
·고등학교 때 한국어를 배워야 할지는 제쳐두고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이 좋다.	사립대 전임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언어를 포함)에 대해 관심을 가질 기회를 늘렸으면 한다.	사립대 비상근
·고등학생의 반까지는 아니지만 30% 정도가 한국어를 배우면 좋다고 생각한다.	사립단대 교무과
·대학의 질적향상을 위해 고등학교의 역할은 크다.	국립대 전임
·현 단계에서는 대학에서 고등학교교육에 협력 할 수 있는 역량과 여유가 없다.	사립대 전임
·고등학교의 이수자, 센터시험 한국어수험자 등은 신청에 의해 중급 이후부터의 수강을 인정한다.	국립대 전임
·동기가 생겨 학습을 시작하는 것은 고등학교인가, 대학인가는 별 관계 없다.	사립대 전임
·지역 내 고등학생 희망자에게 수업을 개방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선택가능한 언어를 늘려야 한다.	사립대 전임
·일본어선택의 한국 고등학생과 한국어선택의 고등학교생이 1개월 정도 공동생활을 한다. 자국어를 서로 가르쳐 주는 작업을 통해 인간적인 친근감과 신뢰관계가 구축될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변화와 성장이 기대된다.	공립대 강사
·고등학교에서는 터키어, 에스페란토어 등 비교적 문자가 어렵지 않으면서도 언어학적 관점을 육성하는 언어를 학습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조선어를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대학과 고등학교 모두 아직은 적절한 교원이 교육을 맡고 있는 케이스가 드물다. 지금은 그 이전의 단계다. 앞으로 교원의 질적, 양적향상 여하에 따라 일부 상호협력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국립대 전임

II. 한국어교육의 현 상황분석

·조선어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사립대 비상근
·대학과 고등학교가 협력해서 일관성 있는 교육을 행해야 한다.	사립대 전임
·고등학교에서의 학습을 전부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 상황에서는 대학에서의 학습이 타당하다 여겨진다.	사립단체 비상근
·언어보다 우선 일본문화와 유사한 점, 다른 점 등, 문화를 알아야 하며 언어습득은 대학부터 공부해도 된다.	사립대 부속도서관
·제도화하면 강제적인 요소가 따르므로 협력은 필요하나 제도는 필요없다.	사립대 전임
·(위 2개의 질문 의미가 불명하나)초기단계의 언어를 이미 학습한 자는 본인의 신청과 교원의 질문에 의해 입문, 초급단계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	사립대 비상근
·목적이나 목표에 따라 다르므로 대답할 수 없다.	사립대 전임
·단대, 4년제 뿐 아니라 본 학교관계 교원, 사무원, 부속고등학교생도 수강가능.	사립대
·방송대학에서의 단위를 인정. [복수 2]	국립대(2)
·방송대학 시청.	국립대
·단대에서 개강.	사립대

마지막으로, 본 조사 내용과 그 이용 등에 관한 대학관계자의 코멘트를 실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할 때에 참고하고자 한다. 한국어전임교원이 아니(거나 없)어서 답변할 수 없다는 코멘트는 많은 외국어과목의 공통점이라 생각한다.

고등학교 한국어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어교육의 금후 방향에 대해 타교과 관계자와 외부 이해자가 참가하여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회의 심포지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의견교환의 장이 필요하다. 한국어교육의 장래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제도의 안팎에서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협력해야만 한다.

[표 89] 본 조사에 대한 의견 등

·다른 여러대학이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가, 문제를 안고 있는가,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	사립대 전임
·한국조선어의 전임이 아니어서 답변이 어렵다. 한국조선어를 중시하는 방향은 생각치 않고 있다.	사립대 전임 (타교과)
·(참고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나)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실정이다.	사립단체 교무과
·고등학교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므로 고등학교교육과의 공통점과 상이점은 답변할 수 없다.	국립대 전임
·이 양케이트에는 '그 외' 라는 항목이 없어서 기입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교육에 있어서의 한국어학습(복수회답)[D2]에서, 가능한한 많은 학생이 배웠으면 좋겠으나, 그렇다고 전원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경우, 어떻게 답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사립대 전임
·A3·4의 질문은 답할 수가 없다(D2도 마찬가지).	사립대 전임
·B4는 설문자체가 이상하다. 바람직한 커리큘럼과 교수법이 이미 확립되었다고 보는가? 그 자체의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가? D3은 적절한 선택이 없어 답하지 않는다. D4는 어떠한 레벨에서 말하는 지를 모르겠다. 답할 수 없다.	사립대 비상근
·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워야만 하는가' (D2))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라고도 할 수 없다' 이므로 답하지 않음.	사립대 비상근
·전임교원이 없기 때문에 회답이 어렵다. 앞으로 한국어를 중시할 생각은 없다.	사립대 교무과
·선택으로 답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발상이 너무 단순하다.	사립대 전임
·타대학이나 동대학에 재직자의 평가는 피하고자 한다. 타대학의 이수상황도 모른다.	사립대 전임

Ⅲ. 한국어 개설상황(학교 리스트)와 조사표

1. 고등학교 개설상황: 1997-2003년도(J103-J110)
2. 단기대학 및 기타 학교 개설상황: 2002-03년도(J101-J102)
3. 4년제대학 개설상황: 2002-03년도(J93-J100)
4. 2002-03 년도 대학 등 조사표(J83-J92)

제Ⅲ부(J83에서 J110까지)에 대학 등과 고등학교 개설상황과 2002-03년도 대학 등의 조사에 관한 조사표를 일본어에 한해 게재했다.